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CONTENTS

본 연구보고서는 대전광역시의 지역혁신 체계 구축, 과학기술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사업화 펀드 조성·운영계획 수립(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제 1 장 추진개요

-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8
- 1-2. 대전시 과학기술 사업화 현황 15

제 2 장 기술창업·금융 현황 분석

- 2-1. 투자조합(펀드)의 이해 28
- 2-2. 국내 벤처투자조합 현황 분석 37
- 2-3. 국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분석 43

제 3 장 대전지역 현황

- 3-1. 대전지역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분석 64
- 3-2. 대전지역 기술창업 생태계(지원조직 및 프로그램) 현황 71
- 3-3. 대전지역 스타트업 투자조합 현황 및 스타트업 투자동향 분석 91
- 3-4. 대전시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가용자원 현황 99



제 4 장	대전 스타트업 Inno-Fund 기본계획	
4-1.	투자조합 조성계획(안)	104
4-1-1.	(1안) 대전형 '모태펀드' 조성·운영 방안 및 모델 제안	106
4-1-2.	(2안)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투자조합 출자	109
4-1-3.	(3안)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업무집행조합원(GP) 선정 방식	110
4-2.	투자조합 출자조건 설정 및 운용사 선정(안)	111
4-3.	독립·자율형 공공 대전지역전문 투자펀드·기관 조성방안	116
4-4.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방안	123
4-5.	투자조합 결성 관련 법·제도적 이슈	125
4-5-1.	투자조합 조성 근거	125
4-5-2.	투자조합 조성 관련 법·제도적 이슈	129
제 5 장	제안: 추진체계 및 실행 방안	136

| 요약 |

▶ 대전지역 기술융합형 딥테크 기업을 위한 펀드의 필요성

✓ (문제점) 대전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대비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투자·성장지원 구조는 미약

- 대덕특구 중심의 강점인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 기술사업화 투자와 지원체계가 필요
- 현재 대덕특구는 국가대표 특구로서 여러 강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 및 투자 후 대전지역 창업사업화 역량 부족*으로 인해 민간의 공동 투자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
 - * '20년 창업사업화 활동순위: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부산, (4위) 전북, (5위) 대전 <출처: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KISTEP, 2021)>
- 대전시에서 출자한 기존 펀드들의 경우, 조성규모 대비 정책적 투자효과*는 미약한 수준이며, 초기 투자가 절실한 기술융합형 딥테크 기업투자 펀드(융합기술펀드 1개 해산 중)가 부재하고, 구조상 통합적인 지역내 투자현황 파악 어려움 등 이슈가 상존
 - * 출자펀드의 대전지역 기업 주목적 투자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종합적인 성과관리는 어려운 상황

[대전광역시 투자펀드 현황 (총 26개: 투자 중 19개, 회수 중 5개, 청산 1개, 해산 1개)]

※ 2021. 6. 30. 기준

펀드명칭 (개)	대전엔벨투자 매칭펀드*	대전4차산업혁명 투자조합	에이티넷 성장 투자조합	다담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대덕특구창업초기 투자조합	KST 실험실 창업 제1호 개인투자조합	미래주주 창업투자 제2호 개인투자조합	다담-대전 성장 지원 1호 투자조합	WE지방유니콘 육성펀드 1호	로우파트너스 개인투자조합1호	충남대학교기술자주(주) 지방개인투자조합 1호	에이벤처스 W 유니콘 투자조합
대전광역시 관제부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주목적 투자분야	창업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4차산업혁명 주도 기업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소셜벤처 기업	대덕특구 창업초기기업	창업3년 이내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창업초기 중소 벤처기업	지반소재 창업자·벤처기업	지반소재 창업자·벤처기업	지반소재 창업자·벤처기업	지반소재 창업자·벤처기업	여성기업, 초기기업
결성총액(9655.89억)	50억	130억	3,500억	145억	230억	113억	70억	100억	160억	15.3억	30억	246억
시총규모(794.22억)	8억(16%)	50억(38.5%)	150억(4.7%)	10억(6.9%)	20억(8.7%)	21억(18.5%)	9.7억(13.9%)	18억(18%)	24억(16%)	3억(19.6%)	6억(20%)	30억(12.2%)
결성일	2015.12월	2017.12월	2017.12월	2018.12월	2019.7월	2019.8월	2019.11월	2019.11월	2019.11월	2020.7월	2020.7월	2020.10월
운영기간	10년	8년	8년	8년	8년	8년	8년	8년	8년	7년	8년	8년

케이펀드6호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대전스타트업 파크 투자조합	충남대-로우 대학 창업 투자조합 제1호	케이에스티-미래 제1호 공공기술 사업화투자조합	충청 지역누딜벤처펀드(1차) (모펀드)	충청권 경제활성화 투자조합 (청산완료)	융합기술투자조합 (해산 중)	충청권 스타트업 액셀레이팅 펀드 (회수 중)	충청권글로벌기술 투자조합 (회수 중)	일자리창업 투자펀드 1호 (회수 중)	문화산업펀드 (회수 중)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회수 중)	일자리창업 투자펀드2호	대전규제자유특구 블루포인트 투자펀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과학기술국	문화체육관광국	과학기술국	과학기술국	과학기술국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초기 창업기업	대학창업기업 학생창업기업	공공기술 사업화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물산업, 총칭소재 중소·벤처기업	대전충남권 성장성 높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융합기술관련 특허 등록, 출원중인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	공공기술이전기업, 해외진출기업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자본금 10억이하 영세기업 및 프로젝트	특구 내 기술 이전 또는 출자 기업	특구가 포함된 지자체 권역 내 중소벤처기업	비수도권 및 대전 규제자유 특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334억	145억	20억	200억	1,300억(3년) 305억	206.5억	111억	188억	150억	1,250억	263억	501억	733.5억	120억
30억(9%)	20억(13.8%)	4억(20%)	30억(15%)	70억(3년) 25억(8.2%)	21억(10.1%)	10억(9%)	9억(4.8%)	16억(10.6%)	87.5억(7%)	43억(16.3%)	40억(8%)	100억(13.6%)	20억(16.7%)
2021.8월	2021.8월	2021.9월	2021.10월	2021.10월	2012.2월	2013.3월	2016.5월	2017.12월	2012.10월	2015.1월	2017.4월	2018.7월	2020.12월
8년	8년	8년	8년	12년	7년	8년	8년	6년	8년	8년	8년	8년	7년

※ 출처: 대전광역시(2021. 6.)

✓ (해결방안) 대전의 장점인 연구역량을 경제적 수익으로 변환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투자플랫폼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대덕특구 공공연의 역량과 지역 산업이 함께하는 상용화 연구 등 큰 규모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융합 분야 기술집약형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중심으로 세계수준의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사업화 투자방안 마련
- 특히,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글로벌 과학기술인재들과 지역시민이 함께 투자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

▶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방안

✓ (투자 플랫폼 구축(안)) 공공연과 지역기업이 시너지를 제고하는 융합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지역전용 투자 플랫폼 구축 요구

구분	기존 생태계	융합혁신 생태계
플랫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기관, 출연연, 대학이 각각 지역기업 수요보다는 기관 목적에 따라 기업지원 사업을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수요기업 관점에서 시장지향형 기업지원 서비스 기획·연계·제공
펀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벤처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반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벤처기업의 초기투자 유치·Scale-up·Exit을 위한 투자·회수체계 재정비

- 지역의 정책적 효과와 혁신인프라와의 시너지 그리고 지역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조성 후 업무집행조합원에 전문을 일임하기 보다는 지역기업 투자비중, 정책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성과(지역기여도 등)를 지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조성

* 향후 대전시 출자 펀드를 재정비하고, 시 출자펀드 운영·관리기관 간 협력 기반의 투자 플랫폼 구축 필요

펀드설계 방향(안)

- (투자기획) 투자대상을 엄선하여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투자 실시
- (투자방향)
 - ① 공익성(기업성장 지원)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 지역기업 투자비중: (기존) 市 간접 출자로 10% 미만인 경우가 다수 → (변경) 정책목적에 감안해 지역기업 비중 상향조정
 - ② 정부자금(지역기금)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③ 유망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선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포트폴리오) 펀드유형 별로 글로벌 Inno-Fund와 시민참여 공공펀드를 이원화하여 펀드 성격에 부합한 기대효과 창출
- (투자체계)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효율 제고
- 주목적 투자(안):

투자분야	지원분야 및 대상
융합 분야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융합실증연구 기반 디테크 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 해외 우수과학 인재, 외국인, 글로벌 지향형 초기 스타트업
사회적 문제 해결 분야	- 기술 기반으로 지역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전략산업 분야 등	- 기타 市의 정책적 차원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

- 펀드운용 리스크 관리체계: 대전소재 기업육성·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되, 손실을 방지할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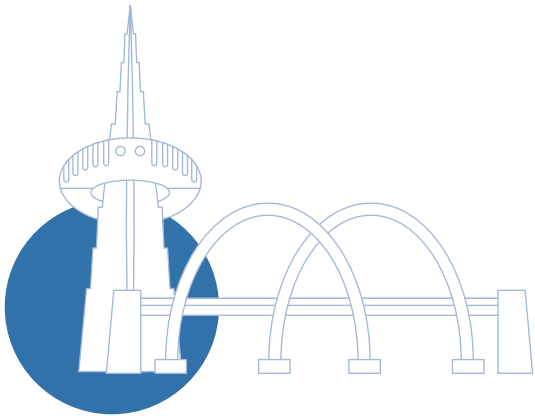
✓ 대전지역 혁신인력의 연구역량이 글로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지역기반으로 직접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펀드조성 방안을 제시

조성(안)	주요내용	장단점
(1안) 대전형 '모태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에 지분출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업체에 대한 자금공급 수준 제고 	<p>(장점)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로서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고, 정부자금의 레버리지에 기반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p> <p>(단점) 모태펀드 출자 시 정부가 출자분야와 조건을 정하여 획일적인 탑다운(top-down) 방식의 민간자금 모집 및 펀드 결정에 따라 운용사가 투자조건·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어려움</p>
(2안) 모태펀드 출자 조합 선정 투자조합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성되었거나 결성 예정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출자사업 공고를 내고, 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 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 	<p>(장점) 검증된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고, 특별조합원(한국벤처투자, 한국 성장금융 등)의 사후관리를 간접적으로 이용가능</p> <p>(단점)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수익률과 함께 지역산업,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을지 불확실</p>
(3안)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업무집행 조합원(GP)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업무집행 조합원(GP)을 선정하기 위한 출자사업 공고를 내고, 선정된 업무집행 조합원(GP)과 협력하여 주목적 분야별 다수의 투자조합을 결성 	<p>(장점) 민간 투자자 주도로 투자대상을 선별, 지원하되 자체적인 역량도 함께 배양하여 투자·지원사업 연계 등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적합</p> <p>(단점) 중장기적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시간소요가 필요하며, 정책효과 극대화 목적에서 초기 수익률은 저조할 수 있고, 적극행정면책제도 도입 등 대전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p>

▶ 투자 펀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대전지역 과학기술 인력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상생·공존하여 모두가 잘 사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의 시민참여 제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

조성(안)	주요내용
(1안) 시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투자 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지역펀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자체 펀드 결성 유도 정책형 지역펀드는 지역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전지역 융합형 기술집약형(Deep Tech)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기업, 지역내 소셜벤처 및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2안) 클라우드 펀딩 연계지원형 시민참여 공공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과 별도의 시민참여 공공펀드를 연계하고 DISTEP의 육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투자와 함께 추가적인 지역사회적 가치를 제안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집중하여 높은 지역정책효과 증진 주목적 투자 비중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따라 초기 재원은 기부금 형태로 조성



제 1 장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추진개요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2. 대전시 과학기술 사업화 현황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다양한 지역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 확대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 및 혁신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일자리 부족, 소득 창출 기회 상실,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불균형 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 심화
 - * 우리나라 총 지역내총생산(GRDP) 1,924조원 중 수도권이 1,001조로 전체의 약 52%(통계청, 2019년 기준)
 - *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은 74%(KBS '시사기획 창', 2019년 기준)
 - *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80.2%가 서울, 93.2%가 수도권에 위치(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9년 기준)
 -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연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
 - * 2021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70만명, 이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50.2%인 2,600만명(통계청).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있는 셈
 - * 2035년 이면 지방소멸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소멸위험지역(KEIS, '18) : 시군구 기준 89개(39%), 읍면동 기준 1,503개(43%)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중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에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함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혁신"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 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 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 극복,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디지털·그린·지역 균형뉴딜* 정책을 추진중임
 - *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으로,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주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고자「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시행 중임('19.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금융 주도 & 대기업 주도 글로벌 벤처 생태계

✓ 글로벌 VC 투자금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CAGR 18.8%로 '11년 약 70조원 규모에서 '20년 약 330조원으로 확대) (Crunchbase 'Global VC Report 2020')

- VC의 지속적 투자금만으로 조단위 기업가치 제고 사례가 속속 등장(Uber, Airbnb, SpaceX, Alibaba, Grab 등)하면서 벤처생태계에서 금융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
 - * 미국의 VC 투자는 미국 GDP의 0.64%에 불과하나, VC 지원을 받은 회사는 시가 총액의 57%, 총 고용의 38%, R&D 비용의 82%를 책임지고 있음 (포스코 김근환 발표자료, '21.3.19)
- 국내 VC 투자금액도 글로벌 대비 1.3%('20기준 4.3조원) 수준이나 '11년도 1.26조원에서 매년 급성장 중(CAGR 14.6%)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0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최근 주요국에서는 벤처, 창업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들로 급부상

- 과거와 달리 4차산업혁명이 놀라운 속도로 산업을 변화시키는 근간이 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의 발현 속도가 빨라지고, ICT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술상용화 장벽이 완화된 다양한 BM 기반의 사업이 창발하는 등 기존의 사업모델에 대한 파괴적 혁신*이 진행중
 - *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기대와 전혀 다른 기능이나 내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 (크리스텐슨, 하버드 경영대학원)

- 글로벌 대기업들도 미래 신시장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중앙연구소 주도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CVC* 또는 Top Tier VC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투자 중**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란 일반기업이 재무적·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탈(VC)을 의미. 글로벌 CVC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약 731억 달러 규모, 전체 VC시장에서 CVC가 주도하는 투자 비중은 2016년 20%에서 2020년 24%로 증가. 매년 30% 정도 성장(CB Insights)

** 대기업이 CVC 또는 VC를 활용하는 이유는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인수 합병(M&A)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중앙연구소를 통한 미래기술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벤처투자를 통해 신사업 진입을 꾀하고 있음(미국 대기업들은 2008년에 매출액의 18%를 R&D에 투자 → 2018년 8%만 R&D에 투자). 미국의 경영에서는 "외부의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M&A를 통하여 어떻게 내부의 기존 조직과 융합하느냐?" 하는 혁신경영이 중요한 이슈(포스코 박성진, '21.6월)

- (삼성) 국내-삼성벤처투자, 해외-삼성NEXT, SSIC 활용을 통해 혁신기술 및 산업을 선싱하고 우수인력 확보 추진
- (SK) 성장동력 발굴은 SI를 통해 미래 신사업 투자는 FI투자를 추진하며 LP로서 입지를 공고화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 **한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신기술기반 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해 기틀 마련**
 -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 IT기업들의 붕괴로 양적성장을 추구하던 정책은 내실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2010년대 이후 제2의 벤처붐으로 벤처투자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 **혁신기술 기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와 세계적 벤처강국으로 재도약 위한 ‘제2의 벤처붐’ 조성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한국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연혁]

연도	대책	주요내용
2013.05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기술혁신형 M&A 세제 지원 등
2013.07	코넥스(KONEX) 시장 개설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제공 및 1차 회수시장
2013.10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 관련 법근거 보강 및 전담기관 설치 등
2014.02	벤처창업대책 보완 방안	스톡옵션 행사이익세금 선택납부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확대 (15백만원 이하 100%) 등
2014.03	M&A 활성화 방안	M&A 지원펀드 1조원 조성,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과세 이연, 역삼각합병·삼각 주식 교환 도입 등
2014.03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계획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글로벌 역량 강화, 성장단계·산업·지역별 특화 유도 등
2014.03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창업생애주기 기업가정신 교육, 고급 기술인력 창업 촉진, 창업 보육 선진화 등
2014.03	벤처창업규제 개선 추진방안	창업지원업종 확대, 창업부담금 감면 확대, 회생절차 간소화 등
2015.07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민간 벤처투자자금 유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투자 PEF에 벤처조합과 유사한 세제 지원
2017.11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 확충 (65개 창작 공간 선정, 2018.07.11.)
2017.11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사내 분사창업 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엔젤 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2018.01	혁신모형펀드 조성	민간전문가의 벤처 선별, 투자 및 운용규제 최소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민간제안펀드 도입
2018.05	엔젤투자 혁신방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지역투자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2018.06	민간주도 방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를 창업교육부터 시제품제작, 해외진출, 투자 등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
2019.03	제2의 벤처붐 확산 전략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scale-up)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2020.08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등

*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 연구’ (2020.03)

공공기술 사업화의 패러다임 변화

- ✓ **공공분야 사업화지원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벤처생태계의 미성숙에 기인한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이전·사업화 모델의 한계 확인**

 - 공공연구기관인 출연연과 대학 입장에서 보면 공공연구성과를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에 추진해온 기술이전중심의 한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11년도 3,420건에서 '19년도 8,458건으로 2.5배 증가하였고, 기술이전 수입은 '11년도 1,258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년도에는 2,273억원으로 1.8배 확대됨.
 - * 반면, 기술이전 효율성((조사대상연도의 기술이전수입/조사대상연도의 연구개발비지출)은 '11년(1.32%) 대비 0.41% 상승한 1.73%, 매출이 발생한 사업화 성공률은 '11년 기준 23.6%에서 '19년도는 26.6%로 답보상태(2020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KIAT)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방향과 더불어 창업을 통한 사업화 즉 '창업사업화' 또는 '기업사업화'로의 패러다임 변화* 적극 검토 필요 시점
 - *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사업 센싱의 방법으로서 펀드 조성·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의 적극적 활용방안으로서의 창업사업화 특히, 기획창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 **특화된 기술/창업인큐베이션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확장 및 R&R을 명확히 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現 시스템 하에서 공공부문은 기술/창업인큐베이션 기능이 불명확한 역할, 거점, 사업이 혼재하고 있는 경향으로 장기적 기술/창업 인큐베이션 시스템화 미흡
 - * 대학산학협력단, 기술주주회사, 개별 출연(연) 단위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조직을 개별적으로 운영. 제한된 재정과 인력 뿐만아니라 창업지원이 기관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한계
 - 개방형 창업 장려, 창업팀에 대한 기술/경영 멘토링 및 기업설립/자금운영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및 집중지원 체계 마련 필요
 - 타 연구기관/글로벌 엑셀러레이터/민간과의 공동연구, 투자유치 및 창업을 자유롭게 이끄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필요

대덕특구의 혁신역량 활용과 대전의 위상 정립

- ✓ **대덕특구는 추격형 경제 시대에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73)되었으나, 연구개발 특구로 전환('05)되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도약 필요**

 - 대덕특구는 추격형 경제 시대에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73)되었으나, 연구개발특구로 전환('05)되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도약 필요
 - 과거 대덕특구는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고 성장시키는데 기여 하였으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

[대덕특구 연혁]

구분	내용
태동기 (1970년대~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73), 이후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면서 '대덕연구단지' 조성 선진국 추격형 연구단지로 국가성장 견인 의무
성장기 (1990년대~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덕특구 준공 선포('92년) 이후 대덕벤처밸리 조성('00년, 벤처기업 협동화단지 6개소) 등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
발전기 (2005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 전환('05년) 이후 인접 산업단지 포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유치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로 발전 연구소기업, 특구펀드, 창업보육공간 확충 등 창업지원 확대
재도약기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AI, 빅데이터 기반 개방형 혁신생태계와 스마트 협업공간을 갖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 창의·자율·융합·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반으로 파괴적 기술혁신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촉진

대덕특구의
혁신역량
활용과 대전의
위상 정립

✓ 최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공간적·혁신생태계적 대전환 필요에 따라 대덕특구의 혁신적 재도약을 위해 미래비전 및 실행계획을 담은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21.4.29 과기장관회의) 수립*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국가 중추기관으로 대덕특구를 재창조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전략과 과제는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기업·산업 ▲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분야 8개 실행계획으로 추진 예정임

✓ 대전 지역의 우수한 혁신역량(출연연, 대학의 연구역량)과 공공기관의 지원프로그램 및 민간의 비즈니스 역량 및 인적자원의 결합을 통한 첨단산업 또는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 공간적·기능적 융합구조 창출 추진

- 2019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지수를 보면 경기 17.964점으로 1위(2015년 이후 5년 연속 최상위), 서울 2위, 대전 3위, 경북 4위, 세종 17위)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지역단위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행

대덕특구의 혁신역량 활용과 대전의 위상 정립

- 대전시가 추진중인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21.3.10) 등의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추진 고려
 - *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시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임
- 대전 주도의 차별적이고 전략적 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혁신 지원 및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전의 위상정립 필요

✓ 대전지역의 강점인 연구역량의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과 창업 추진

- 대전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대비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는 열악한 상황
- 실리콘밸리, 보스턴창업생태계 등 대부분의 성공적인 벤처밸리는 젊은 창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가가 위치함. 즉, 유능한 인력이 부가가치를 생산함을 알 수 있음
 - * MIT는 동문기업의 시가총액이 2,000조 원에 이르고 국가로 환산하면 세계 9위 경제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대전, 포항 정도가 벤처밸리가 가능한 지역
 - * 현재 미국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되는 신입 박사의 30%가 벤처생태계로 진출하고 이들 중 절반인 15%가 M&A를 통하여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인력 시장의 구조가 형성되어있음(포스코 박성진, 21.6월)
- 대전지역은 장점인 연구역량을 경제적 수익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창업 시스템'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 최근 과학기술기반의 '유니콘 기업 육성전략'(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을 수립하는 등 대전시의 유니콘 기업의 배출은 지역의 창업생태계 및 창업분위기를 대표해 줄 상징적 지표가 될 것임
 - * 특히, 대덕특구지역은 KAIST 등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집중된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 연구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하고, 특구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이 활발하여 기업혁신 추진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네트워크 등 글로벌화 추진 미흡
- 더불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기업거래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 공급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구축하는 것도 적극 검토 필요
 - * '연구-특허-기술이전-창업-보육-투자-육성-해외진출-상장/유니콘-자회사' 등 '출연연·대학-벤처생태계-출연연·대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주기-글로벌-선순환' 산학협력 및 벤처생태계 구축

지역 주도형 투자펀드 조성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개선의 실질적 해법은 ‘지역 주도형 투자펀드’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지원을 통해 실현

- 정부주도 모태펀드와 민간 중소·벤처기업 투자생태계는 수도권에 성장지역 및 기술혁신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임

* 성장금융 자펀드 지역투자 현황('20.12.31 기준)에 따르면 투자금 119,736억원 중 서울(45.1%), 인천/경기(21.8%)로 수도권에 66.8%가 투자되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는 곳은 충북(3.5%), 대전(3.3%) 수준임

- 지역 주도형 투자펀드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조성 및 투자하는 펀드로, 지자체와 민간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수단임

* 스타트업 창업·투자 생태계를 민간에만 맡길 경우 민간 VC에 의한 투자는 고성장 지역 및 대부분 성숙도가 높은 기술혁신 기업에 집중

✓ 대전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지역전문 전략적 투자펀드 조성 필요

- 특히, 대전지역은 우수한 연구역량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및 기업성장애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기술-창업-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필요

- 대전 주도형 투자펀드 조성은 대전지역 기술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필수 수단임과 동시에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경제격차 완화를 실현코자 하는 국정 과제의 기초에 일치

✓ 이에 따라, 대전지역 대덕특구내 기술집약형(Deep-Tech) 스타트업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펀드를 조성

- 특히, 대전지역 시민이 기술집약형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함께 참여해 투자할 수 있는 시민 투자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시민과 글로벌 과학기술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 이를 위해 향후 단계적인 투자 로드맵을 구축하고, 펀드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한 바, 본 보고서를 제출드립니다

1-2 대전시 과학기술 사업화 현황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창업지원포함) 현황 및 성과분석

✓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현황

- 대전시비 투입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은 26개 사업*, 481억여원 (2020년 기준)

* 기타 노동부 사업 등 세부사업에 의한 산학연연계 사업은 제외

[대전시비 투입 산학연연계 사업 현황]

NO	사업명	참여기관	'20년예산 (백만원)
1. 산학연 연계 교육 활성화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원	- 주관부처: 교육부/한국연구재단	19,778
		- 수행기관: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대전과학기술대 등 7개 대학	871
2	IP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육성실)	200
		- 참여대학: 충남대, 한밭대, 대덕대	200
3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 수행기관: 한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173
			10
4	나노종합기술원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	- 수행기관: 나노종합기술원	185
		- 수행기관: 나노종합기술원	75
5	기능경기대회 지원	- 주최: 대전광역시	600
		-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6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 수행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400
			20
7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업단 운영	- 수행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70
		- 수행기관: 충청권역사업단	
8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 주관부처: 교육부	850
		- 수행기관: 충남대학교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한밭대, 건양대 참여)	100
9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 수행기관: 지역내 소재대학교	1,267
			2,414
10	꿈나무 과학멘토 시행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62

NO	사업명	참여기관	'20년예산 (백만원)
2. 지식·기술 창출 및 확산			
1	지역기업 R&D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수행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2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지원	- 주관부처: 과통부/한국연구재단 - 수행기관: 감염제어컨버전스연구센터/충남대학교	1,000 100
3	유망중소기업 글로벌 업 지원	- 수행기관: KAIST, 미국 텍사스대	- 1,000
4	이공계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 수행기관: 충남대학교 의학연구소	458 25
5	광학융합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 수행기관: 한밭대 (대전TP,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참여)	3,500 1,600
6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사업	- 수행기관: 대전대 (대전TP, 충남대병원 등 5개기관 참여)	3,000 1,900
7	스마트유전자약의 기반 기술플랫폼 구축사업	- 수행기관: 충남대 (대전TP 바이오융합센터 참여)	680 700
8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77 200
3. 창업친화적 환경 및 문화 구축			
1	대학(청년) 혁신창업 Start-up 타운조성·운영	- 수행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 700
2	출연(연) 연계 중소기업 R&BD 지원	- 수행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00
3	정부출연연 오픈 플랫폼 구축	- 수행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300
4	대전창업성장캠퍼스 조성·운영	- 운영사 (엑셀러레이터) 한국과학기술지주(주), (유)로우파트너스 (창업투자회사) 다담인베스트먼트(주), 서울소재 VC	495 1,300
4.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1	한의학임상인프라 구축지원	- 수행기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2015~2020.5(5년) 총사업비 25억원 2020년 예산없음	- -
2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 DISTEP 등 입주 *2018~2022(5년) 총사업비 624억원 2020년 예산없음	-
3	과학기술인 인재활용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1,700
4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기부 -수행기관: 한남대학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기부 -수행기관: 한남대학교	300 -
합 계			48,100

- (대전시 창업지원사업) 순수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투자하는 창업지원사업은 약 110억원 수준임(용자 및 투자 제외)

[대전시 창업지원사업 현황]

NO	사업명	지원대상/수행기관	예산 (백만원)
1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대상: 창업보육 센터입주기업 - 수행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60
2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 지원대상: 대전소재 고등학교 - 수행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미만 기업 - 수행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65
4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 지원대상: 39세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1년이내 기업 - 수행기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812.5
5	창업첫걸음, 생활혁신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39세미만 예비청년창업자 - 수행기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590
6	대전창업성장캠퍼스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대전소재 기술창업기업(7년이내)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1,795
7	대전창업성장캠퍼스 운영	- 지원대상: 21개 기업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1795
8	창업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수행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600
9	창업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사업	- 지원대상: 4차산업 기술관련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360
10	투자유치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 지원대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우수창업과제(End-Run 지원과제 중)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000
11	북부여성가족원, 여성창업 지원시설 운영	- 지원대상: 대전거주 여성예비창업자 - 수행기관: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	공간
12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인큐베이팅지원사업	- 지원대상: 대전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업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1,280
13	창업지원기반 조성사업	- 지원대상: 대전소재 나노, 바이오융합, IT융합관련기업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1,400

NO	사업명	지원대상/수행기관	예산 (백만원)
14	기술융합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39세 이하 (예비)소셜벤처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수행기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990
15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 지원대상: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수행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50
16	IP서비스기업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대전내 신규창업 또는 이전(예정)기업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250
17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지원 (융자지원)	- 지원대상: 관내소재 중소기업 - 수행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50,000
18	소셜벤처 투자펀드 운용 (투자지원)	- 지원대상: 소셜벤처기업 - 업무집행조합원: 다담인베스트먼트 - 수행기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4,500
19	초기창업 투자전문펀드 조성 (투자지원)	-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원 이하, 7년 이내 기업 - 수행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66,300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창업지원포함)
현황 및
성과분석

✓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성과분석

- (R&D투자를 통한 창업사업화 성과) 실제 R&D투자를 통해 창출된 2018년 창업/사업화 활동항목에서 대전은 0.311점(9위)으로 경기 1.958점(1위), 서울 1.327점(2위), 부산 0.482점(3위)으로 전국 평균은 0.439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산학연협력 기술사업화 주요 성과지표]

분석항목		주요내용
산학연협력 투입인력		대학 : 산학연협력 연계 인력 연구기관 :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민간투자	민간연구비수주실적	- 대학 : 민간연구비 수주실적 건수 및 금액 분석
기술적 성과	특허 성과	- 대학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 연구기관 : 연구기관 누적 보유 기술

분석항목		주요내용
경제적 성과	사업화 성과	- 대학 :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 연구기관 : 기술이전 계약 건수
	창업성과	- 대학 : 교원 및 학생 창업자 수,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수,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매출액,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자본금 - 연구기관 : 창업 건수,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 건수, 기술이전을 통해 설립된 창업기업 건수

※ 출처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9), "2018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 종합보고서" 수정,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창업지원포함)
현황 및
성과분석

- (산학연협력 투입인력)

-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 평균 인력은 2016년 11.0명, 2017년 10.3명, 2018년 10.1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의 비율이 2016년 78.7%, 2017년 80.2%, 2018년 90.5%로 증가(아래표 참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의 산학연계 인력의 경우, 2017년 44.8명, 2018년 54.1명, 2019년 54.0명으로 2017년 이후 산학연계 인력은 연평균 9.8%증가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 인력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사례수	23	278	23	273	23	275	
인력 수 (명)	합계	253	1,018	237	980	232	1,064
	평균	11.0	3.7	10.3	3.6	10.1	3.9
인력 구성 (%)	정규직	78.7%	64.0%	80.2%	67.9%	90.5%	71.4%
	비정규직	21.3%	36.0%	19.8%	32.1%	9.5%	28.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2018, 2019),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대학의 산학협력 연계 인력]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연구기획	26.7	707.8	3.77%	22.9	743.2	3.08%	40.4	776.2	5.20%	23.0%	4.7%	
연구관리	78.2	1,916.3	4.08%	58.3	1,911.3	3.05%	61.1	1,981.5	3.08%	-11.6%	1.7%	
산업체 연계	산학연계	44.8	1,024.4	4.37%	54.1	1,032.6	5.24%	54.0	934.9	5.78%	9.8%	-4.5%
	기술이전·사업화	21.7	430.7	5.04%	20.2	448.5	4.50%	25.0	477.0	5.24%	7.3%	5.2%
	창업보육	27.5	389.5	7.06%	21.4	326.7	6.55%	22.5	315.6	7.13%	-9.5%	-10.0%
기타	18.1	980.3	1.85%	69.1	1,073.7	6.44%	42.0	1,221.8	3.44%	52.3%	11.6%	
합계	217.0	5,449.0	3.98%	246.0	5,536.0	4.44%	245.0	5,707.0	4.29%	6.3%	2.3%	

※ 출처: 대학알리미사이트(2020)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창업지원포함) 현황 및 성과분석

- (특허 및 누적기술보유 성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內 대학의 국내특허 등록 건수는 2016년 1,030건에서 2018년 1,198건로 연평균 7.8% 증가하였으며, 해외특허 등록 건수는 2016년 135건에서 2018년 173건으로 연평균 13.2% 증가
- 출연(연)의 평균 누적기술보유건수는 2016년 5,693.0건에서 2018년 5,566.9건으로 연평균 1.1% 감소함으로써 출연(연)의 평균 누적기술보유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공공연구기관 전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국내	출원	1,720	19,620	8.77%	1,712	18,931	9.04%	1,682	19,052	8.83%	-1.1%	-1.5%
	등록	1,030	11,305	9.11%	1,174	13,087	8.97%	1,198	12,222	9.80%	7.8%	4.0%
해외	출원	363	3,522	10.31%	428	3,662	11.69%	423	4,055	10.43%	7.9%	7.3%
	등록	135	1,519	8.89%	165	1,532	10.77%	173	1,608	10.76%	13.2%	2.9%

※ 출처: 대학알리미사이트(2020),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출연(연)의 누적 보유기술 총건수 및 평균건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 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 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 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 체*
사례수	23	278	23	273	23	275	-	-
누적보유 기술건수	130,939	311,735	130,791	324,723	128,038	337,082	-	-
평균 누적보유 기술건수	5,693.0	1,121.3	5,686.6	1,189.5	5,566.9	1,225.8	-1.1%	4.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2018, 2019),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창업지원포함) 현황 및 성과분석

- (기술이전 성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는 2016년 267건에서 2018년 248건으로 연평균 3.6% 감소하였음.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6년 5,076백만원에서 2018년 5,076백만원으로 변화가 없었음
- 출연(연)의 기술양도(매매) 평균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18년 5.3건으로 연평균 21.9% 감소하였다. 출연(연)의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평균 건수는 2016년 20.5건에서 2018년 5.2건으로 연평균 49.6% 감소하였으며, 유상기술실시 평균 건수 또한 2016년 69.5건에서 2018년 52.4으로 연평균 13.2% 감소
- 출연연의 기술이전 평균 수입은 2016년 4,005백만원에서 2018년 4,051백만원으로 연평균 0.6% 증가하였으며, 계약건당 기술이전 금액은 보통 500백만원 이상이 대부분으로 차지함. 반면,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경우에는 무상이 가장 많았음

[대학의 기술이전 성과분석 결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건수	267	4,667	5.72%	211	4,274	4.94%	248	4,668	5.31%	-3.6%	0.0%
수입료 (백만원)	5,076	76,193	6.66%	5,124	77,238	6.63%	5,076	86,891	5.84%	0.0%	6.8%

※ 출처 : 대학알리미사이트(2020)

[출연(연)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 (계약유형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사례수	23	278	23	273	23	274	-	-	
기술양도 (매매)	총 건수	200	1,587	118	1,466	122	1,796	-	-
	평균 건수	8.7	5.7	5.1	5.4	5.3	6.6	-21.9%	7.6%
무상양도 (기술나눔 등)	총 건수	472	511	230	282	120	159	-	-
	평균 건수	20.5	1.8	10	1	5.2	0.6	-49.6%	-42.3%
유상 기술실시 (라이선스)	총 건수	1,598	5,385	1,395	4,905	1,206	5,158	-	-
	평균 건수	69.5	19.4	60.7	18	52.4	18.8	-13.2%	-1.6%
무상 기술실시 (라이선스)	총 건수	84	327	47	278	41	340	-	-
	평균 건수	3.7	1.2	2	1	1.8	1.2	-30.3%	0.0%
옵션계약	총 건수	0	1	0	0	0	0	-	-
	평균 건수	0	0	0	0	0	0	0.0%	0.0%
기타 (기술지도, 현물출자 등)	총 건수	95	226	127	546	108	652	-	-
	평균 건수	4.1	0.8	5.5	2	4.7	2.4	7.1%	73.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2018, 2019),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출연(연)의 총 기술이전 수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사례수	23	278	23	271	23	273	-	-
없음	0.0%	30.9%	0.0%	22.5%	0.0%	26.7%	-	-
50 백만원 미만	4.3%	21.2%	0.0%	25.1%	4.3%	22.0%	-	-
50~100 백만원 미만	0.0%	6.1%	0.0%	5.2%	0.0%	5.1%	-	-
100~500 백만원 미만	13.0%	17.6%	17.4%	21.0%	17.4%	22.0%	-	-
500백만원 이상	82.6%	24.1%	82.6%	26.2%	78.3%	24.2%	-	-
총 수입(백만원)	92,117	177,113	91,964	182,718	93,179	189,700	-	-
평균 수입(백만원)	4,005.1	637.1	3,998.4	674.2	4,051.3	694.9	0.6%	4.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2018, 2019),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창업지원포함)
현황 및
성과분석

- (연구자 창업 성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內 대학의 교원 창업자 수는 2016년 5명에서 2018년 23명으로 연평균 114.5% 증가하였고, 대학의 학생 창업자 수는 2017년 46명에서 2019년 111명으로 연평균 55.3% 증가하였으며,
- 출연(연)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자 및 기관이 직접 창업한 평균 창업건수는 2016년 1.7건에서 2018년 1.8건으로 연평균 2.9% 증가하였음
- 그리고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자 및 기관이 직접 창업한 후 현재까지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수는 2016년 평균 8.3건에서 2018년 11.8건으로 연평균 19.2% 증가하였음.

[대학의 교원 창업 성과 분석결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교원 창업 현황	창업자 수	5	204	2.45%	19	242	7.85%	23	253	9.09%	114.5%	11.4%	
	창업 기업수	교내	4	129	3.10%	13	173	7.51%	18	170	10.59%	112.1%	14.8%
		교외	1	55	1.82%	4	47	8.51%	5	65	7.69%	123.6%	8.7%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13	164	7.93%	15	209	7.18%	30	314	9.55%	51.9%	38.4%	
	창업기업 매출액 (백만원)	500	2,463	20.30%	198	4,606	4.29%	344	2,933	11.74%	-17.0%	9.1%	
창업기업 자본금 (백만원)	250	11,975	2.09%	738	7,175	10.29%	1,136	7,443	15.26%	113.1%	-21.2%		
교원 창업	교원 휴겸직 승인현황	19	369	5.15%	30	530	5.66%	42	582	7.22%	48.7%	25.6%	

※ 출처 : 대학알리미사이트(2020)에 기초하여 작성,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대학의 학생 창업 성과 분석 결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전국 대학 대비 대덕 특구내 대학의 비율	대덕 특구내 대학	전국 대학		
학생 창업 현황	창업자 수	46	1,100	4.18%	86	1,384	6.21%	111	1,460	7.60%	55.3%	15.2%	
	창업 기업 수	교내	11	316	3.48%	17	322	5.28%	30	296	10.14%	65.1%	-3.2%
		교외	29	666	4.35%	56	905	6.19%	67	1,007	6.65%	52.0%	23.0%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3	462	0.65%	15	449	3.34%	35	539	6.49%	241.6%	8.0%	
	창업기업 매출액 (백만원)	202	12,673	1.59%	685	15,031	4.56%	1,754	11,269	15.56%	195.0%	-5.7%	
	창업기업 자본금 (백만원)	593	5,819	10.19%	123	4,565	2.70%	195	4,015	4.86%	-42.6%	-16.9%	
학생 창업 지원 현황	전용 공간(㎡)	5,102	127,118	4.01%	7,183	132,617	5.42%	10,980	165,155	5.45%	46.7%	14.0%	
	지원액 (백만원)	교비	9,738	21,936	44.39%	11,535	31,096	37.09%	7,281	22,413	32.49%	-13.5%	1.1%
		정부 지원	14,595	89,129	16.37%	12,277	122,078	10.06%	11,282	126,213	8.94%	-12.1%	19.0%
	창업 전담 인력	교원 수	19	413	4.60%	34	463	7.34%	68	520	13.08%	89.2%	12.2%
		직원 수	70	865	8.09%	85	1,005	8.46%	106	1,011	10.48%	23.1%	8.1%

※ 출처 : 대학알리미사이트(2020)에 기초하여 작성,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출연(연) 창업 성과 분석결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출연(연)	전 체	
사례수	23	278	23	273	23	270	-	-	
창업 총건 수	44	266	45	365	41	287	-	-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	총 창업건 수	39	225	40	299	41	259	-	-
	평균 창업 건수	1.7	0.8	1.7	1.1	1.8	1.0	2.9%	11.8%
기술이전 (양도)을 통해 설립된 기업	총 창업 건수	5	41	5	66	0	28	-	-
	평균 창업 건수	0.2	0.1	0.2	0.2	0	0.1	-100.0%	0.0%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2018, 2019),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출연(연) 창업기업 중 현재 사업활동 중 기업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출연(연)	전체**	출연(연)	전체	출연(연)	전체	출연(연)	전체
사례수			23	278	23	273	23	270	-	-
사업활동 중인 기업* 총건수			203	795	254	1,415	279	1,398	-	-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	사업 중인 기업건수	총건수	191	730	236	1,179	271	1,268	-	-
		평균	8.3	2.6	10.3	4.3	11.8	4.7	19.2%	34.5%
기술이전 (양도)을 통해 설립된 기업	사업 중인 기업건수	총건수	12	65	18	236	8	130	-	-
		평균	0.5	0.2	0.8	0.9	0.3	0.5	-22.5%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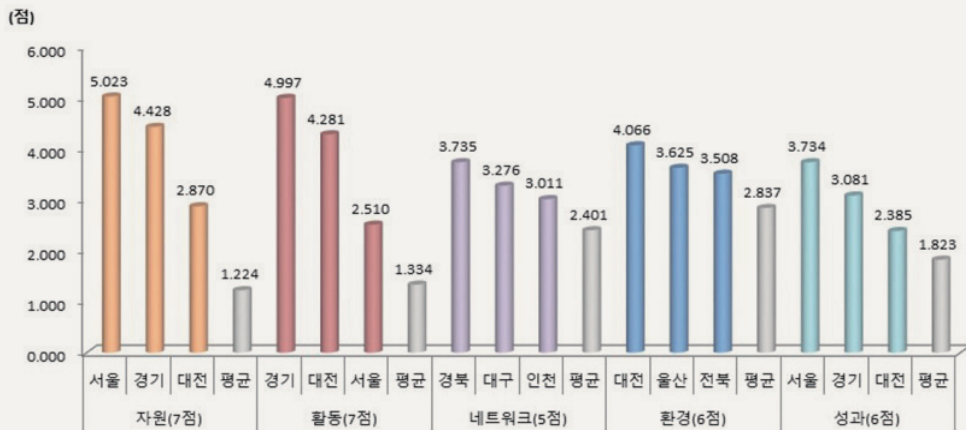
* 전체 창업기업 중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기업 수를 의미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2018, 2019),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결과보고서(2020)

대전지역 산학연 연계 출연사업 (창업지원포함) 현황 및 성과분석





- 2019년 R-COSTII 종합지수의 평균은 전년 대비 상승(0.516점)한 9.620점
- 경기도는 2019년 R-COSTII 종합지수 17.964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이후 5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
- 서울과 대전, 경북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 2위, 3위, 4위를 차지(세종은 17위 차지, 전년 13위에서 4단계 하락)



* 출처 : 2019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평가 보고서(KISTEP)

대전지역
창업사업화
생태계의
SWOT 분석

✓ 대전지역 창업사업화 생태계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혁신기관 밀집(출연(연) 26, 교육기관 7, 정부와 공공기관 27, 비영리기관 26, 기업 1,948) • 국가 우수인재 상주, 다수의 특허출원(과학기술 인력 75,145명 / 연구기술직 35,521명(박사 15,502명), 생산관리 39,624명, 특허 208,394개) •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네트워크 및 해외 인재 유치·활용·양성 노하우 축적 • 대덕 이외 연구개발특구 허브, 과학벨트 거점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42개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파크 / 혁신파크 / 팁스타운 등 조성 중) • 과학도시 이미지, 과학문화 향유기반 상당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공급적 관점의 프로젝트별 성과창출 몰두로 출연(연)과 지역기업 간 공급-수요 미스매칭 • 기술간 융합, 협력모델 발굴 등 과제외 사업 예산 및 인력구조 취약 • 출연(연) 간 정보공유, 소통, 상호 융합기반 취약 • 국내·외 공동연구, 인력교류, 조직 교류,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상호 연계성 부족 • 지역혁신과 연계된 혁신주체들 간 역할과 연결이 불분명한 다층적, 분산적 구조 • 해외인재의 과제단위 분산형 국제협력(아웃 바운드)으로 지역혁신활용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포용적 혁신성장으로의 정부정책 전환 (정부의 대덕특구, 과학벨트를 지역기반 혁신과 연결, 신성장 혁신동력화 의지 확대 및 과기부 혁신분부를 출연(연) 상위부처로 변경공약 등, 지역활용 제도적 기반 형성 기회)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연구소기업을 국가혁신과 지역경제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성장전략을 마련(제17차 일자리 위원회, '20.10.28) • 출연(연) 국제협력 수요증가로 지역 정주 여건, 외국인 체류서비스등 수요증가 • 대덕특구와 지방산단 교통의 요충지 • 대전거주 은퇴 고경력과학기술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은 국가중심, 분야별 기술개발, PBS 기반 중심 각자도생 문화 Lock-in • 대전 과거위, 혁신전략 거버넌스간 상호연계 취약 • 시 출연기관 분산운영 및 과학기술연결 고리 취약 • 연구개발특구 전국 확대, 오송/오창/천안 등 발전으로 대전의 과학기술 독점지위 위협 • 지역혁신 연결위한 장시간 제도혁신과 과학문화 혁신 노력 필요 • 선진국은 원천기술차단, 개도국은 일방적지원 익숙으로 상호이익 기반 국제협력 장애
 기회 Opportunity	 위험 Threat

※ 출처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전략 및 운영계획(2020.5, 수정)

제2장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기술창업·금융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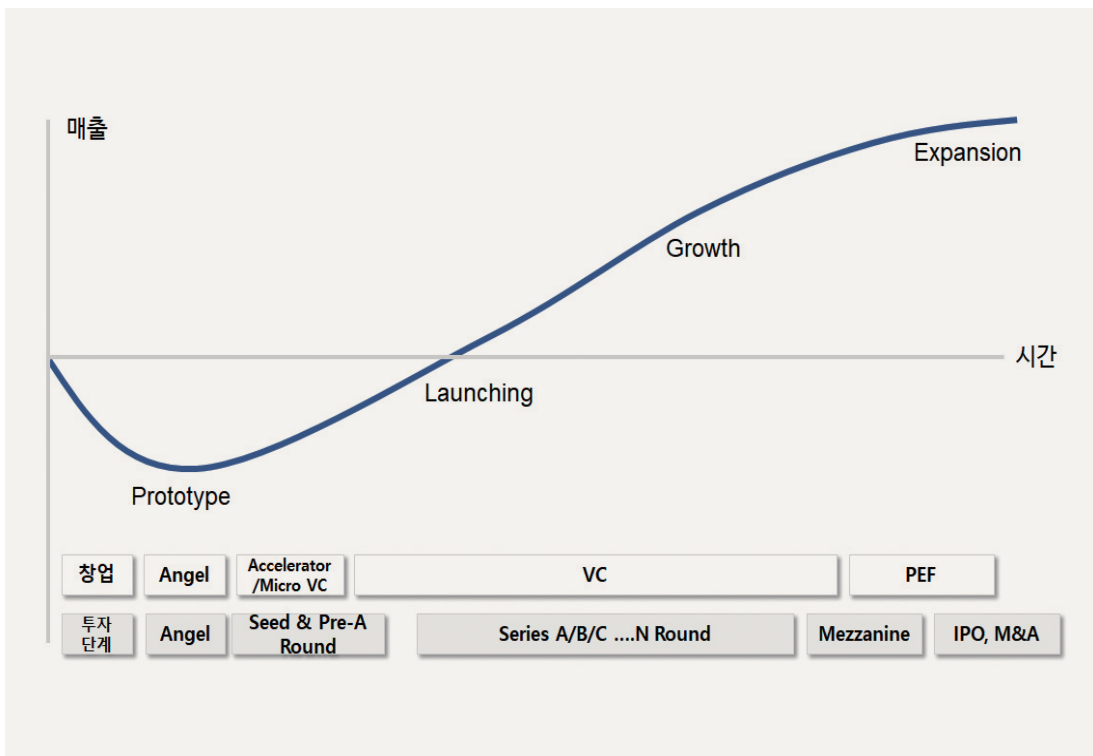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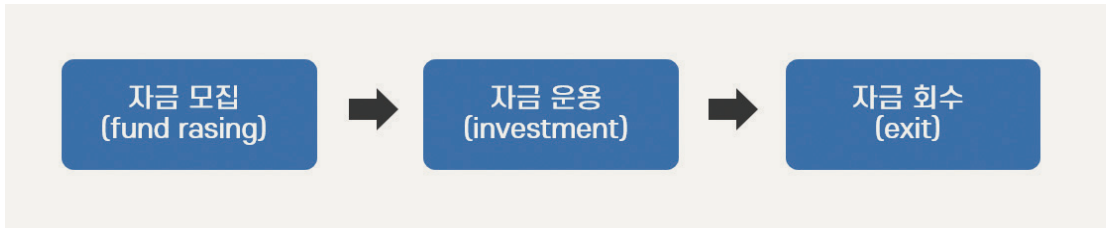
- 2.1 투자조합(펀드)의 이해
- 2.2 국내 벤처투자조합 현황 분석
- 2.3 국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분석

2-1 투자조합(펀드)의 이해

- ✓ (투자조합 조성 과정) 벤처, 스타트업은 창업 후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조달의 니즈 및 규모가 다르며, 각기 차등적인 수요에 따라 필요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 창업 후 초기단계에는 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Accelerator), 초기벤처캐피탈(Micro VC) 등으로부터 제품의 개발 또는 시험 등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며,
 - 시리즈 A, B단계에서는 제품의 추가개발 또는 출시, 시장개발 및 진입 등을 위한 투자자금을 본격적으로 전문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조달
 - 시리즈 C 등 시장에 진입하고 제품시장 확대 또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성장 단계에서는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캐피탈 또는 사모펀드(PE), 구조조정펀드(CRC)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출연(연) 창업 성과 분석결과]





- ✓ (투자조합 유형) 투자조합은 결성 목적 및 주목적 투자 대상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 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구분
 - 이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적용되는 법령, 관할기관, 투자대상, 설립요건 및 기타 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모두 큰 차이가 상존

[주요 투자조합 유형별 조성주체 및 관련 법률 구분]

구분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PEF
관련근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조합형태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상 합자회사
운용주체 (단독GP)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개인,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외), 기술지주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법인
설립요건	출자금(20억원 이상) LP수(49인 이하) GP 최소 출자비율(1%) 공동 GP가능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출자금(1억원 이상) LP수(49인 이하) LP최소출자금액 100만원 이상 GP 최소 출자비율(5%)	LP수(49인 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 GP가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	LP수(49인 이하) LP최소출자금액 (GP임원 또는 운용인력 1억원 그 외 3억원)
등록절차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없음	금융위원회 등록
존속기간	5년 이상	5년 이상	없음	15년 이내
투자대상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견기업 투자가능)	창업자, 벤처기업 (3년내 50% 이상)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 영위 중소기업/중견기업/비거주자	제한 없음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
등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2020년 2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KVF)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기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

일반	설립근거	• 벤처투자촉진법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설립요건	•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 10억원 이상)
		• 출자 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 49인 이하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
		• 존속기간이 5년 이상
운용	GP	•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
투자 제한	주목적 투자의무	• 동일한 GP가 운영하는 총 운용자산(자본금+조합1+조합2)의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40%) 이상을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
	해외투자	주목적투자의무 외 가능
	중견기업 투자	주목적투자의무 외 가능
	상장기업 투자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100분의 20 이내
	투자업종 제한	사행산업, 미풍 양속 저해 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투자 금지
	행위 제한	•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사용 금지
		•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금지
		•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또는 취득 금지
		• 금융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지분 소유금지
• 벤처투자조합과 거래가 제한되는 대상 규정		
• * (거래제한 대상) ①업무집행조합원 ②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③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④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⑤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단 조합이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SPC) 제외		
• 동일 펀드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간 거래 금지, 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받는 행위 금지 등		
모태펀드 출자의무	모태조합 출자 없이 펀드결성 가능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자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함

일반	설립근거	• 벤처투자촉진법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설립요건	•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 출자1좌의 금액인 100만원 이상
		•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
		• 존속기간 5년 이상
운용	GP	• 개인,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 혁신센터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투자제한	주목적 투자 의무	• 등록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0%)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함 •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위 조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함
	해외투자	주목적투자 의무 외 가능
	중견기업 투자	주목적투자 의무 외 가능
	상장기업 투자	출자금액의 10% 이내
투자제한	투자업종 제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투자 금지
	행위 제한	•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사용 금지 •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금지 •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또는 취득 금지 • 금융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지분 소유금지 • 금융회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해당 GP, 해당 GP의 특수관계인, 해당 GP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해당 GP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주식(지분)을 매입하는 행위, 신용공여 행위 등
비고		•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에게 멘토링을 제공, 보육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VC, 창투사와 구별됨. • 벤처투자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액셀러레이터들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벤처투자법상 초기창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이 높아, 창투사와 비교시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해당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 고 **개인투자조합 결성 추이 및 제도 변화**

(단위 : 개,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Q
								1Q	
결성 조합 수	신규	103	130	174	302	336	485	76	156
	운용	89	211	379	664	980	1,439	1,051	1,591
결성액 (약정)	신규	693	725	911	2,034	2,828	3,244	455	969
	운용	446	1,132	2,011	3,952	6,566	9,661	6,943	10,623

*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8.1.1. 시행) : (100% 공제액) 1.5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공제율) 1.5~5천만원 이하 50% → 3~5천만원 이하 70%까지

** 조합 관련 제도 개편(벤처투자법 '20.8.12. 시행) : (일반조합 투자) 창업·벤처기업에 전액 투자 → 50% 이상 (창업기회자 결성조합 투자) 초기창
업자에 자본금+조합 출자액 50% 이상 → 자본금, 조합 출자액 각각 계산(자본금 40% 이상, 출자 조합 50% 이상)

3

**‘여성전문
금융업법’
제44조 등에
따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조합을 의미함**
 - *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과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경영 및 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자금의 관리·운영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44조 등에
따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과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의 20% 이하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음
 -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음

일반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등록	설립요건	• 유한책임조합원 2인 이상
운용	GP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제한	주목적 투자 의무	• 별도 규정 없음. 단, 신기술사업자 및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거주자에 대한 투자만 가능
	해외투자	가능
	중견기업 투자	가능
	상장기업 투자	가능
	투자업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신기술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등) 투자 금지 • 단,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투자 가능
	행위 제한	•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금융업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경우 외에 제한되므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사료.
모태펀드 출자 의무	모태조합 출자 없이 펀드결성 가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
제1호 등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PEF)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함

*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산정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하되, 사원의 총수는 49인 이하인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

-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er)은 PEF 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PEF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짐. 상법상 회사만이 PEF의 GP가 될 수 있음

PEF의 GP 등록여건

- (자기자본) 등록신청일 기준 1억원 이상
- (운용인력) 2인 이상
-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해상충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출 것
-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기관인 경우만 해당)
- (사회적 신용요건)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사실이 없을 것.(다만, 법 제448조, 그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
제1호 등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PEF)

-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er)은 전문투자자로서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로 PEF 책임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업무집행사원(EP, Executive Parter)은 GP중 1인 이상을 운용자로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 금융기관의 경우 EP가 될 수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PEF)의 한 종류로서 창업·벤처전문 PEF**

- 기존의 경영참여형 PEF는 경영권 인수 또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투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영이 의무화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말함
- (투자대상) 창업·벤처전문 PEF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함.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투자대상에 해당

창업·벤처전문 PEF의 투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2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또는 동법 제15조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화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5

한국벤처투자가
결성,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
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투자조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한국벤처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와 상호 출자하여 조합 등*에 출자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모태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

-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벤처투자,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

2-2 국내 벤처투자조합 현황 분석

- ✓ (출자자 현황)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자는 정책금융 출자자와 민간부문 출자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 중으로 '21년도 1분기 동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

- 정책금융-민간출자 세부 구성별 출자현황: 제2벤처 열기 속에서 1분기 투자, 결성 모두 1조원 이상 돌파
- '21년 1분기 펀드결성에 대한 출자자 현황은 정책금융 출자 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약 231.0% 늘어난 4,650억원, 민간 출자 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약 169.8% 늘어난 9,911억원인 것으로 집계

구분	세부내용
정책금융 출자 4,650억원 (전년동기 대비 +231.0%, +3,24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출자가 2020년, 작년 1분기 대비 1,470억원이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 • 이외 산업은행, 정부기금 등이 포함된 기타정책기관은 990억원, 성장금융은 785억원 가량 출자가 늘면서 1분기부터 공공영역에서의 출자가 활발한 것으로 집계
민간부문 출자 9,911억원 (전년동기 대비 +169.8%, +6,23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연금/공제회, 벤처캐피탈(VC), 법인 등의 출자가 전년동기 대비 약 1,000억원 이상 크게 늘었고 재작년 대비 대폭 감소했던 개인 출자도 약 700억원 이상 크게 증가 • 법인 출자'를 살펴보면, 작년 1분기에는 '19년 동분기 대비 약 1,000억원 가까이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는 약 1,152억원 가량 크게 증가

* 법인 출자 상위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

- ✓ 모태펀드 결성현황: '21년 1분기는 53개 펀드가 1조 4,561억원을 결성한 것으로 집계

- 이는 작년 1분기 펀드결성 실적보다 약 186.7% 이상 늘어난 수치로 결성금액과 결성조합 수 모두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

['17 ~ '21년 1분기 펀드결성 현황 (단위 : 억원, %, 개)]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분기	결성금액	6,701	10,494	6,605	5,078	14,561	
	전년 대비	증감	-	+3,793	△3,889	△1,527	+9,483
		증감률	-	+56.6	△37.1	△23.1	+186.7
	결성펀드 수	24	26	34	20	53	
	펀드당 결성금액	279.2	403.6	194.3	253.9	274.7	

- 이는 2020년, 작년 10월 모태펀드 자펀드로 선정(선정 후 펀드결성까지 3~6개월 소요)된 펀드들에 약 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이뤄지면서 1월에만 1조원대 이상의 펀드가 결성된 것으로 파악됨

[’20년, ’21년 1~3월 신규 펀드결성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년	’21년	증감	
			증감	증감률
1월	1,809	10,468	+8,659	+478.7
2월	549	2,287	+1,738	+316.6
3월	2,720	1,806	△914	△33.6
합 계	5,078	14,561	+9,483	+186.7

- 최근에 개인들도 벤처투자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인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벤처펀드에도 많이 유입된 걸로 확인

[정책금융/민간 출자 : ’19년, ’20년, ’21년 1분기 현황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19년 1분기	’20년 1분기	’21년 1분기	증 감	증감률	
정책 금융	모태펀드	1,730	900	2,370	+1,470	+163.3	
	기타정책기관	85	190	1,180	+990	+521.1	
	성장금융	175	315	1,100	+785	+249.2	
	소 계	1,990	1,405	4,650	+3,245	+231.0	
민간	연금/공제회	-	950	2,320	+1,370	+144.2	
	VC	556	627	1,993	+1,366	+217.9	
	금융기관 (산은 제외)	은행	140	40	550	+510	+1,275.0
		보험	20	-	245	+245	순증
		증권	30	25	115	+90	+360.0
		기타금융	370	245	930	+685	+279.6
		560	310	1,840	+1,530	+493.5	
	개인	1,566	450	1,239	+789	+175.3	
	기타 (기타단체, 외국인)	135	536	567	+31	+5.8	
	법인	1,798	800	1,952	+1,152	+144.0	
	소 계	4,615	3,673	9,911	+6,238	+169.8	
합 계	6,605	5,078	14,561	+9,483	+186.7		

- 아울러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7조 75억 원이며, 20조 4,174억 원의 외부 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9조 8,931억 원 규모, 총 917개의 출자펀드를 결성한 것으로 파악됨
-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691개, 23조 9,876억 원 규모로서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917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7,804개사*에 총 23조 1,227억 원의 투자가 집행

* 전체 투자 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포함

[모태펀드 운용 현황(한국벤처투자, 2021)]



- (2021년 1분기 모태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1년 4~6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6개, 3,276억 원 규모로 이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스마트SF-WE언택트펀드 2호(GP:위벤처스)'로 315억 규모

[2021년 2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한국벤처투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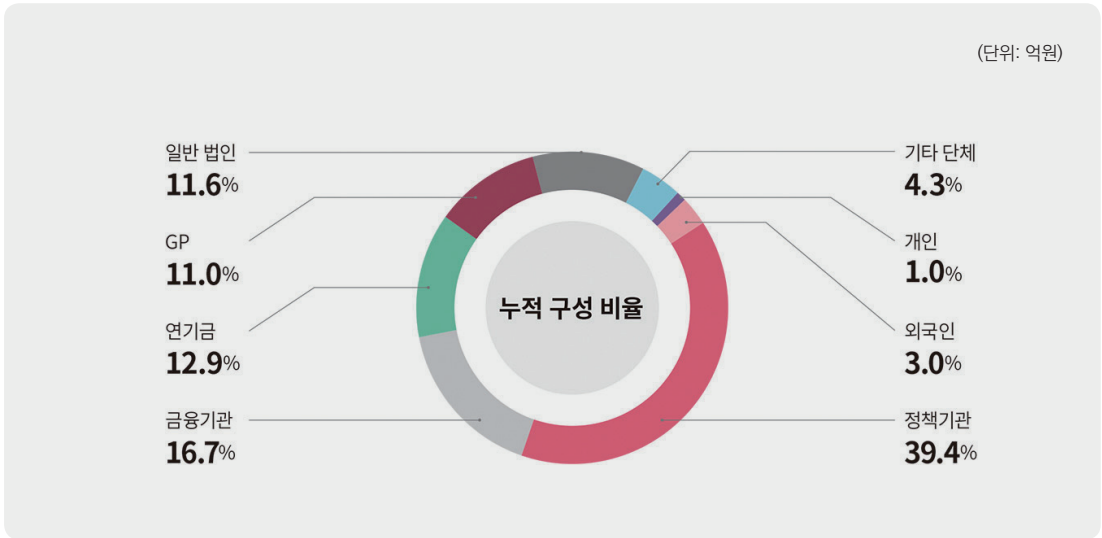
(단위: 억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헬스케어MIP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메이플투자파트너스	205	80	4.12
중진	버팀목	2021토니브릿지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토니인베스트먼트	200	120	4.2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에스케이티인피니툼게임펀드	벤처투자조합	인피니툼파트너스	137	50	5.1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비엔케이 스마트 비대면 펀드	벤처투자조합	비엔케이벤처투자	200	80	6.15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롯데비대면·모빌리티펀드	벤처투자조합	롯데벤처스	172	60	6.23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SF-WE언택트W트펀드2호	벤처투자조합	위벤처스	315	100	6.25
중진	일자리매칭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 2호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205	200	6.25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크리스탈 비대면 펀드 1호	벤처투자조합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125	50	6.25
혁신모형	창업초기 일반	아주 좋은 창업초기 펀드	벤처투자조합	아주아이비투자	145	75	6.21
혁신모형	창업초기	퓨처플레이혁신솔루션펀드	벤처투자조합	퓨처플레이	230	50	6.22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엘앤에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엘앤에스벤처캐피탈	300	180	6.11
과기정통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케이앤 디지털미디어콘텐츠1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앤투자파트너스	260	161	5.4
도시재생	도시재생	씨씨브이씨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	벤처투자조합	콜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250	200	5.28
국토교통혁신	공유주택	어니스트 밀레니얼 주거혁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어니스트벤처스	125	100	4.6
특허	IP직접투자	IDIP투자제1호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200	118	6.9
특허	IP직접투자	IDIP투자제2호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207	122	6.9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1조 7,705억 원 (39.4%)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5조 38억 원(16.7%), 연기금 3조 8,576억 원(12.9%) 순

* 2021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에도 정책기관 다음으로, 금융기관(2,432억 원), 연기금(2,150억 원) 순으로 집계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한국벤처투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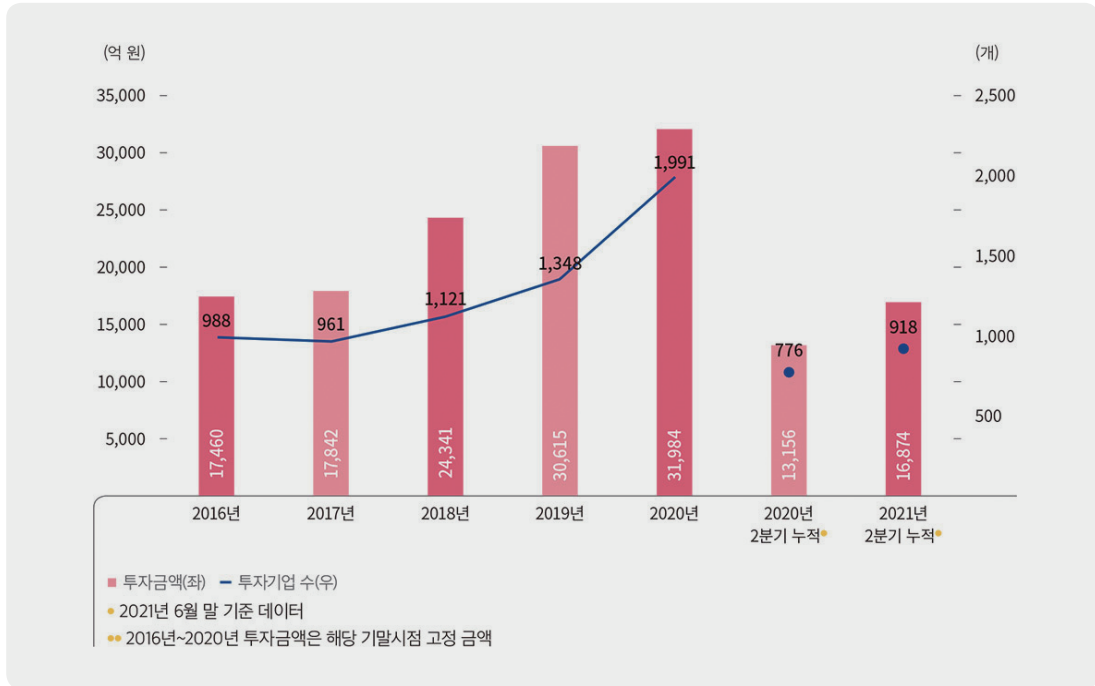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021.06	5,552	2,432	2,150	1,467	2,148	436	117	0	14,302
누적	117,705	50,038	38,576	32,849	34,532	12,916	2,984	9,034	298,931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1년 2분기 내 332개 모태 출자펀드가 918개 기업에 총 1조 6,87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8.3%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18.3% 증가

[최근 5년간 및 2021년 2분기 누적 투자 추이(한국벤처투자, 2021)]



✓ (대형투자) '21년 1분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총 23개사로 확인

*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기업 수 23개 → 역대 최대

['21년 1분기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기업 수 및 주요 사례]

(사례 1) 트렌비 : '21년 1분기 투자 238억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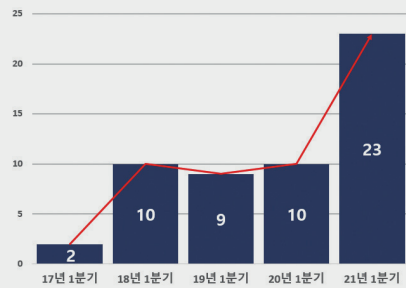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종에 해당하는 해외 명품 직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 '21년 1분기 약 238억원 투자 유치

(사례 2) 스탠다임 : '21년 1분기 투자 227억원 유치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신약물질을 발견하는 AI 기술 플랫폼 개발 업체로, '21년 1분기 약 227억원 유치

(사례 3) C사 : '21년 1분기 투자 196억원 유치

☞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바일 법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 '21년 1분기에 약 196억원 투자 유치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수(개사))

2-3 국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분석

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사례

- ✓ 해외 '혁신성적표' 지표로 통용되는 유니콘 기업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거듭 갱신하는 중으로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의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 중
 - 올해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291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단 1개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

[유니콘 배출 세계5강국 현황]

산업 별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이스라엘
유니콘 보유순위 (21. 8. 3. 현재)	10위 (11개)	1위 (388개)	2위 (157개)	3위 (36개)	4위 (31개)	5위 (18개)
'21년 1~7월 신규 유니콘 출현	1개	169개	26개	12개	7개	12개

※ 자료 : CB Insights(2021.8.3 기준)

[유니콘 TOP5 산업별 국가 점유율(%)]

유니콘 산업분야 TOP5	점유국					한국
	1위	2위	3위	4위	한국	
1위 핀테크	미국(51.0%)	영국(10.5%)	인도(7.0%)	중국(5.6%)	0.7%(공동 16위)	
2위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미국(73.2%)	중국(8.7%)	인도(3.1%)	호주(3.1%)	無	
3위 전자상거래	중국(35.3%)	미국(29.4%)	인도(9.4%)	프랑스(7.1%)	24%(공동 6위)	
4위 AI	미국(45.3%)	중국(26.6%)	영국(6.3%)	이스라엘(6.3%)	無	
5위 헬스	미국(69.1%)	중국(14.5%)	영국(3.6%)	이스라엘(6.3%)	1.8%(공동 4위)	

※ 자료 : CB Insights(2021.8.3 기준)

[대형투자(1억\$ 이상) 유치 현황(2018~2020)]

	글로벌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이스라엘	한국
투자 건수(건)	1,476	709	439	65	44	12	14
투자 금액(십억 달러)	372.72	148.17	148.25	15.57	10.04	1.46	4.26
글로벌 비중(%)		39.8%	39.8%	4.2%	2.7%	0.4%	1.1%

*자료: CB Insights

[투자단계별 유치 현황(2018~2020)]



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사례

-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회수되는 엑시트는 유니콘 강국의 경우 인수합병 (M&A:82.8%)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한국은 M&A 비중이 52.9%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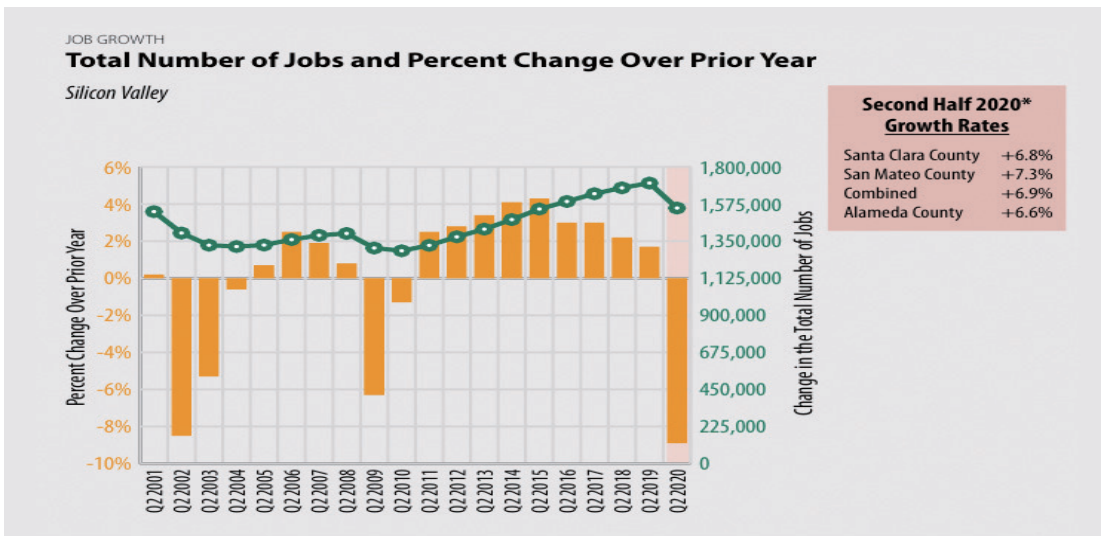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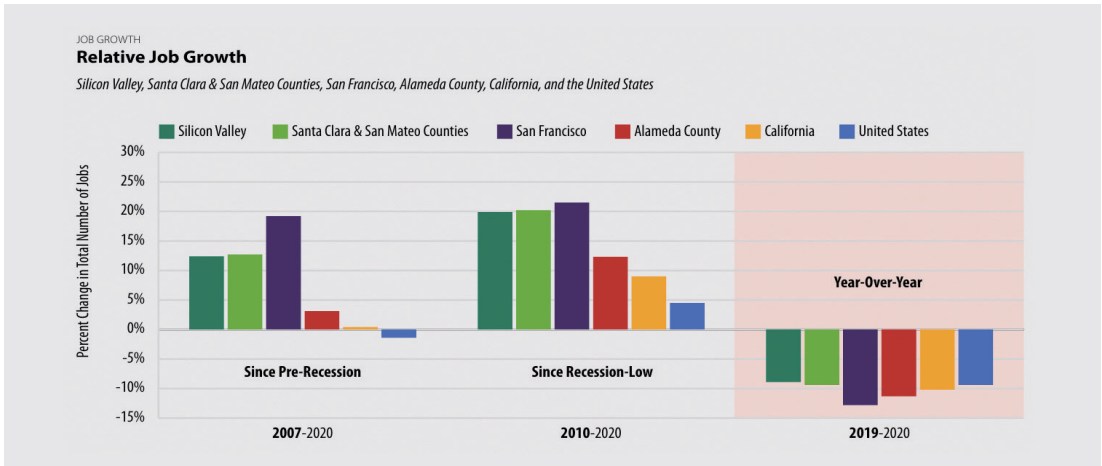
[스타트업 엑시트 현황(2018~2020)]



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사례

- 글로벌 혁신 허브인 실리콘밸리는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며 높은 일자리 증가율을 기록 중이며, 타 지역 比 Covid-19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집계

[미국 지역별 고용증가율 현황, 2021 실리콘밸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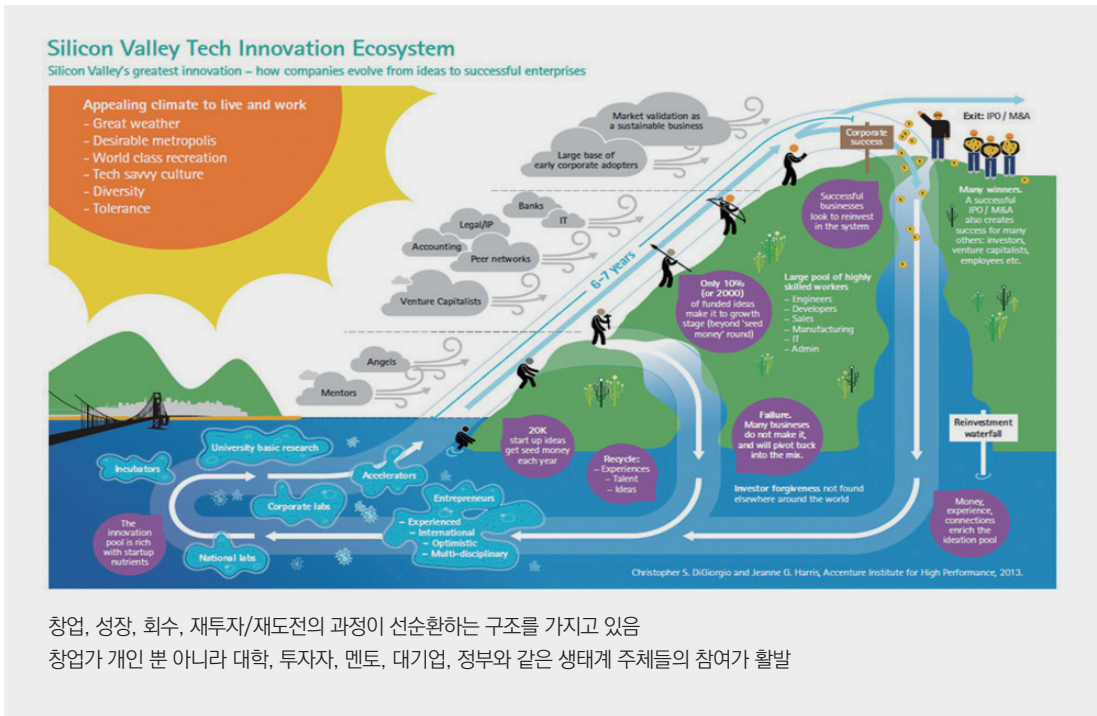
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사례

- 동 지역의 특허등록 건수는 2016년 기준 19,386건으로 미국 전체 특허건수 대비 실리콘밸리의 특허건수 비중은 1993년 6.3%였으나, 2016년에는 13.5%로 증가
 - 이는 정부의 큰 지원이나 간섭 없이도 '시장신호'에 따라 사업확장을 벌이는 실리콘밸리의 혁신 창업 생태계에 기인
- 투자자 또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찾아 동 지역에 모여들고 있음
 - 2017년 실리콘밸리의 VC 투자액은 249억불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38.9%, 캘리포니아주의 78.3%에 해당하는 수치
 -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는 Covid-19를 기회로 비대면 언택트 기업들과 메타버스, 바이오 기업 등의 산실로 투자의 승수효과를 누리는 중
 - 다수의 해외 인재들을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 사업모델 발굴 기회가 풍부

✓대한 상공회의소는 2018년 실리콘밸리의 핵심생태계 동인을 분석하기 위해 동 지역 창업자 8명을 인터뷰하여 혁신메카로서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

강력한 사업 네트워크	• 기업가정신을 가진 다수의 혁신 인재들이 밀집한 곳으로서 투자자들과 다양한 직무군의 혁신가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
탄탄한 투자 생태계	•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다수가 베이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기업운영에 있어서 자금 확보가 유리하며, 특히 대부분 멘토와 조언자들이 엔젤투자자로서 활동 중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	• 최첨단 기술 사업은 성공 보상이 크나 실패확률이 높은 만큼,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고 실패를 처벌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창업 친화적 대학	• 기업 자체가 교원들과의 연구 협업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회사가 설립된 경우가 다수이며, 교내 인큐베이팅, 기관간 장비 등 공유 연계체계가 타 지역대비 활성화 되어 있음
업무 수행의 자율성	• 타 국가, 심지어 자국내 타 지역대비 시간과 돈을 활용하는데 있어 자율권(휴직제도 등)이 보장되어 있어 부수적으로 스타트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최전선의 최신 기술	• 세계 최고의 기술과 연구개발 활동이 왕성한 곳으로서 다수의 다학제간 연구분야의 연구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협업을 통한 기술창업이 용이함
유연하고 혁신적인 인재 풀	• 엔지니어 뿐 아니라 사업자금확보, 마케팅, 판매, 디자인 등 전 분야의 고경력 전문가들이 준비하여 학문적 연구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교두보 역할에 있어 인재가 다수
모든 것을 갖춘 혁신 생태계	• 기술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생태계를 갖춘 곳으로서 위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발전 중

[실리콘밸리의 창업생태계 사례]



해외 벤처투자 생태계 특징 분석

✓ STEPI에서 다양한 창업생태계 관련 지표를 표준화, 통합하여 마련한 복합지표(9대 부문)를 기반으로 분석한 국가별 창업생태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벤처투자 생태계 특징을 조사

※ 출처: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연구, (아산나눔재단, STEPI, 2021.)

- (미국) 일반 대중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준비 수준이 높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창업저변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이 강점
 - 도전정신, 창의성, 위험감수 등에서의 높은 기업가적 지향성(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1위, 71.4점)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기회 및 역량인식 수준이 높게 형성
 - 창업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이 우수하여 일반 대중의 창업에 대한 이질감이 거의 없으며, 창업활동에 매우 적극적
 - * 재창업 및 연쇄창업 비중 - 17.55%, 1위
 - 기회형·혁신형 창업 비중(6.83배, 1위)이 높고, 독창적인 사업모델, 높은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 점유를 바탕으로 테크스케일업/유니콘(22,910개, 1위)·데카콘기업 성공을 주도
 - 일반 대중에게 높은 창업지원 환경의 보편성 및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인 자금, 기술 및 지식, 교육 및 인력, 지원조직 및 인프라 등 창업 지원생태계에 강점을 보유
 - * 엑셀러레이터/코워킹스페이스 = 666개(1위)/3,752개(1위)
 - 특히, 벤처캐피털 투자는 138.1B\$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전세계 1위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VC 회수 금액 중 M&A 비중 또한 37%, 257.4B\$를 기록하여 창업-투자-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보유

[미국의 창업생태계 부문별 핵심성과]

<p>기업가 / 창업</p> <p>기업가정신: 71.4점 창업기업 수: 523,094개 창업률(기업/인구): 7.8%/0.17% 생계형 대비회형 창업배율: 6.83</p>	<p>기업</p> <p>생존율(1/5년): 79.1%/50.6% 창업기업 고용비중: 3.53% 테크스케일업: 22,910개 유니콘기업 수: 251개</p>	<p>자금</p> <p>벤처캐피탈 투자: 1,381억 달러 엔젤 투자: 28억 달러 대체금융: 611억 달러 EXIT(M&A 비중): 37%</p>
<p>지원조직/인프라</p> <p>엑셀러레이터: 666개 인큐베이터: 1,400개 코워킹스페이스: 3,762개 사업적/법적 인프라: 5.53점</p>	<p>기술/지식</p> <p>인구 백만명 당 특허 수: 144.0건 GDP 대비 R&D 투자: 2.7% 4차 산업혁명 PCT 특허: 37,343건 기술이전 창업률: 11.44%</p>	<p>교육/인력</p> <p>학령기 교육 수준: 3.93점 학령기 이후 교육 수준: 5.19점 인력 숙련도: 75.8점 노동시장 유연성: 75.9점</p>
<p>문화/인식</p> <p>실패 두려움: 29% 위험추구 성향: 5.70점 사회 및 문화 규범: 7.04점 경력/지위인식: 63.2%/76.2%</p>	<p>정책/규제</p> <p>정부 지원 정책 적절성: 4.15점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4.33점 민간 자금조달 비중: 75.4% 사업시작 용이성: 91.35점</p>	<p>글로벌화</p> <p>해외시장 진출 비중: 9.5% 무역/금융 세계화: 56.4점/78.0점 외국인/이민자 창업비중: 14.2% 창업비자 프로그램 수준: 45점</p>

해외 벤처투자 생태계 특징 분석

- (중국) 대중의 높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창업교육의 활성화로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보유
 - 전연령층의 기업가정신 교육(교육 경험률-1위)이 활성화되어 있고 창업가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어 있어 창업활동의 대중성이 높음
 - * 기업가 정신 - 71.1점(2위), 창업률(활동기업 수/인구 수 대비) - 19.6%(1위) / 1.53%(2위)
 - 벤처·엔젤 투자 및 대체금융 등 우호적인 자금환경과 높은 시장잠재력을 기반으로 테크스케일업 기업(9,935개, 2위), 유니콘(120개, 2위) 및 데카콘기업(8개, 2위) 다수 탄생
 - * 해외 투자자 유치, 내부 투자 시장 성장으로 VC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엔젤투자(2.2B\$, 2위) 및 P2P 금융/클라우드 펀딩 등(215.4B\$, 1위)의 대체금융 규모가 압도적
 - * 미국 다음으로 테크스케일업 및 유니콘기업 수가 많으며, 특히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데카콘기업 수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역량에 있어서 미국, 일본 등 선 진국을 추월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글로벌 창업생태계 선도
 - * 시청각 기술, 컴퓨터 기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테마인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역량에 강점을 보유
 -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PCT 특허 수 - 41,508개(1위), 특히 시청각, 컴퓨터,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반도체 4개 분야는 1위를 수성

[중국의 창업생태계 부문별 핵심성과]

<p>기업가 / 창업</p> <p>기업가정신: 71.1점 창업기업 수: 23,609,000개 창업률(기업/인구): 19.6%/1.53% 생계형 대비회회형 창업배율: 1.13</p>	<p>기업</p> <p>생존율(1년): 69.7% 테크스케일업: 9,935개 유니콘기업 수: 120개</p>	<p>자금</p> <p>벤처캐피탈 투자: 243억 달러 엔젤 투자: 22억 달러 대체금융: 2,154억 달러</p>
<p>자원조직/인프라</p> <p>인큐베이터: 4,849개 코워킹스페이스: 304개 사업적/법적 인프라: 4.65점</p>	<p>기술/지식</p> <p>인구 백만명 당 특허 수: 14.5건 GDP 대비 R&D 투자: 2.1% 4차 산업혁명 PCT 특허: 41,508건 연구개발 이전 수준: 4.58%</p>	<p>교육/인력</p> <p>학령기 교육 수준: 3.63점 학령기 이후 교육 수준: 5.31점 인력 숙련도: 59.4점 노동시장 유연성: 58.1점</p>
<p>문화/인식</p> <p>실패 두려움: 37% 위험추구 성향: 4.50점 사회 및 문화 규범: 5.90점 경력/지위인식: 65.8%/73.7%</p>	<p>정책/규제</p> <p>정부 지원 정책 적절성: 5.06점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4.85점 사업시작 용이성: 91.03점</p>	<p>글로벌화</p> <p>해외시장 진출 비중: 6.7% 무역/금융 세계화: 47.2점/46.5점</p>

해외 벤처투자 생태계 특징 분석

- (영국) 민간 중심의 창업 자금 및 지원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기업의 생존역량 및 질적수준의 향상
 - 정부의 정책금융보다는 민간 중심의 창업기업 투자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업기업의 독자적 생존능력 향상
 - *해외시장 진출 수준 - 18.9%(2위), 금융세계화지수 - 89.2점(1위)
 - *벤처금융 비중 - 91.5%(1위), 중소기업 대출 중 정부 대출보증 비율 - 0.02%(1위)
 - *사업시작 규제 수준 - 94.59점(2위), 사업시작 관련 비용 - 0%(1위)
 - 민간 중심의 창업지원 조직 활성화 및 생태계 육성을 통해 창업지원 생태계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 *우수한 벤처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스페일업(2,217개, 3위) 및 유니콘기업(24개, 3위) 보유
 - 창업인재 및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통한 창업 생태계 도약 노력
 - *혁신창업가 비자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창업인재 유치 정책(혁신가/창업가 특화 비자 프로그램 Innovator Visa 운영)으로 이민자 및 외국인 창업(비중: 20.1%, 1위)활동 활성화
 -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자본 유입 등 금융 시장의 높은 개방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창업자본의 허브 역할 확대
 - 런던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 인프라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평가
 - *창업 지원조직 양적/질적 수준 - 7.17점(2위)/13.91점(2위), 코워킹스페이스 - 1,044개(2위)

[영국의 창업생태계 부문별 핵심성과]

<p>기업가 / 창업</p> <p>기업가정신: 67.7점 창업기업 수: 390,230개 창업률(기업/인구): 12.9%/0.57% 생계형 대비회형 창업배율: 4.00</p>	<p>기업</p> <p>생존율(1/5년): 92.2%/42.5% 창업기업 고용비중: 3.89% 테크스케일업: 2,217개 유니콘기업 수: 24개</p>	<p>자금</p> <p>벤처캐피탈 투자: 32억 달러 엔젤 투자: 1억 8천만 달러 대체금융: 104억 달러 EXIT(M&A 비중, VC기준): 34%</p>
<p>지원조직/인프라</p> <p>엑셀러레이터: 159개 인큐베이터: 206개 코워킹스페이스: 1,044개 사업적/법적 인프라: 5.10점</p>	<p>기술/지식</p> <p>인구 백만명 당 특허 수: 101.8건 GDP 대비 R&D 투자: 1.7% 4차 산업혁명 PCT 특허: 2,844건 연구개발 이전 수준: 4.19%</p>	<p>교육/인력</p> <p>학령기 교육 수준: 3.30점 학령기 이후 교육 수준: 4.51점 인력 숙련도: 64.7점 노동시장 유연성: 69.5점</p>
<p>문화/인식</p> <p>실패 두려움: 34% 위험추구 성향: 5.00점 사회 및 문화 규범: 5.27점 경력/지위인식: 56.8%/76.4%</p>	<p>정책/규제</p> <p>정부 지원 정책 적절성: 3.96점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4.27점 민간 자금조달 비중: 91.5% 사업시작 용이성: 94.59점</p>	<p>글로벌화</p> <p>해외시장 진출 비중: 18.9% 무역/금융 세계화: 72.3점/89.2점 외국인/이민자 창업비중: 20.1% 창업비자 프로그램 수준: 65점</p>

**국내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 및 투자시장 확대 노력으로 창업지원 생태계의 외형적 성장세 뚜렷**

- 정부 및 공공주도의 창업지원 정책 및 세부 사업/프로그램이 다양하며 규모도 매년 크게 성장
- 모태펀드 등 공공 주도의 창업기업 투자시장 확대 및 세제 혜택 등으로 VC 투자 및 엔젤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GDP 대비 투자비중 높음)
 - * 벤처투자 규모(%GDP) - 0.24%(2위), 엔젤투자규모(%GDP) - 0.0291%(1위)
- 적극적 정부 주도의 창업정책으로 창업률(특히 인구 수 대비 창업기업 수)이 타 국가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
 - * 창업의향 - 26.5%(1위), 창업률(활동기업 수/인구수 대비) - 15.0%(3위)/1.83%(1위)

✓ **창업 활동의 적극성 대비 창업준비 역량이 다소 부족하며, 기술역량에 비해 사업화 역량에 한계를 노출**

- 인구 수 대비 특허출원, GDP 대비 R&D 투자 등 연구개발 투입 성과는 우수하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의 효율성은 낮은 편
 - * GDP 대비 R&D 투자 - 4.2%(1위), 인구대비 특허출원 수 - 461.2건(2위)
- 글로벌 관점에서 외국인 창업지원 또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편으로 해석
 - * 창업비자 발급 인원 - 5,909명(D-8 기업투자 포함), 비자 프로그램 수준 75점(1위)
 - * 기술창업 전용 비자(D-8-4) 및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운영
- 다만 실제 기술창업 전용 비자 발급 실적이 부족하고 비자 운영의 고객만족도가 낮은 편

[한국의 창업생태계 부문별 핵심성과]

<p>기업가 / 창업</p> <p>기업가정신: 63.0점 창업기업 수: 996.779개 창업률(기업/인구): 15.0%/1.83% 생계형 대비기회형 창업배율: 2.93</p>	<p>기업</p> <p>생존율(1/5년): 63.7%/31.2% 창업기업 고용비중: 6.75% 테크스케일업: 488개 유니콘기업 수: 11개</p>	<p>자금</p> <p>벤처캐피탈 투자: 39억 달러 엔젤 투자: 5억 달러 대체금융: 8억 달러 EXIT(M&A 비중): 2%</p>
<p>자원조직/인프라</p> <p>엑셀러레이터: 308개 인큐베이터: 259개 코워킹스페이스: 229개 사업적/법적 인프라: 4.23점</p>	<p>기술/지식</p> <p>인구 백만명 당 특허 수: 461.2건 GDP 대비 R&D 투자: 4.2% 4차 산업혁명 PCT 특허: 12,417건 연구개발 이전 수준: 4.08%</p>	<p>교육/인력</p> <p>학령기 교육 수준: 3.34점 학령기 이후 교육 수준: 4.22점 인력 숙련도: 62.0점 노동시장 유연성: 53.5점</p>
<p>문화/인식</p> <p>실패 두려움: 49% 위험추구 성향: 3.85점 사회 및 문화 규범: 5.00점 경력/지위인식: 48.5%/66.3%</p>	<p>정책/규제</p> <p>정부 지원 정책 적절성: 6.02점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5.11점 민간 자금조달 비중: 3.6% 사업시작 용이성: 95.02점</p>	<p>글로벌화</p> <p>해외시장 진출 비중: 7.0% 무역/금융 세계화: 66.9점/60.6점 창업비자 프로그램 수준: 75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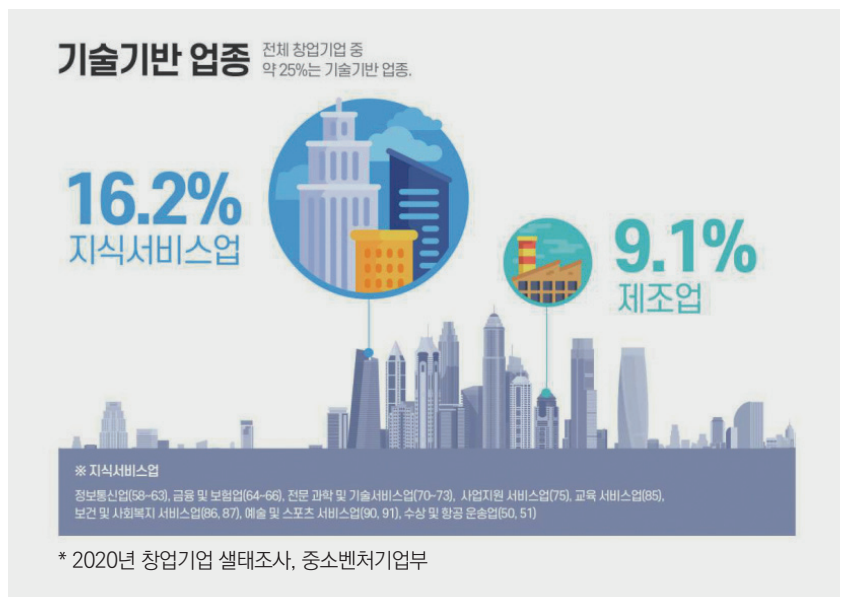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관련 정책 동향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태동부터 발전, 최근 제2벤처열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신설법인 증가, 사회적 관심 증가 등 '00년대초 벤처열기 시기 지표를 2배 이상 경신한 '제2벤처열기'시기가 도래했음을 확인**

* 신설법인(개) : ('00) 61,456 → ('08) 50,855 → ('16) 96,155 → ('20) 123,305

창업관련 언론기사(개) : ('00) 51,182 → ('08) 25,329 → ('16) 74,459 → ('19) 101,937

- 기존 업종단위 분석에서 벗어나 사업화 모델 기준으로 창업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떠오르고 있음을 입증



- 정부는 '혁신창업 국가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적극적인 창업 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4년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지난 20년간('00~'20) 연간 신설법인은 6.2만개가 증가했는데, 그중 44% (2.7만개분)는 지난 4년('16~'20) 동안 이루어짐

• 정부 창업예산도 '16년(3,766억원) 대비 '20년(8,492억원) 2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창업기업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개선됐다고 평가

* 정부의 기여도와 역할 평가('16. 44점 → '20. 66.5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세계 속의 국내 창업기업 위상이 점차 상승(CES혁신상 수상, 포브스 글로벌 리더 선정 등)하고, 창업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개선

* 실패에 대한 두려움('16. 31.5 → '19. 7.1%), 글로벌기업가정신 연구창업기업 생태계 분위기('16. 55 → '20. 71.3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 정부 창업지원기업의 평균 매출·고용은 '19년에 '09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특히 매출은 10년('09~'19) 증가분의 60%가 '16년이후 증가

* 매출(억원) : ('09)2.96 → ('16)4.26 → ('19)6.07 고용(명) : ('09)3.9 → ('16)5.8 → ('19)7.1

[2020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관련 정책 동향

✓ 정부는 2021년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내놓으며 창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

문재인 정부의 벤처분야 주요대책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18.1)
-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
-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18.5)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
- K-유니콘 프로젝트('20.4)
- 기술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대책('21.1)

- 민간에서는 제2벤처붐이 우리 경제에 안착되려면 추가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①인재유치·글로벌진출 지원 ②코로나19로 늘어난 민간 유동자금의 벤처투자 유도 ③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M&A 활성화 등 요구

참 고

최근 4년간 창업·벤처 주요 대책

발표시기	대 책 내 용
'17.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 창업 토대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마련
'1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펀드 결성·운영에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 유도, 정책펀드간 연계성 강화 등 •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8.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창업정책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촉진, 성공사례 창출,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
'19.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19.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조성
'20.4월 '2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자금 확대 등 융자 및 보증 공급 추가 지원, 벤처투자 추가 공급 유도 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K-유니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예비유니콘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 구축
'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R&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마련 등을 통한 기술 혁신기업 맞춤형 복합금융 확충
'2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관련 정책 동향

- 제2벤처붐 열기를 확산하면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벤처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Exit)” 3대 분야에서 현장애로 및 아쉬운점을 파악, 보완방안 마련 추진
- * GDP 대비 벤처투자('20) : (이스라엘)2.2%, (美)0.78%, (中)0.19%, (韓)0.22%
유니콘기업(CBinsights, '21.7) : (美)392, (中)156, (印)34, (英)31, (韓)11

[글로벌 4대 벤처강국도약을 위한벤처 보완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1. 8. 26.]

고용창출의 신성장 엔진, K-벤처!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민간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세부 추진 과제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간 협력을 통한벤처투자 시장 확대	회수(Exit)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 벤처법 일몰폐지 등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촉진 •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 민간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향상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 제도개선 • 구주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지원 • 다양한 IPO 수단활성화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관련 정책 동향

- 아울러 중기부는 내년 2022년 예산을 2021년 본예산 16조8000억원 대비 13.1%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하고 3대 중점분야로서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선정
-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
-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관련 정책 동향

-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38억원을 편성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수출 컨소시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각각 142억원, 141억원, 119억원으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인포그래픽, 중소기업부 2021. 12. 3.]



국내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 특히,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도 지속
 -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
 -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2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1382억원 규모로 추진

제1장 추진경연

제2장 기술창업·금융 정책 분석

제3장 대전지역 현황

제4장 대전 스타트업 InnoFund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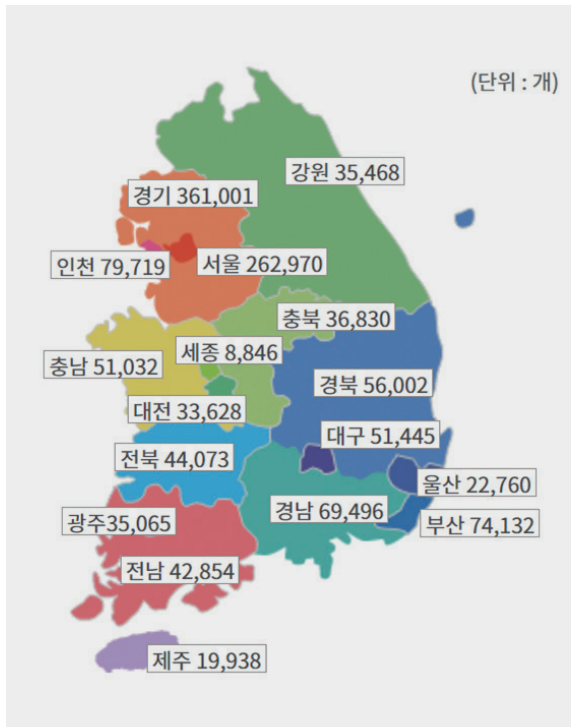
제5장 지역특화생태계를 영지별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지역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 ✓ **대덕넷 및 엔젤협회에서 수행한 지역차업 및 엔젤투자 생태계 조사연구를 인용**
 -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7곳(42.5%)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19.10월)하여, 향후 교육 및 일자리 등 사회경제적 기능의 상실가능성 증대
 -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공간적 발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국가산업 활력 부여 필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저하)

- ✓ **2019년 지역별 창업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창업기업 1,285여개 중 서울 20%, 경기 2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지역별 창업기업 현황]



[019년 지역별 창업기업 비중]

지역별	창업기업수(개)	비중 (%)
전국	1,285,259	100%
서울	262,970	20%
부산	74,132	6%
대구	51,445	4%
인천	79,719	6%
광주	35,065	3%
대전	33,628	3%
울산	22,760	2%
세종	8,846	1%
경기	361,001	28%
강원	35,468	3%
충북	36,830	3%
충남	51,032	4%
전북	44,073	3%
전남	42,854	3%
경북	56,002	4%
경남	69,496	5%
제주	19,938	2%

지역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 서울은 기술창업기업이 24%~25%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전체 창업기업 수의 비중인 20%보다 약 4%p정도 높은 수준
- 경기지역도 기술창업기업이 27%~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창업기업 수보다 2.4%p 높은 수준으로 기술 창업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으로 집중 되는 경향

2-3. 국내외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분석

구분	기술창업기업 수 (개)					지역별기술창업기업 비중 (%)				
	2016	2017	2018	2019	CAGR	2016	2017	2018	2019	
기술 기반 업종	소계	190,674	198,911	212,237	220,607	5.0%	100%	100%	100%	100%
	서울	48,158	49,332	51,615	53,568	3.6%	25.3%	24.8%	24.3%	24.3%
	부산	10,833	10,899	11,194	11,598	2.3%	5.7%	5.5%	5.3%	5.3%
	대구	7,898	8,358	8,313	8,263	1.5%	4.1%	4.2%	3.9%	3.7%
	인천	9,655	10,101	10,694	11,359	5.6%	5.1%	5.1%	5.0%	5.1%
	광주	4,692	4,971	5,247	5,424	5.0%	2.5%	2.5%	2.5%	2.5%
	대전	4,711	4,770	5,078	5,300	4.0%	2.5%	2.4%	2.4%	2.4%
	울산	4,121	3,901	4,016	3,991	-1.1%	2.2%	2.0%	1.9%	1.8%
	세종	1,089	1,413	1,581	1,737	16.8%	0.6%	0.7%	0.7%	0.8%
	경기	52,441	57,175	64,449	67,955	9.0%	27.5%	28.7%	30.4%	30.8%
	강원	3,498	3,688	3,678	4,163	6.0%	1.8%	1.9%	1.7%	1.9%
	충북	4,642	4,777	5,301	5,325	4.7%	2.4%	2.4%	2.5%	2.4%
	충남	6,199	7,007	7,063	7,071	4.5%	3.3%	3.5%	3.3%	3.2%
	전북	4,755	4,598	5,016	5,328	3.9%	2.5%	2.3%	2.4%	2.4%
	전남	4,494	4,508	5,134	5,276	5.5%	2.4%	2.3%	2.4%	2.4%
	경북	8,190	8,254	8,586	8,519	1.3%	4.3%	4.1%	4.0%	3.9%
	경남	13,378	12,965	13,011	13,322	-0.1%	7.0%	6.5%	6.1%	6.0%
제주	1,920	2,194	2,261	2,408	7.8%	1.0%	1.1%	1.1%	1.1%	

※ 지역별 창업잠재력 현황 (자료=STEPI)

지역	3P 전체		인식(Perception) 부문					잠재력(Potential) 부문				
	전체 순위	전체 지수	부문 순위	부문 지수	개인적 태도	사회적 문화	정책 체감도	부문 순위	부문 지수	정부 지원 기관	민간 투자 기관	청년 창업 준비자
서울	1	123.93	2	104.14	102.34	104.78	105.31	1	166.08	78.47	343.70	76.06
충남	2	122.90	13	98.04	98.69	96.70	98.73	3	147.72	153.05	16.92	273.18
충북	3	117.61	14	97.70	100.38	95.20	97.51	4	130.80	181.24	13.99	197.16
대전	4	111.50	16	96.26	100.07	91.77	96.93	2	150.17	191.16	61.44	197.91
광주	5	108.58	17	95.94	102.19	90.93	94.71	7	112.58	139.50	53.58	144.67
전북	6	107.72	12	98.19	98.21	99.79	96.56	6	114.02	198.60	16.82	126.63
강원	7	103.73	8	100.04	95.15	102.59	102.37	5	114.36	195.12	19.59	128.37
경북	8	98.27	11	98.58	98.99	99.37	97.37	10	99.41	136.43	9.13	152.67
제주	9	98.10	4	102.76	103.90	106.63	97.73	9	104.42	187.44	33.28	92.54
부산	10	96.41	9	99.03	96.22	101.30	99.57	8	104.66	135.27	56.35	122.35
대구	11	93.06	1	105.29	103.61	105.12	107.13	12	75.33	99.18	33.71	93.10
경기	12	87.56	15	96.56	97.73	95.31	96.63	14	65.11	63.07	65.24	67.03
전남	13	84.59	5	101.89	106.06	102.31	97.30	13	67.52	99.41	20.79	82.35
경남	14	83.20	3	102.98	102.10	104.29	102.55	15	52.27	74.70	19.41	62.69
인천	15	80.39	7	101.31	100.45	104.71	98.79	16	38.44	39.26	30.56	45.51
울산	16	72.67	6	101.71	95.64	102.21	107.26	17	25.63	8.34	16.64	51.90
세종	-	-	10	98.85	100.11	94.70	101.75	11	78.35	98.86	14.67	121.52

※ 지역별 창업잠재력 현황 <자료=STEP1>

지역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 지역별 기술 연구 역량을 살펴보면 회계 기준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18.0% (3조 6,867억원) 증가한 24조 2,195억원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을 위하여 투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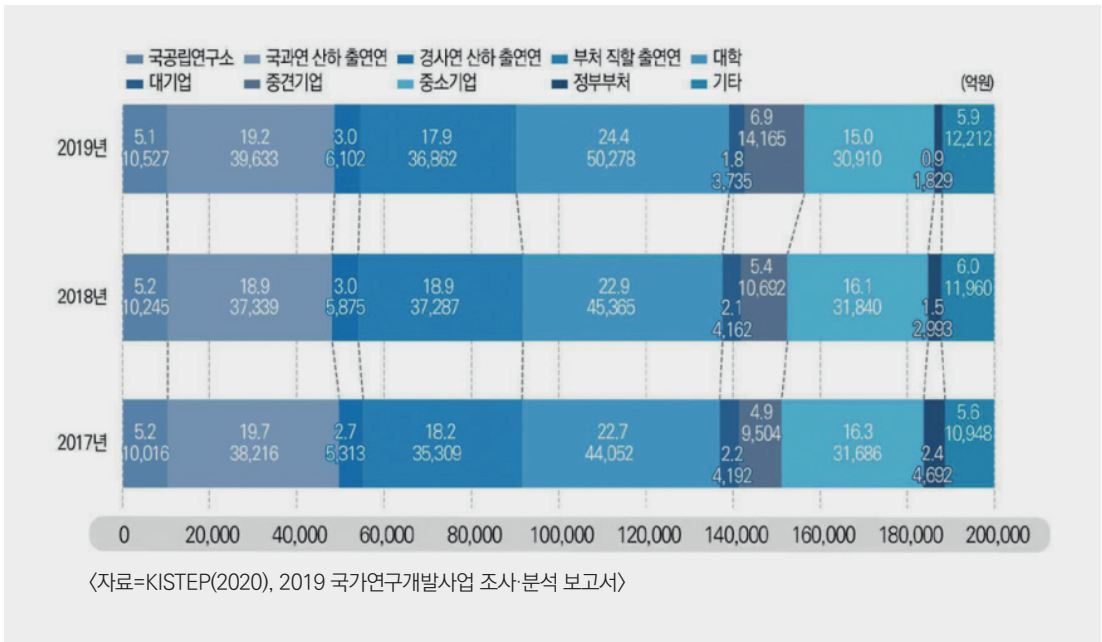
구분	2017년 ¹⁾	2018년 ¹⁾	2019년(A) ¹⁾	2020년(B)	증감 (B-A)	
					증감	%
◦ 정부연구개발예산(A+B+C)	196,615 (195,018)	196,681 (197,483)	205,328 (208,532)	242,195	36,867	18.0
• 예산(A+B)	176,136 (176,540)	178,956 (179,758)	187,992 (191,135)	224,431	36,438	19.4
- 일반회계(A)	149,032 (153,112)	153,112 (153,763)	163,686 (166,774)	178,556	14,871	9.1
- 특별회계(B)	27,104 (27,111)	25,845 (25,995)	24,307 (24,361)	45,874	21,568	88.7
• 기금(C)	18,478	17,725	17,336 (17,96)	17,764	428	2.5

※ 회계별 국가연구개발예산 현황 <자료=KISTEP(2020),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지역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 공공연구기관의 2019년 국가 R&D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연) 40.0%(8조 2,597억원), 대학 24.4%(5조 278억원)으로 전체 국가 R&D 집행의 6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출연연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 출연연 R&D 예산 집행 비중(%): ('17년) 40.7 → ('18년) 40.7 → ('19년) 40.0
 - 대학 비중은 비중은 매년 전체 R&D의 22%~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대학 R&D 예산 집행 비중(%): ('17년) 22.7 → ('18년) 22.9 → ('19년) 24.4
 - 즉,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매년 24%이상을 차지하는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을 지역 창업기업에 이전 및 사업화를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조건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 전국 벤처 현황 및 시·도별 인구수 / R&D예산 / 창업보육센터 현황

-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국에 8,251개의 벤처기업이 증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 전국벤처 현황 <자료=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_벤처통계 (기준일 : 2020.12월 말)>

- 지난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R&D예산, VC 등이 대폭 증가 추세

[전국 시·도별 인구수 / R&D예산 / 창업보육센터 현황]

	인구수		연구개발비		창업보육센터	
	2016년	2019년	2016년	2019년	2016년	2019년
서울	9,843	9,662	10,484	13,445	34	32
경기	12,600	13,238	33,051	45,935	18	16
인천	2,907	2,944	2,390	2,846	0	15
부산	3,447	3,373	1,242	1,582	48	47
경남	3,338	3,350	2,194	3,190	0	13
울산	1,166	1,147	801	1,110	17	14
대구	2,461	2,432	1,196	1,336	0	5
광주	1,502	1,494	835	827	14	12
대전	1,536	1,509	7,274	7,706	2	3
세종	234	331	469	594	0	15
강원	1,521	1,517	392	517	1	2
충북	1,601	1,626	2,105	1,660	12	10
충남	2,126	2,188	2,980	3,475	0	22
전북	1,835	1,803	900	1,122	0	17
전남	1,798	1,773	520	724	0	15
경북	2,683	2,665	2,418	2,805	13	10
제주	618	660	155	174	0	4
합계	51,218	51,709	69,406	89,047	159	252

창업 투자 회사	VC수	
	2016년	2019년
수도권	109	136
부산	5	5
대전	1	2
울산	0	2
광주	1	1
대구	1	0
경북	0	1
경남	0	1
강원	0	1
합계	117	149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7-2047」 /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 Entrepreneurship korea, STEPI, 2017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2020)

- 지난 5년 동안 지역별 벤처 증감수는 ▲수도권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순으로 집계

[지역별 벤처현황]

	벤처기업수(2016)	벤처기업수(2021)	증가수(증감률)
수도권	19,289	23,661	4,372(22%)
대전충청	3,349	4,032	683(20%)
강원권	616	760	144(23%)
대구경북권	3,228	3,385	157(4%)
부산경남권	4,441	4,708	267(6%)
광주전라권	2,191	2,569	378(17%)
계	33,114	39,115	6,001(0.18%)

<자료=벤처인 벤처기업현황 자료(2020년 12월, 2016년 12월)>

- 업종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제조업 비율이 높음

[벤처기업 지역/업종별 현황]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 광업	기타	합계
서울	2,753	4,374	328	191	531	9	1,849	10,035
부산	1,520	287	32	56	44	2	271	2,212
울산	397	65	9	13	3	1	61	549
대구	1,254	234	21	23	31	2	100	1,665
경북	1,442	91	16	27	10	17	94	1,697
광주	635	92	13	19	14	1	52	826
전남	692	64	7	36	12	7	75	893
대전	988	315	85	33	18	2	117	1,558
충남	1,164	62	16	21	10	7	81	1,361
경기	9,351	1,311	238	221	222	22	755	12,120
인천	1,460	142	27	29	28	3	88	1,777
강원	568	57	16	45	9	9	72	776
충북	968	61	23	14	9	7	77	1,159
전북	727	67	11	22	8	3	50	888
경남	1,681	95	12	27	14	13	89	1,931
제주	113	48	5	10	15	7	36	234
세종	96	35	6	6	2	0	23	168
계	25,809	7,400	865	793	980	112	3,890	39,849

<자료=벤처확인 공시시스템_벤처통계자료 (기준일 : 2021.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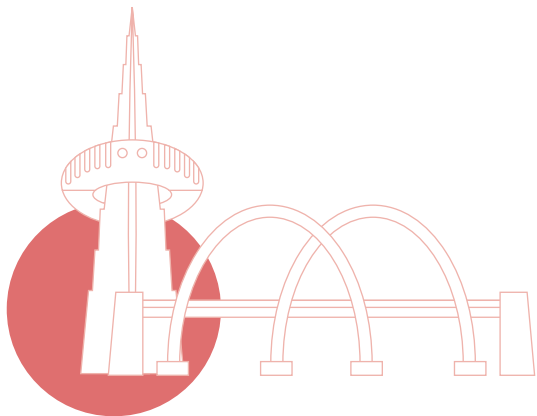
지역
벤처창업투자
생태계 동향

- 2018년 기준 벤처1000대 기업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매출 1000대 기업의 지역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753개사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인천 기업
- 특히 전국 벤처매출 순위 100위 내 기업 중 91곳이 수도권이며 이 가운데 79곳은 서울에 소재
- ✓ **지역별 AC(엑셀러레이터)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지역별 AC 등록 비율은 서울 166개(52%), 경기 37개(11.7%), 대전 26개(7.1%), 부산 20개(5.5%), 인천 10개(3.2%) 등의 순으로 집계**
- 서울·경기·인천의 전체 비율은 66.9%이며, 이외 지역 전체 비율은 33.1%로 집계

[지역별 AC 등록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합계	
기업	166	37	10	20	6	26	7	3	8	2	5	9	6	5	3	8	3	324	
비율	52	11.7	3.2	5.5	2.6	7.1	1.6	1	2.6	1	1	2.6	1.9	1.6	1	2.6	1	100	
	66.9									33.1									100

<자료=K-Startup 창업지원포털 (단위:개,%)>



제3장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대전지역 현황



- 3.1 대전지역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분석
- 3.2 대전지역 기술창업 생태계(지원조직 및 프로그램) 현황
- 3.3 대전지역 스타트업 투자조합 현황 및 스타트업 투자동향 분석
- 3.4 대전시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가용자원 현황

3-1 대전지역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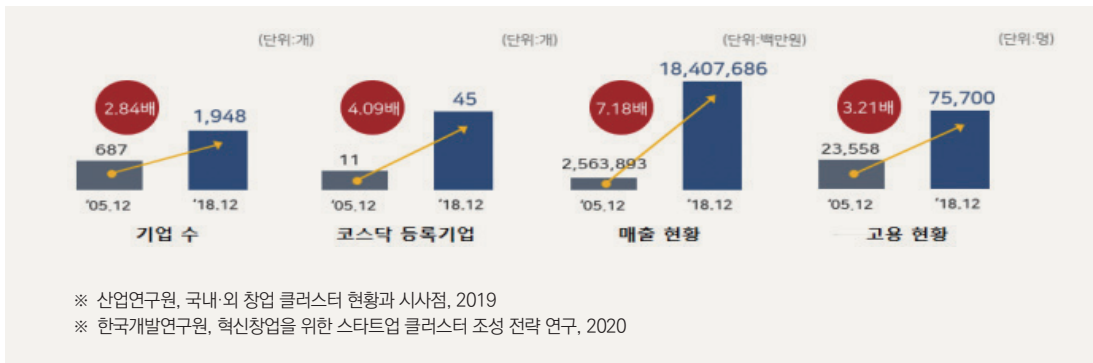
- ✓ (기업 성장)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운영 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은 기업 수, 매출액, 전문인력 등이 꾸준히 성장하는 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현황]

(단위 : 개, 십억원, 명)

구 분	'05년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증가율 (연평균)
기업 수	687	...	1,516	1,613	1,669	1,784	1,948	8.35%
기업 매출액	2,564	...	16,414	16,714	16,415	16,035	18,408	16.37%
특구 내 총 인력	23,558	...	67,390	67,696	69,613	72,671	75,700	9.39%
연구기술직 인력	16,759	...	29,638	31,334	33,138	34,919	35,898	6.03%
코스닥 등록기업	11	...	36	39	40	41	45	11.45%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 ✓ (기술창업 비율) 대전지역의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 업종 비율이 39%로 타 지역(부산 35%, 광주 30%, 대구 35%) 대비 높은 수준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 기술, 사업 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대전시 창업 현황(신설법인, '19년 기준)]

(단위 : 개)

구 분	신설법인 수	기술기반업종				합 계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기 타	
기업 수	2,647	450	195	213	178	1,03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 (기술창업 활발)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3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19년도 증가율은 전년 대비 4.4%로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 '19년 증가율(%) : (서울) 3.8, (부산) 3.6, (대구) -0.6, (인천) 6.2, (광주) 3.4, (울산) -0.6

[2016 ~ 2018년 대전시 기술기반 창업기업(법인+개인) 증가율]

(단위 :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가율('16~'19)
기업수	4,711	4,770	5,078	5,300	4.1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 (연구소기업 증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비율이 37.2%, 첨단기술기업 비율이 68.5%로 타 지역 특구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연구소기업(개사) : ('14년) 54 → ('15년) 88 → ('16년) 148 → ('17년) 192 → ('18년) 263 → ('19년) 329

[2019년 대덕R&D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합계
연구소기업	329(37.2%)	143(16.2%)	171(19.3%)	131(14.8%)	111(12.5%)	885
첨단기술기업	124(68.5%)	21(11.6%)	12(6.6%)	11(6.1%)	13(7.2%)	181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 ✓ (TIPS 참여 활발) 민간 주도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이 제일 높은 비율(14.6%)을 차지

[TIPS 운영사 및 참여기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운영사									참여 기업(팀)							
	'13	'14	'15	'16	'17	'18	'19	합계	'13	'14	'15	'16	'17	'18	'19	합계	
대전	1	-	2	-	-	-	3	6	2	5	14	13	34	33	35	136	
전국	2	7	6	7	8	6	17	53	15	39	79	85	205	256	255	93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 (석·박사 창업 활발) KAIST 기반 창업기업의 석·박사 이상의 비율은 일반 창업기업 대비 약 16.3배로 매우 높은 편

[KAIST 창업자 출신 유형]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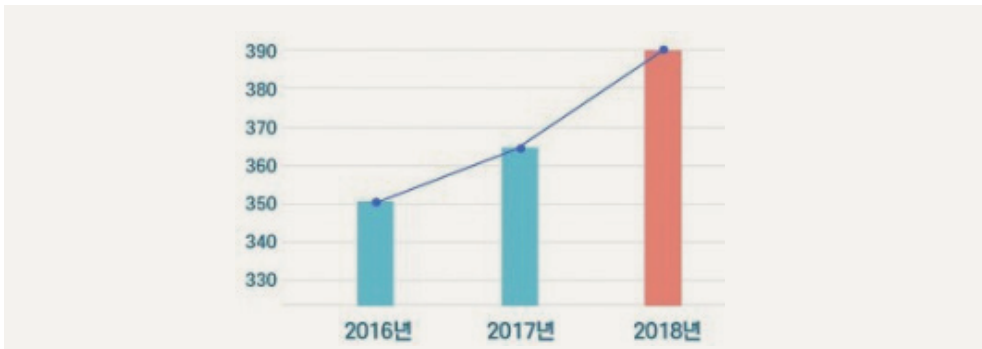
구분	학생창업	졸업생 창업	일반창업	교원창업	합계
창업기업	244	727	203	50	1,224
비율	19.9	59.4	16.6	4.1	100

※ 출처 : KAIST 창업원, 산학협력단, '2018 KAIST 창업기업 성과조사', 2019.05.

- ✓ (KAIST 혁신기술 창업)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인구수 대비 KAIST 창업기업 비율은 수도권 대비 평균 8.7배 높음

* KAIST 창업기업(개사) : ('16년) 350, ('17년) 366, ('18년) 389

[대전에서 창업한 KAIST 기업]



[최근 3년 인구수 대비 KAIST 창업 비율]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AIST 창업원

3-1. 대전지역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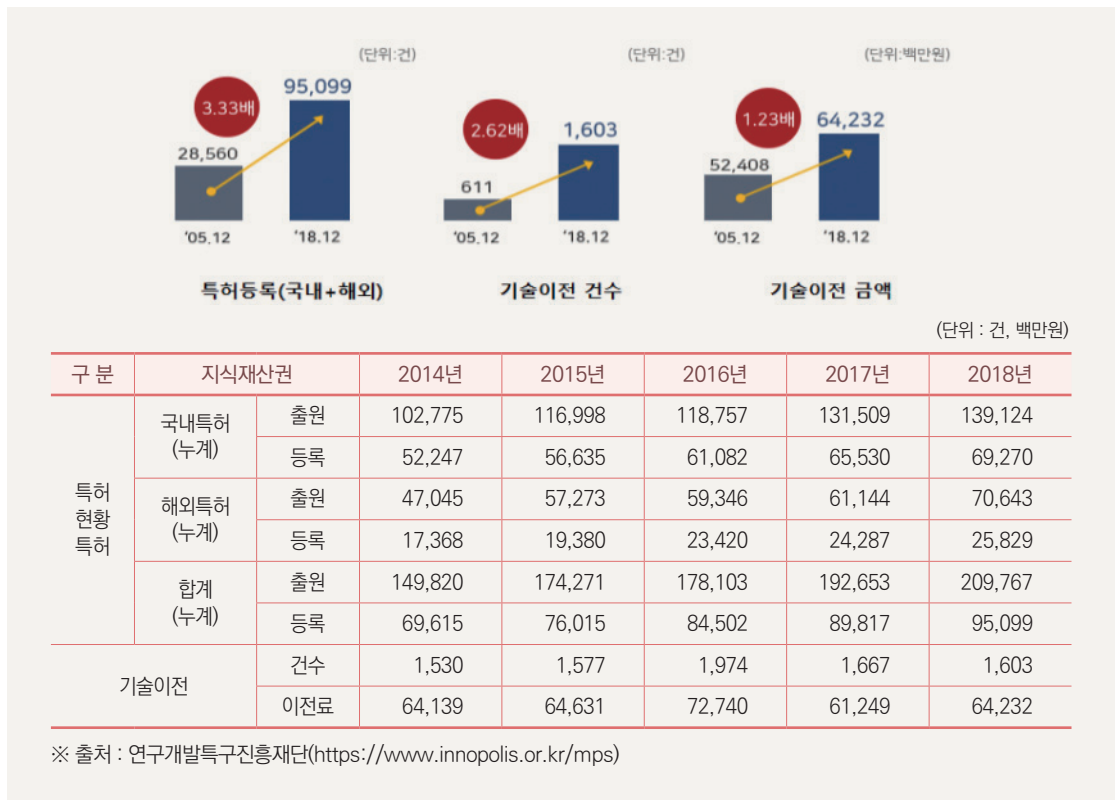
✓ (지식재산 창출 역량)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특허등록 성과를 나타내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이 활발

[2016 ~ 2018년 대전시 특허 보유 현황]

(단위: 건)

구분	특허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25,087	27,527	25,224
대전	5,492	6,503	5,877
인천	3,307	3,400	3,499
부산	2,527	3,061	3,412
대구	2,365	2,612	2,519
광주	1,410	1,694	1,765
울산	1,016	1,269	1,308

[대덕R&D특구 지식재산권(연구성과) 현황]



제1장 추진개요

제2장 기술창업 금융 현황 분석

제3장 대전지역 현황

제4장 대전 스타트업 InnoFund 기본개념

제5장 사업유망개발단계를 먼저!

✔ **(벤처펀드 확대) 대전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액셀러레이터 및 수도권 우수 벤처캐피탈 등에 출자하여 적극적으로 펀드 조성**

[대전시 출자 펀드 현황(대덕R&D특구 펀드 제외, '20.7월 기준)]

구분	펀드명	펀드 개요				
		주 목적 투자분야	결성 총액	시 출자금	운용사	결성일
1	충청권 경제활성화투자조합	대전충남권 성장성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206.5억	21억(10%)	대덕인베스트먼트(주)	'12.2월 (청산완료)
2	대전엔젤투자매칭펀드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50억	8억(16%)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5.12월
3	충청권 글로벌기술투자조합	공공기술 이전기업, 해외진출 기업	150억	16억(10.6%)	대덕벤처파트너스(유)	'17.12월
4	대전 4차산업혁명투자조합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	130억	50억(38.5%)	대덕벤처파트너스(유)	'17.12월
5	에이티넘 성장투자조합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3,500억	150억(4.7%)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17.12월
6	다담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소셜벤처 기업	145억	10억(6.9%)	다담인베스트먼트(주)	'18.12월
7	KST실험실창업 제1호개인투자조합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113억	21억(18.5%)	한국과학 기술지주(주)	'19.8월
8	미래지주창업투자 제2호개인투자조합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70억	9.7억(13.9%)	미래과학 기술지주(주)	'19.11월
9	다담-대전성장지원 1호투자조합	지방소재 창업·벤처기업	100억	18억(18%)	다담인베스트먼트(주)	'19.12월
10	WE지방유니콘 육성펀드1호	창업·벤처기업	160억	24억(16%)	(주)위벤처스	'19.11월
11	문화산업펀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프로젝트 기업	263억	43억(16.3%)	다담인베스트먼트(주)	'15.1월
12	융합기술투자조합	융합기술 관련 특허등록, 비상장	111억	10억(9%)	다담인베스트먼트(주)	'13.3월

[대덕R&D특구 펀드 현황]

구분	펀드명	펀드개요				
		주 목적 투자분야	결성 총액	시 출자금	운용사	결성일
1	대덕이노폴리스특허기술 사업화투자펀드	대덕R&D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800억	100억(12.5%)	이노폴리스파트너스	'06.9월 (청산완료)
2	일자리창출투자펀스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1,250억	87.5억(7%)	대성창업투자(주), 스마일게이트	'12.10월
3	충청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	188억	9억(4.8%)	대덕벤처파트너스(유)	'16.5월
4	이노폴리스 공공 기술기반펀드	특구 내 기술이전 출자기업	501억	40억(8%)	이노폴리스파트너스	'17.4월
5	일자리 창출 투자펀드2호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700억	100억(14.3%)	포스코기술투자, 케이런벤처스(유)	'18.7월
6	대덕특구 창업초기 투자조합	대덕R&D특구 창업초기 벤처기업	230억	20억(8.7%)	대덕벤처파트너스(유)	'19.7월

특구펀드 현황은?

▶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체계 완성

- 정부출자2차펀드 조성 시드머니(출연금+재단)와 투자수의 등을 지속 활용하여 「기술금융 선순환 생태계(투자→회수→재투자)」 구조 확립

특구펀드 선순환 체계



▶ 특구재단 출자

- [출연금+재단 적립금] 2차(300억), 3-2차(150억), 3-3차(200억), [TBC 수익금] 3-1차(10억), 4-1차(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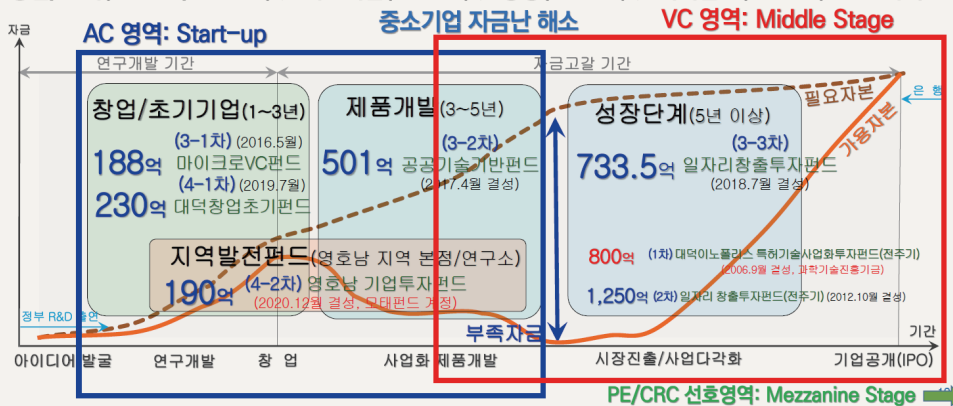
구분	1차펀드	2차 펀드	3차 펀드			4차 펀드	
			(3차-1호)	(3차-2호)	(3차-3호)	(4차-1호)	(4차-2호)
펀드명칭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1호	중장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2호	대덕특구 창업초기투자조합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결성총액	800억	1,250억	188억	501억	733.5억원	230억원	190억원
출자금 (자금출처)	400억 (과역기술진흥기금)	300억 (24%) (출연금5 : 재단1)	10억원 (5.3%) (TBC수익금)	150억원 (29.9%) (2차펀드 회수금)	200억원 (27.3%) (2차펀드 회수금)	30억원 (13.0%) (TBC수익금)	95억 (과기부 출연금)
결성일	2006.09월	2012.10월	2016.5월	2017.4월	2018.7월	2019.7월	2020.12월
운용사	이노폴리스파트너스	대상항투, 스마일게이트	대덕벤처 파트너스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케이랩벤처스	대덕벤처 파트너스	대상항투, 인라이트벤처스

Source: 8차회의 이노폴리스 특구재단 발제자료

특구펀드 현황 정리

▶ 특구 기술사업화 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펀드 완성(특구법 제17조)

창업/초기(2016년/2019년) ▶ 제품개발(2017년) ▶ 성장(2018년) ▶ 지역발전(2020년) 펀드 기획



Source: 8차회의 이노폴리스 특구재단 발제자료

제1장 추진개요

제2장 기술창업의 금융 현황 분석

제3장 대전지역 현황

제4장 대전시드벤처InnoFund 기본계획

제5장 시영특구개발단계별 투자별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 (벤처투자 활발) '19년 말 기준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대전지역 벤처투자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

* '17년 51개社 1,250억원 → '19년 92개社 3,406억원(8.0%)으로 대폭 증가

[정부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서울	676	12,720	53.5	732	17,097	49.9	863	23,041	53.9
경기	253	4,843	20.4	299	7,480	21.8	285	6,579	15.4
대전	51	1,250	5.3	63	1,985	5.8	92	3,406	8.0
인천	14	467	2.0	22	722	2.1	34	1,065	2.5
부산	29	317	1.4	18	309	0.9	35	436	1.0
대구	14	159	0.7	26	492	1.4	21	322	0.8
광주	11	142	0.5	15	252	0.7	18	332	0.8
울산	3	20	0.0	7	88	0.3	9	222	0.5
합계	1,266	23,803	-	1,399	34,249	-	1,608	42,777	-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 (바이오/의료 투자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필수인 바이오/의료(31개社) 분야 투자가 활발하며, 2021년 1분기에는 유통부문의 투자 성장세도 가시화

[정부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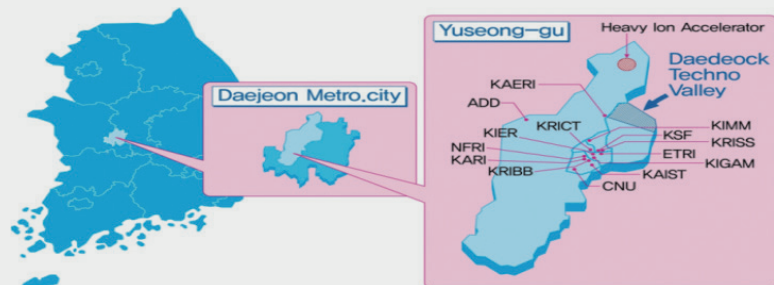
산 업 별	전 국			대 전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ICT제조	80	1,493	3.5	10	226	0.5
ICT서비스	446	10,446	24.4	21	335	0.8
전기/기계/장비	107	2,036	4.8	16	278	0.6
화학/소재	62	1,211	2.8	2	18	0.1
바이오/의료	299	11,033	25.8	31	2,236	5.2
영상/공연/음반	231	3,703	8.7	1	3	0.0
게 임	66	1,192	2.8	1	8	0.1
유통/서비스	359	8,145	19.0	16	258	0.6
기 타	124	3,518	8.2	4	45	0.1
합 계	1,608	42,777	100	92	3,406	8.0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3-2 대전지역 기술창업 생태계(지원조직 및 프로그램) 현황

대전광역시의 지리적 특징

- 서울,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경부철도선,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호남철도선, 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거나 모두 통과
-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단지(Science Complex)가 태동된 곳이고, 연구단지와 산업단지가 융합되어 개발된 사이언스파크(Science Techno Park; STP)가 만들어진 곳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부출연연구소(특히 과학, 기술, 공학 분야)가 위치한 곳으로 2020년 기준으로 26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대덕R&D특구에 입주
- 대한민국의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인구밀도 당 종합대학교가 가장 많은 곳
- 대한민국의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곳
- 대한민국의 과학/공학 교육과 연구의 요람인 KAIST가 위치한 곳
- 대한민국의 주요 종합대학 3개(KAIST와 충남대학교 및 한밭대학교)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인접해 있어서 상승 효과(Synergistic Effect)를 기대할 수 있는 곳
-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 중에서 정부종합청사(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병무청 등 입주)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
- 중앙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위치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이웃해 있어서 대전시의 광역시로서의 기능과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연계 효과 기대



※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있으며, 대표적인 과학, 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집적되어 있음

**혁신주체
집적화**

1) 대학 집적도(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 종합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원) : (4km 이내) 4개, (10km 이내) 4개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 (4km 이내) 1개, (10km 이내) 9개
- 선도대학 : (4km 이내) 2개, (10km 이내) 6개
- 지역 내 창업관련 학과 6개, 개설 계획 1개소

[대학 현황]

구 분	거리 (이내)	개수	기 관 명
종합대학 및 과학기술대학	4km	4	KAIST, 충남대, 목원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10km	4	한밭대, 한남대, 배재대, 대전대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4km	1	대덕대(전문대학)
	10km	9	우송대, 을지대, 한남대(대덕밸리캠퍼스), 배재대(대덕밸리캠퍼스), 한밭대(대덕산업융합캠퍼스), 건양대(대전메디컬캠퍼스), 대전과학기술대(전문대학), 대전보건대(전문대학), 우송정보대(전문대학)
선도대학	4km	2	충남대, 한밭대
	10km	6	한남대, 대전대, 건양대, 배재대, 대전대, 우송대

[스타트업 파크 중심 4km, 10km 이내 대학 집적도]



혁신주체
집적화

2) 연구기관 집적도(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 연구단지 및 연구기관

-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단지) : (4km 이내) 1개
-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단지 내) : (4km 이내) 19개, (10km 이내) 7개
- 민간연구기관 : (4km 이내) 18개, (10km 이내) 35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 (10km 이내) 1개소 예정

[연구기관 현황]

구분	거리	개수	기관명
연구단지	1개	1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4km	18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전분원), 나노종합기술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연구재단
	10km	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민간 연구소	4km	13	KT&G 중앙연구원, LG생활건강기술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LG유플러스 대전R&D센터, 대림산업(주) 대덕연구소, (주)목우연구소, 쌍용양회공업 기술연구소, (주)한국알앤디프로젝트연구소, (주)스탠더드시험연구소, (주)애경화학기술연구소, 폴리미래(주) 대덕연구소,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10km	31	(주)진캠중앙연구소, (주)한국의과학연구원, GS칼텍스(주) 중앙기술연구소, KT 중앙연구소, Kwater 연구원, LG화학 기술연구원, 실리콘웍스, 아이디스,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중앙백신연구소, 삼성SDS 대덕센터, 풍산기술연구원, 삼성중공업(주) 대덕연구센터, (주)우솔환경연구원, (주)삼동기술연구소, (주)대한항공기술연구원, (주)블루코드기술연구소, (주)생물유전자연구원, (주)삼양바이오팜 제약공장, (주)삼양중앙연구소,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주)태광산업중앙연구소, (주)한국유해물질연구소, (주)한국분석기술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공공기관	4km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km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지역 내 공공기관 현황]

구분	개수	기관명
공공기관	18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테크(주),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전원자력연구주식회사

제1장 추진개요

제2장 기술창업 및 금융 현황 분석

제3장 대전지역 현황

제4장 대전 스타트업 InnoFund 기본계획

제5장 사업육성개발단계별 정책별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혁신주체
집적화

3) 기업 집적도³⁾

✓ 대기업 · 중견기업 · 벤처기업

- (4km 이내) 대기업 3개 / 벤처기업 689개
- (10km 이내) 대기업 15개 / 중견기업 45개 / 벤처기업 1,416개

✓ 산업·벤처 단지 조성 현황 및 계획

- (4km 이내) 6개(2개 조성 중) / (10km 이내) 8개(2개 조성 중)

산업·벤처단지		거리	면적(㎡)	개발 방향
운영 중	대덕연구단지	4km 이내	25,579	• 특구 1지구
	죽동 지구		967	• 전기, 전자 등(특구 1지구)
	신성 지구		264	• 전기, 전자 등(특구 1지구)
	방현 지구		237	• 전기, 전자 등(특구 1지구)
	문지 지구	10km 이내	298	• 전기, 전자 등(특구 1지구)
	대덕테크노밸리		4,270	• IT, BT 등 첨단산업(특구 2지구)
	대덕산업단지		3,195	• 기계, 석유화학 등(특구 3지구)
	국방과학연구소 등		3,960	• 특구 5지구
	대전산업단지		2,313	• 기계, 철강 등
조성 중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4km 이내	105	• 첨단업종
	도룡 지구		260	• 과학벨트 거점지구(특구 1지구)
	신동·둔곡 지구	10km 이내	3,445	• 과학벨트 거점지구(특구 4지구)
	탑림·전민 지구		939	• 첨단부품, 정보통신(특구 4지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1,796	• 국방산업

* 10km 외 총 4개 조성(예정)

- (운영 중) 1개 : 하소친환경일반산업단지
- (조성 중) 3개 : 대덕평촌지구, 대동·금탄지구, 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3) 2018년도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 보고서(2018. 12.)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자료(2020. 04)

혁신주체
집적화

3. 문지지구

- 위치 : 유성구 문지동 일원(대덕특구)
- 면적 : 298천㎡(산업용지 : 56천㎡)
- 조성기간 : 2011 ~ 2016
- 유치업종 : 전기, 전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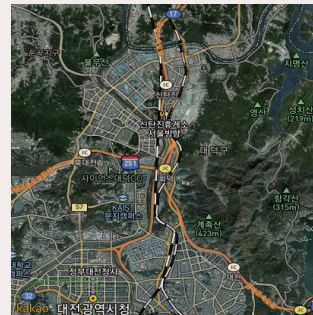
4. 대덕테크노밸리

- 위치 : 유성구 용산동 일원(대덕특구)
- 면적 : 4,270㎡(산업용지 : 1,978천㎡)
- 조성기간 : 2001 ~ 2009
- 유치업종 : IT, BT 등 첨단산업



5. 대덕산업단지

- 위치 : 대덕구 문평동 일원
- 면적 : 3,195천㎡(산업용지 : 3,083천㎡)
- 조성기간 : 1989 ~ 2005
- 유치업종 : 기계, 석유화학 등



6. 대전산업단지

- 위치 : 대덕구 대화동, 읍내동 일원
- 면적 : 2,313천㎡(산업용지 : 1,694천㎡)
- 조성기간 : 1969 ~ 1979
- 유치업종 : 기계, 철강 등
- 기타사항 : 노후산단 재생사업 중
-'21.12 준공예정



혁신주체
집적화

[산업·벤처 단지조성 계획]

1.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유성구 장대동 일원
- 면적 : 105천㎡(산업용지 : 35천㎡)
- 조성기간 : 2015 ~ 2021
- 유치업종 : 첨단업종
- 추진계획
 - '19 : GB해제,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1 : 보상 및 공사 추진



2. 도룡 지구

- 위치 : 유성구 도룡동 일원(BS)
- 면적 : 260천㎡(산업용지 : 229천㎡)
- 조성기간 : 2017 ~ 2021
- 유치업종 : 과학벨트 거점지구
- 추진계획 : 조성 중('21년)



3. 신동·둔곡지구

- 위치 : 유성구 신동 일원(대덕특구)
- 면적 : 3,445천㎡(산업용지 : 1,176천㎡)
- 조성기간 : 2014 ~ 2020
- 업종 : 종이온가속기 관련 산업
- 추진계획 : 조성 중('20.12)



4. 탑립·전민지구

- 위치 : 유성구 탑립, 전민동 일원(대덕특구)
- 면적 : 939천㎡(산업용지 : 363천㎡)
- 조성기간 : 2014 ~ 2020
- 업종 : 첨단부품, 정보통신
- 추진계획 : 공기업 예타 완료('20년)



5.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 위치 : 유성구 안산, 외삼동 일원
- 면적 : 1,796천㎡(산업용지 : 499천㎡)
- 조성기간 : 2015 ~ 2023
- 유치업종 : 국방산업(일부 제조업)
- 추진계획
 - '19~'20 : GB해제, 산업단지계획승인
 - '21~'23 : 보상 및 공사추진



혁신주체 집적화

4) 창업지원기관 집적도(스타트업 파크 중심)

✓ 창업지원기관 : (4km 이내) 7개 / (10km 이내) 5개

[창업 인프라 집적도]

구분	거리 (이내)	개수	기관명
창업지원기관	4km	7	대전 TIPS타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TRI 인큐베이터 등
	10km	5	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테크노파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화학소재상용화지역혁신센터

[스타트업 파크 중심 4km, 10km 이내 창업지원기관 집적도]



혁신주체
집적화

5) 투자·금융기관 집적도

구분	기관수	기관명
투자기관	10	대덕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 에트리홀딩스, 한남기술지주, 대전대기술지주, 충남대기술지주, 한밭대기술지주, 대전충청대학연합공동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가 (엑셀러레이터)	23	로우파트너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제이엔피글로벌, 비에스알코리아, 카이트창업가재단, 와이플래닛(유), 데이터앤밸류, 제이에이치제이홀딩스 한국과학기술지주(주), (유)컴퍼니에이, (재)충남대학교 창업재단, 미래과학기술지주(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충남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주식회사한국인증협회, 대덕벤처파트너스(유), (재)다차원스마트아이티, 융합시스템연구단, (주)와이드앤파트너스, (주)렛츠, (사)대전세종경영시스템, 에트리홀딩스(주)
금융지원	5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 출처 : 경제통상진흥원(2018)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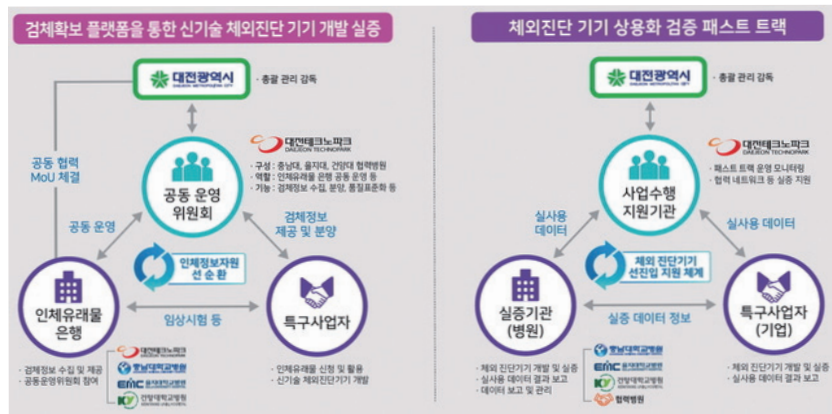
특구 및 지구
지정

1)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19.12월)

-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오산업은 미래에 타 산업을 견인하게 될 신성장 동력
- 대전시는 '19.12월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관련 산업 견인 기반을 마련함
- 중점 사업으로 ① 유전자의약 및 바이오융복합 산업육성 기반 구축, ② 전자의약 산업의 핵심기반 기술-인프라 육성, ③ 병원-기업-출연연 연계 협력기반 구축 추진
- 의료가기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생태계 마련 및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지역 병원 연계를 통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특구 및 지구 지정

- 700여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 연평균 전국 7.6% 대비 13.2%의 높은 성장률
-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 수립 / 생명연과 공동 추진
- 대동·금탄 지구에 바이오 특화단지(산업용지 70만㎡) 조성 예정
- 직·간접 경제효과 발생, 비용절감, 제도 선진화, 국민건강 증진 ⇨ 혁신성장 도모



-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 선정 ('20.7월)
- * 병원체자원 공용 연구시설을 활용한 코로나 19 등 감염병 치료제 조기 상용화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스타트업 파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제1지구) 지역이며, 현재 '대덕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3호('18.5.23.)

지정일자	2001. 03. 26	지정규모	26.83km ²
지정위치	유성구 가정동, 구성동, 궁동, 덕진동, 도룡동, 문지동, 방현동, 신성동, <u>어은동</u> , 원촌동, 장동, 전민동, 죽동, 화암동, 용산동, 탑림동		
주력업종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촉진지구 내 주요 입주기관	연구기관 63개, 공공기관 6개, 대학 등 교육기관 6개 등		
관련기관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대전테크노파크		

특구 및 지구 지정

3) 도시첨단산업단지

스타트업 파크와 1.5km 지점에 도심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KDI, '18.12.)를 완료, 단지 조성 예정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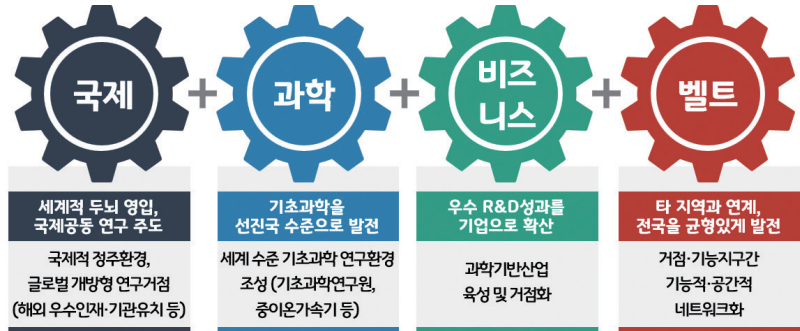
- 위치 : 유성구 장대동 일원
- 면적 : 105천㎡ (산업용지 35천㎡)
- 사업기간 : 2015 ~ 2021
- 사업비 : 658억원 (시행자 : LH)
- 유치업종 : 센서산업 등 첨단업종
- 추진계획
 - '19 : GB해제,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 ~ '21 : 보상 및 공사 추진



특구 및 지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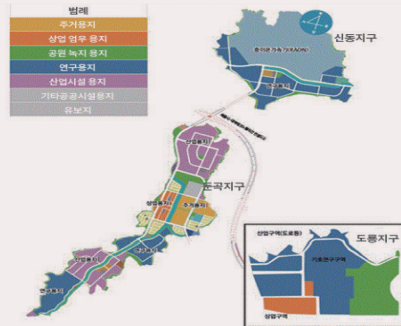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수행 연구원 설립, 첨단 기초연구 기반이 될 중이온가속기 설치 및 국제적인 정주환경 구축하여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 위치 :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대덕특구)
- 면적 : 3,445천㎡ (산업용지 2,145천㎡)
- 사업기간/사업비 : 2012 ~ 2021, 9,483억원
- 업종 : 중이온가속기 관련 산업
- 추진계획 : '20.12 (준공 예정 / 3단계)



특구 및 지구 지정

신동·둔곡지구

- '16. 10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 '17. 09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 '18. 02 1차 토지분양 완료
- '19. 12 신동·둔곡지구 기반조성공사 완료

도룡지구

- '13. 10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 변경 고시
- '18. 04 기초과학연구원(IBS)본원 개원
- '18. 10 도룡지구 기반조성공사 완료
- '21. 12 본원 2단계 구축완료(예정)

5) 혁신도시

'20.3월 균특법 개정으로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전역 주변과 연축동 일대를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로 선정('20.5월)



6)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특별법(21년 11월 예정)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제시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구)도심에 기업, (젊은)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대전 도심융합 특구

- 위치 : 선화지구, 대전역세권 일원
- 면적 : 124만㎡ (38만평)
- 4개존(Zone) : 창업공간, 공동주택, 혁신확산, 성장엔진 등



특구 및 지구 지정

- 선화구역은 공공부지와 빈집을 활용한 '창업공간', 역세권구역은 지식산업의 허브와 철도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특화산업의 전국확산을 위한 '혁신확산 존'으로 구성



대전시 5대 권역 창업인프라 구축현황

-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 조성) 기술개발부터 비즈니스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한 거점 '창업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기관의 입주기업 선발 및 인큐베이팅 등 민간주도의 창업지원

5대권역 광역 플랫폼

	명칭
제 1타운	대전 스타트업파크
제 2타운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제 3타운	POST-BI 창업성장캠퍼스
제 4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제 5타운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제1장 추진개요

제2장 기술창업의 중요 현황 분석

제3장 대전지역 현황

제4장 대전 스타트업 인노펀드 기본계획

제5장 사업추진계획(연계형 투자형)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대전시 5대 권역
창업인프라
구축현황

1) 제1타운 대전스타트업파크(궁동)

- '21년 개소되어 30여개사가 입주하고 있는 팁스타운 및 '23년 준공예정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잇는 궁동-어은동지역을 청년창업가 거리로 조성

대전 스타트업파크

- 위치 : 유성구 궁동 일원
- 예산 : 국비 126억원
- 팁스타운 개소 : '21. 5. 24
- 8개 투자기관, 30여개 창업기업, 엔젤투자허브 입주
- 10개 이상 민간 운영사 유치, 신한금융이 100억원 출자해 조성한 600억원 규모 벤처투자 펀드 지원



대전시 5대 권역
창업인프라
구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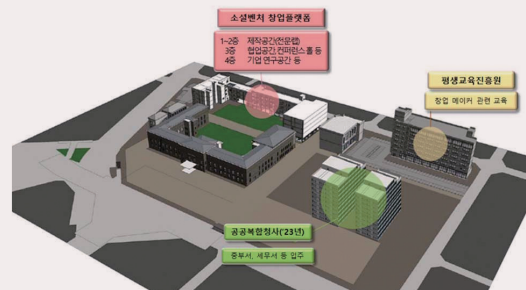
2) 제2타운 소셜벤처 창업플랫폼(구, 충남도청)

- 구도심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기반의 소셜벤처 창업기업 집중 육성공간으로 플랫폼 내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는 공간 조성

- '21년 개소되어 30여개사 입주하고 있는 팁스타운 및 '23년 준공예정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잇는 궁동-어은동지역을 청년창업가 거리로 조성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 위치 : 신관동 옛 충남도청사
- 사업기간 : 19. 2월 ~ 20. 3월
- 시설규모 : 신관동 6,104㎡
- 시설구성 :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 협업공간, 기업 연구공간 등
 - (1~2층, 제작공간) 전문장비를 활용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제작 공간
 - (3층, 협업공간)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업 업무·회의·휴식 공간
 - (4층, 기업 연구공간) 시제품 제작, 제품의 고도화 등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



3) 제3타운 POST-BI 창업성장캠퍼스(KT대덕연구센터)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갖춘 대전내·외 혁신 POST-BI 기업 창업지원 공간

창업성장캠퍼스

- 위치 : 전민동 KT대덕연구센터
- 개소 : 19. 11
-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투자사 공동 입주



4) 제4타운 캠퍼스 혁신파크(한남대)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지원해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일환

캠퍼스 혁신파크

- 위치 : 한남대 오정동 캠퍼스
- 규모 : 131개 보육실, 1만 165㎡
- 개소 : '23. 6월 예정
- 예산 : 약 500억원 (국비+시비)
- 공간 : 창업 및 중소기업 입주공간, 1인 콘텐츠 창작 스튜디오, 4차 산업혁명 융합 실증체험센터, Maker Space, 테크샵, 엔지니어링센터(ERC), 리빙랩



5) 제5타운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월평동)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 위치 :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 규모 : 100개사 입주, 800개사 보육공간, 5년후 1천개사 규모 확대
- 개소 : '23. 1월 예정
- 체계 : 대전시-KAIST-글로벌 투자기관 3각 협력 체계
- 조성공간 : 1층 - 공용, 네트워킹 공간
2층~7층 - 창업지원기관, 공공기관
8~12층 - 스타트업 입주공간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 혁신창업 선도

약 5년간('14~'19) 유망 스타트업 395개社 발굴·육성, 투자유치 1,904억원, 일자리 창출 2,134명, 창업문화 확산 등 성과 창출



1) 투자자원 유치 및 운영

전담조직을 별도 운영하여 투자자원을 결집시키고, 기술금융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가속화

- 신규 자체펀드 조성 : 직·간접투자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확보 및 성장 지원(198억원)

구분	일시	내용
액셀러레이터 등록	'18.0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 : 제2018-39호(2018.6.7) •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TIPS 운운사 신청조건 확보
신규 펀드 조성	대전벤처스타 개인투자조합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 보유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초기자금 확보 및 성장 지원 • (규모) 3억 • (기간) '18.12.12~'23.12.11 (5년) • (대상) 센터 보육기업, 7년 이내 우수기술 창업기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소셜벤처 육성 및 성장 지원 기반 마련 • (규모) 145억 • (기간) '18.11.16~'24.11.15 (6년) • (대상) 혁신성·성장성 보유한 소셜벤처기업
	대전엔젤투자 매칭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엔젤 투자 후, 동일조건 2배(최대 3억원) 매칭 투자 • (규모) 50억 • (기간) '15.12.29~'25.12.28 (10년) • (대상)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등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 금융기관 연계 : 스테이지 맞춤형 IR 역량을 강화시키고, 투자사, 기보, 신보, 하나은행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투자 촉진

기술금융 플랫폼

- (개요) 유망기술 창업기업의 BM 고도화, IR 전 략수립, IR 자료 제작 등 IR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원스톱 금융상담을 통한 투자, 보증유자 유치 지원

구분	주요성과('15~'19)		기타
IR 역량강화	지원기업수	85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벤처스타데모데이) 유망기업 IR, 제품시연, 투자·비즈 상담 기회 제공 - 수도권 투자자 지역 유인 및 대전 대표 데모데이로 브랜드화
	투자유치	221.6억원	
기술금융 상담	개최횟수	3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금융상담회) 투자사, 기보, 신보, 하나 은행, 중진공 등과 기술금융상담회를 개최하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약 5년간, 33회 개최, 465건 상담 지원
	상담건수	465건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2) 지역특화 혁신성장 거점

공공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육성, 첨단센서 산업 고도화 등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공공기술 창업 활성화 : 출연연, 대학과 공동으로 시장수요를 고려한 BM 개발 및 초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공공기술 창업 촉진

공공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 (개요) 출연연 및 대학에서 개발되는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모델 구체화 및 초기 투자를 연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구분	주요성과('18~'19)		기타
IR 역량강화	지원기업수	38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출연(연)·대학·민간 AC가 기관별 특화 기능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스템 창업방식의 공공기술 활용 창업 지원
	투자유치	43.5억원	
기술금융 상담	개최횟수	9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출연연) 교수·연구원 창업자 발굴 • (센터) BM·사업계획 수립, IR 역량강화 • (민간 AC) 초기 투자, TIPS 연계 지원
	상담건수	35건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 소셜벤처 육성 :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소셜벤처 캠퍼스를 구축('18.12)하고, 파트너기관과 공동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추진

센터-투자자-
지원기관-지자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셜벤처 육성

- (개요) 원도심 내 소셜벤처 캠퍼스 개소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계적인 소셜벤처 육성 시스템 구축

구분	주요성과('19)		기타
IR 역량강화	지원기업수	16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벤처 기업 대전지역으로 신규 유입 등 소셜벤처 특화산업으로 발전 中 • 기술융합 소셜벤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임팩트 투자사 등 10개사와 MOU 체결 • tAB 아프리카 창업 수상, 코이카 개발 벤처상, 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 최우수상 등 수상
	투자유치	2개사	
기술금융 상담	개최횟수	4.9억원	
	상담건수	12명	

< 소셜벤처 육성 협업 파트너 >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 첨단센서 산업 고도화 : 첨단센서 기업의 업종 고도화, 실증화(시제품, 인증, 시험평가 등) 지원을 통해 첨단센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성장 지원 강화

대전지역 첨단센서
산업 고도화

- (개요) 첨단센서 스타트업의 사업화, 권리화, 시장검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

구분	주요성과('19)		기타
IR 역량강화	지원기업수	41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매출 35억원으로 2018년 대비 매출 230% 상승 • 지씨아이 베트남, 그리스, 태국 첫 수출 (8백만원) • 트위니 벤처기업, 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대전유망 중소기업 등 다수 인증
	투자유치	59.5억원	
기술금융 상담	개최횟수	88명	
	상담건수	8회 / 819명	

* 대전첨단센서포럼 : 센서 기업의 성공사례 및 최신동향 공유, 네트워킹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3) 창업생태계 허브

- ✓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고, 다양한 협업 주체들과 연계·협력 주도
 - 창업 도전 환경조성 : 창업 도전자 역량 강화 및 사업 준비단계를 지원하여, 누구나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창업 문화 확산

· (개요) 아이디어 to 비즈니스를 위한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포럼 등

구분	주요성과('14~'19)	기타	
창업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원스톱 멘토링	5,521건	· (멘토링) 금융, 법률, IP 및 정부 지원제도 등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창업아이디어 발굴	260팀	
	대전스타트업스쿨	141회 / 4,385명	· (스타트업스쿨)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역량 강화 교육
	대전창업포럼	49회 / 4,827명	· (포럼) 창업 관련 강연 및 토크쇼, IR 피칭 등 네트워킹 포럼 개최
	대전테크포럼	13회 / 1,340명	· (창업네트워크) 지역혁신기관-기업 교류 및 협업 커뮤니티 구축
	기술사업화네트워크	24회 / 1,012명	
	창업커뮤니티네트워크	10회 / 997명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	3,750명	· (글로벌 페스티벌) 국내외 투자자,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 축제
	시제품제작	6,781건	· (시제품 제작) 메이커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 파트너십 확대 :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 기관*과 총 102건('14~'19)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 SK 및 수자원공사, 대전지역상장법인협의회, 한컴, 충남대학교병원 등

4) 대전 창업 인프라 확장

- ✓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의 기능과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창업 플랫폼」을 확대·조성 중
 - 창업단지 조성 : 지역 혁신주체(창업자, 투자자, 전문가 등)가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창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구축

제 1 장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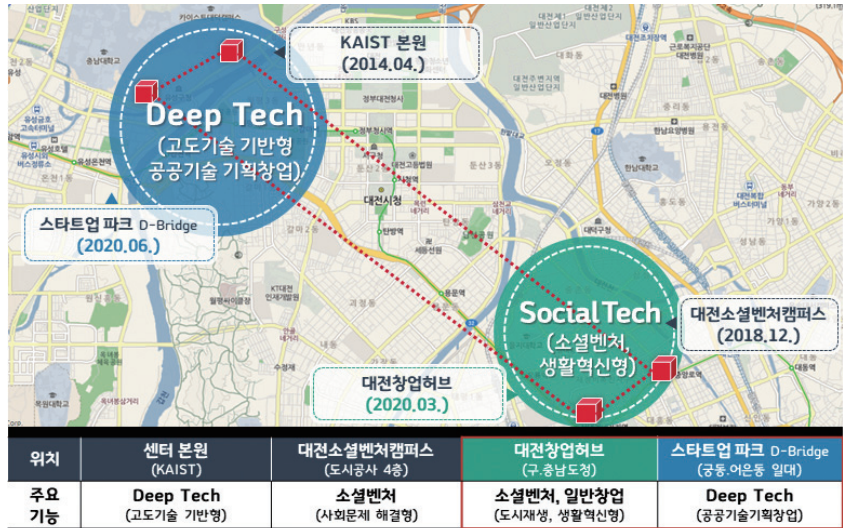
제 2 장 기술창업의 중요 현황 분석

제 3 장 대전지역 현황

제 4 장 대전 스타트업 InnoFund 기본계획

제 5 장 사업추진계획(단계별 먼저별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최근 혁신창업
선도 현황



-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특화 중심지(Hub)를 조성하여 기술기반 소셜벤처 및 생활혁신형 스타트업 발굴 → 사업화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운영('20. 6. 개관)

✓ 창업지원 전문성 입증* : 전국 혁신센터 성과평가** 결과 대전혁신센터가 성과 최우수(상위 25%) 센터로 선정

*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9(스타트업얼라이언스)]

** 2018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평가(성과공유회)

3-3 대전지역 스타트업 투자조합 현황 및 스타트업 투자동향 분석

3-3-1 대전광역시 스타트업 투자조합 현황

지역별 개인투자 조합 운영현황

- 대전의 개인투자조합의 수는 2020년 기준을 122개이며, 전국(1,439개) 대비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등록 개인투자조합의 수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단위 : 개)

구분	운영 조합수			신규등록 조합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	327	511	814	151	193	319
경기	94	144	216	47	52	73
대전	90	108	122	35	26	20
그외지역	153	217	287	69	65	73
총합계	664	980	1,439	302	336	485

(자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광역시 출자 투자조합 현황

- 대전광역시가 출자한 스타트업 투자조합(일자리경제국 소관)은 현재까지 16개이며, 투자 중인 조합은 12개임.

(2021. 4월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결성 조합수	총결성액	市 출자액	총투자액		대전시투자액		비고
				투자기업	금액	투자기업	금액	
2012	1	206.5	21.0	13	185.00	8	102.00	청산완료
2013	1	111.0	10.0	7	99.65	3	32.25	해산중
2015	1	50.0	8.0	14	22.62	14	22.62	투자중
2016	1	188.0	9.0	34	156.02	20	94.72	회수중
2017	3	3,780.0	216.0	84	3,267.70	26	394.13	회수-투자중
2018	1	145.0	10.0	14	106.00	3	17.01	투자중
2019	5	673.0	92.7	52	256.12	28	111.39	"
2020	3	291.3	39.0	10	52.57	5	9.86	"
계	16	5,444.8	405.7	228	4,145.68	107	783.98	

- 총 결성액 대비 대전시 출자액: 7.5%
- 총 결성액 대비 대전시 투자액: 14.4%
- 총 투자액 대비 대전시 투자액: 18.9%

참 고 1 **일자리경제국 소관 펀드 현황**

구분	펀드명칭 (계)	① 대전엔젤 투자매칭 펀드	② 대전4차 산업혁명 투자조합	③ 에이티넘 성장 투자 조합	④ 다담소셜 임팩트 투자조합	⑤ 대덕특구 창업초기 투자조합	⑥ KST실험실 창업 제1호 개인투자조합	⑦ 미래지주 창업투자 제2호 개인투자조합	⑧ 다담-대전 성장지원 1호 투자 조합
펀드 개요	결성총액 (4,789.3억)	50억	130억	3,500억	145억	230억	113억	70억	100억
	시출자금 (349.7억)	8억(16%)	50억(38.5%)	150억(4.7%)	10억(6.9%)	20억(8.7%)	21억(18.5%)	9.7억(13.9%)	18억(18%)
	결성일	2015.12월	2017.12월	2017.12월	2018.12월	2019.7월	2019.8월	2019.11월	2019.11월
	운용기간	10년 (투자9+회수1)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6+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운용사	대전창조경제 혁신센터	대전벤처 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다담 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 파트너스	한국과학 기술지주	미래과학 기술지주	다담 인베스트먼트	
	대전AC	대전VC	수도권VC	수도권VC	대전VC	대전AC	대전AC	수도권VC	
펀드 진행현황	투자 중 (2025.12월 해산 예정)	투자 중 (2025.12월 해산 예정)	투자 중 (2025.12월 해산 예정)	투자 중 (2026.12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7. 7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7.8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7.11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7.11월 해산 예정)	
	총 투자 (160개사) (3,573.71억)	14개사 22.62억 투자	13개사 90.70억 투자	57개사 3,045.7억 투자	14개사 106억 투자	15개사 68.39억	8개사 22.99억	10개사 30.25억	5개사 29.5억
펀드 운용 현황	우리시투자 (70개사) (501.91억)	14개사 22.62억 투자 (100%)	11개사 84.06억 투자 (92.7%)	9개사 256.97억 투자 (8.4%)	3개사 17.01억 투자 (16.1%)	10개사 45.63억 (66.7%)	6개사 17억 (73.9%)	6개사 15.25억 (50.4%)	2개사 9.5억 (32.2%)
	비고	4개사 4.79억원 회수중		6개사 143.07억원 회수중					

구분	⑨ WE지방 유니콘 육성펀드 1호	⑩ 로우파트 너스개인 투자조합 1호	⑪ 충남대학교 기술지주 (주)지방 개인투자 조합 1호	⑫ 에이 벤처스W 유니콘 투자조합	펀드명칭 (계)	청산	해산	회수	
						⑬ 총청권 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⑭ 융합기술 투자조합	⑮ 총청권 스타트업 액셀러 레이팅 펀드	⑯ 총청권 글로벌 기술투자 조합
펀드 개요	160억	15.3억	30억	246억	결성총액 (655.5억)	206.5억	111억	188억	150억
	24억(16%)	3억(19.6%)	6억(20%)	30억(12.2%)	시출자금 (56억)	21억(10.1%)	10억(9%)	9억(4.8%)	16억(10.6%)
	2019.11월	2020.7월	2020.7월	2020.10월	결성일	2012. 2월	2013. 3월	2016.5월	2017.12월
	8년 (투자4+회수4)	7년 (투자3+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운용기간	7년 (투자3+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6년 (투자3+회수3)
펀드 운용사	위벤처스	로우파트너스	충남대학교 기술지주	에이벤처스	운용사	대덕 인베스트먼트	대덕 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 파트너스	대덕벤처 파트너스
	수도권VC	대전AC	대전AC	수도권VC		대전VC	대전VC	대전VC	대전VC
펀드 진행현황	투자중 (2027.11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7.7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7.7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7.10월 해산 예정)	진행현황	청산완료 ('19.11.04.)	해산중 (2021. 3월)	회수중 (2024.05월 해산예정)	회수중 (2023.12월 해산 예정)
	14개사 104.99억	5개사 5.55억	2개사 7억	3개사 40.02억	총 투자 (68개사) (571.97억)	13개사 185억 투자	7개사 99.65억 투자	34개사 156.02억 투자	14개사 131.3억 투자
펀드 운용 현황	4개사 24.01억 (22.9%)	3개사 2.86억 (51.5%)	2개사 7억 (100%)	-	우리시투자 (37개사) (282.07억)	8개사 102억 투자 (55.1%)	3개사 32.25억 투자 (32.3%)	20개사 94.72억 투자 (60%)	6개사 53.10억 투자 (49.6%)
	비고					총11개사 275억 회수완료/ 시수익금 7.3억	6개사 167.30억 회수중	5개사 45.2억 회수중	

3-1. 대전지역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분석

대전광역시 출자 투자조합 현황

- 기타 다른 실·국에서도 5개의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중인 펀드가 2개, 회수 중인 펀드는 3개로 집계

(21.4.기준 / 단위 : 개, 억원)

결성조합수	총결성액	시 출자액	총투자액		대전시 투자액	
			투자기업	금액	투자기업	금액
5	2,867.5	290.5	183	2,315	59	860.6

대전광역시 출자 투자조합 현황

- 총 결성액 대비 대전시 출자액: 10.1%
- 총 결성액 대비 대전시 투자액: 30.0%
- 총 투자액 대비 대전시 투자액: 37.2%

참 고 2

기타 펀드 현황

	펀드 명칭	회수중			투자중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1호	문화산업펀드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일자리창출 투자펀드2호	대전규제자유특구 블루포인트 투자펀드
펀드 개요	결성총액 (2,867.5억)	1,250억	263억	501억	733.5억	120억
	시 출자금 (290.5억)	87.5억(7%)	43억(16.3%)	40억(8%)	100억(13.6%)	20억(16.7%)
	결성일	2012. 10월	2015. 1월	2017.4월	2018.7월	2020.12월
	운용기간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7년 (투자3+회수4)
	운용사	대성창투,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다담인베스트먼트(주)	이노폴리스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케이런벤처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펀드 운용 현황	진행현황	투자완료, 회수 중 (해산중)	투자 완료, 회수중 (2023. 1월 해산 예정)	투자 완료, 회수중 (2025.4월 해산 예정)	투자 중 (2026..7월 해산 예정)	투자 중 (2027.7월 해산 예정)
	총 투자 (183개사) (2,315억)	51개사 1,186억 투자	73개사 331억 투자	30개사 389.4억 투자	29개사 408.6억 투자	-
	우리시 투자 (59개사) (860.6억)	22개사 504억 투자 (42.5%)	18개사 76.7억 투자 (29%)	9개사 130.3억 투자 (33.5%)	10개사 149.6억 투자 (36.6%)	-
비고		과학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국

3-3-2 대전광역시 스타트업 투자동향 분석

특구펀드 현황

✓ 대전지역의 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특구재단의 출자관련 펀드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면,

- 특구재단은 대전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펀드와 관련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1,090억원을 출자하여 총 3,702.5억원의 투자조합을 결성한 바 있음.
- 현재는 총 5개 펀드(2차~4-1차)를 조성, 3개 펀드(약 1,464억원)를 운영 중이며, 2차펀드, 3-1차펀드는 투자완료 후 회수 중임. 위 5개 펀드를 통해 174개 기업, 총 3,154억원을 투자 중이며, 이 중 특구 기업에는 2,289억원을 투자한 바 있음.
- 특구지역의 기술사업화 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로 창업/초기, 제품개발, 성장 등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결성하여 지역기업에 필요한 자본수요에 적합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현황, 수요

- 투자액 대비 대전시 투자액이 일자리경제국은 18.9%, 그 외 과학산업국 등은 37.2%로 국별로 대전기업 투자 비율에서 차이를 보임
- 전문투자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유지 중으로, 시에서 투자하길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타겟투자'에는 제약이 상존
- 간접투자방식의 보완사항으로, 데모데이 또는 IR행사 등의 대전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연계 운영으로 대전지역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 또한, 출자 시 대전기업 투자조건을 상향조정하여 규약 등에 명시함으로써 지역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

대전지역
벤처캐피탈
산업별
투자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억원, %)

산업별	전국			대전			비고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I C T 제 조	80	1,493	3.5	10	226	0.5	-
I C T 서 비 스	446	10,446	24.4	21	335	0.8	-
전기/기계/장비	107	2,036	4.8	16	278	0.6	-
화 학 / 소 재	62	1,211	2.8	2	18	0.1	-
바이 오 / 의 료	299	11,033	25.8	31	2,236	5.2	-
영상/공연/음반	231	3,703	8.7	1	3	0.01	-
계	66	1,192	2.8	1	8	0.09	-
유 통 / 서 비 스	359	8,145	19.0	16	258	0.6	-
기 타	124	3,518	8.2	4	45	0.1	-
합 계	1,608	42,777	100	92	3,406	8.0	-

대전지역
벤처캐피탈
산업별
투자현황

- 대전의 투자대상 업체수는 ①바이오/의료(31개) ② ICT서비스(21개) ③전기/기계/장비(16개) ④ 유통/서비스(16개) 순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게임 산업분야는 미미한 상황
- 투자금액에 있어서도 바이오/의료분야(대전시 투자금액의 66%)에 집중되어 있어 대전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
- 따라서 투자성과의 측면에서는 바이오/의료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투자의 범위를 다양화 및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

대전지역 주요
펀드 현황

✓ 또한 대전지역 전체의 최근 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개 펀드, 1,797억원이 조성된 바 있으며, 이 중에 62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됨.

분야	펀드명	결성일	결성총액 (투자금액)	존속기간	운용사명
대학창업펀드	카이스트대학창업투자조합	2020-07-06	30억(4억)	7년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80% 이상을 투자, 학생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80% 이상을 투자				
	미래지주 창업투자 제3호 개인투자조합	2020-07-03	50억(2억)	10년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80% 이상을 투자				
	미래-과기특성화대학 창업투자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8-07-13	68억(44억)	10년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학창업기업					
WE지방기업육성펀드	WE지방기업육성펀드1호	2019-11-25	160억(94억)	8년	위벤처스
	지방기업				
다담 대전 성장지원 1호 투자조합	다담 대전 성장지원 1호 투자조합	2019-11-20	100억(29억)	8년	다담인베스트먼트
	지방기업				
기술창업펀드	에트리홀딩스기술사업화개인투자조합2호	2019-08-28	90억(18억)	7년	에트리홀딩스
	기술사업화기업				
	케이에스티(KST) 실험실창업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9-08-27	113억(13억)	8년	한국과학기술지주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 공문 수령/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충청권 글로벌기술 투자조합	충청권 글로벌기술 투자조합	2017-12-05	150억(103억)	6년	대덕벤처파트너스
	공공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해외진출 기업				

연도	펀드명	결성일	결성총액 (투자금액)	존속기간	운용사명	
						투자목적
지 표 요 인	1	미래지구 창업투자 제4호 개인투자합	-	60억(0억)	8년	미래과학기술지주
	창업·벤처기업에 출자약정액의 70%(4,200백만원) 이상 투자					
	2	충남대학교기술지주(주)지방개인투자조합제1호	-	30억(0억)	8년	충남대학교기술지주
	지방소재					
	3	로우파트너스 개인투자조합 제1호	2020-07-31	15억(1억)	7년	로우파트너스
	지역에 본점, 주사무소를 두고 창업 3년 이내 기업,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며 출자약정액의 60%이상 투자					
	4	카이스트대학창업투자조합	2020-07-06	30억(4억)	7년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80% 이상을 투자, 학생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80% 이상을 투자					
	5	미래지구 창업투자 제3호 개인투자조합	2020-07-03	50억(2억)	10년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80% 이상을 투자					
	6	다담 대전 성장지원 1호 투자조합	2019-11-20	100억(29억)	8년	다담인베스트먼트
	지방기업					
	7	미래지구 창업투자 제2호 개인투자조합	2019-11-04	70억(30억)	8년	미래과학기술지주
지방기업						
8	에트리홀딩스기술사업화개인투자조합2호	2019-08-28	90억(18억)	7년	에트리홀딩스	
기술사업화기업						
9	케이에스티(KST) 실험실창업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9-08-27	113억(13억)	8년	한국과학기술지주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 공문 수령/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10	대덕특구창업초기투자조합	2019-07-09	230억(54억)	8년	대덕벤처파트너스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11	미래-과기특성화대학 창업투자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8-07-13	68억(44억)	10년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학창업기업						
12	대전4차산업혁명투자조합	2017-12-21	130억(87억)	8년	대덕벤처파트너스	
대전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연구소, 공장 포함)를 둔 기업						
13	대전 엔젤투자매칭펀드	2015-12-29	50억(32억)	10년	한국벤처투자	
대전광역시 내 기업가치(post-money)가 50억원 이하 창업 후 3년, 매출 15억원 이하 연구비가 매출액의 5%이상 등						

※ 자료 : 한국벤처투자(<http://www.k-vic.co.kr/>)

지역
스타트업의
펀딩 수요 및
공급

- 위의 대전지역의 투자펀드 이 현황으로부터 보자시피, 대학창업펀드, 기술사업화펀드, 개인투자조합형의 지역펀드 등 있고, 이들 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로서 창업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펀딩을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투자펀드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수요를 볼 때, 기술개발과 제품개발 등의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수요 대비 가용투자 펀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단계를 주목적 투자로 하는 펀드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벤처금융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은 시장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초기 투자영역에서 특히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초기투자는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인데 비해 기업공개 이전의 회수시장이 없고,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 특히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기 어려운 영역임.
 - 창업초기단계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IPO 직전 기업들에 집중하고 있음.
 - 최근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지원 사례도 있지만,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므로 TIPS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지역기반의 TIPS프로그램 또는 산학연협력형 지원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
 - *경기도는 경기도형 TIPS프로그램으로 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WINGS프로그램 운영 중

참고 1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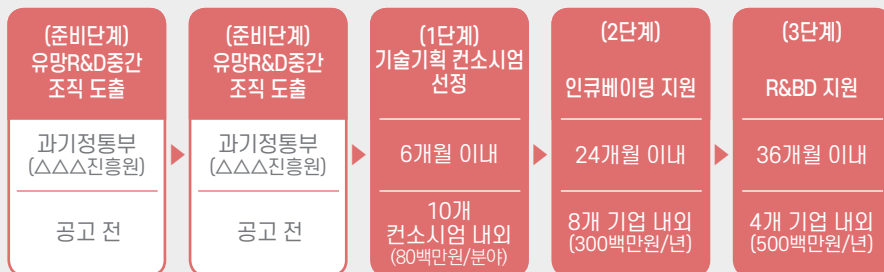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민간에서 선투자(6천만원 이상)한 도내 우수 스타트업(7년 이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2년간 최대 3.5억원 사업화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민간 운영사(엑셀러레이터)가 선 투자한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
- 추진방법
 - 우수한 투자역량, 보육역량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 (民) 우수기업 선발 · 투자 · 보육역량 + (道) 사업화 지원(2년간 기업당 최대 3.5억원)
- 기대효과
 - 민간의 우수역량을 활용하여 민관협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시장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참고 2 산학연협력기술창업법인 육성사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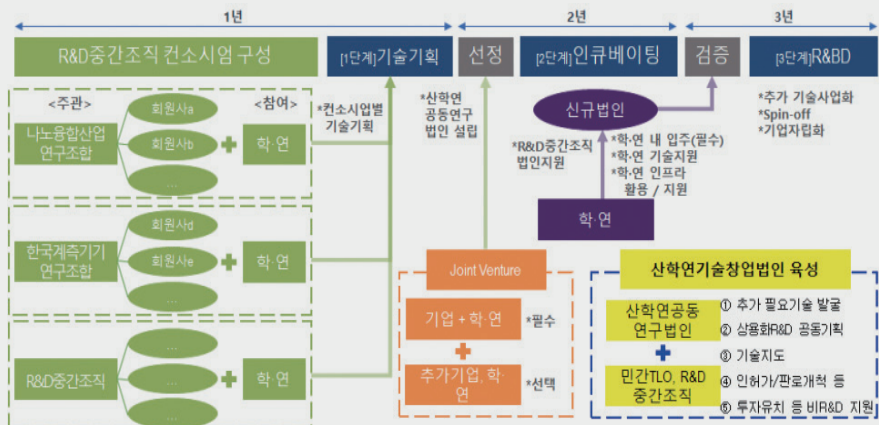
✓ **사업내용**

- R&D중간조직*을 활용, 산학연협력 기술창업법인 설립과 연계하여 민간(기업) 수요기반의 공공기술사업화 유망 분야 발굴, R&D, 상용화 기획, 인허가, 판로개척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주기 지원
 - * (역할) 연구조합/협회/과기협동조합/학회 등의 R&D중간조직이 회원사의 공통기술수요를 기초원천기술과 연계하고 상용화 R&D기획, BM발굴, R&D 수행검증, 상용화 과정의 갈등 중재 등 사업화 애로사항을 해결
- (기술기획 지원, 1단계) R&D중간조직 주관, 회원사+학연 참여 형태로 2개 이상의 사업화 아이템 기획
- (인큐베이팅 지원, 2단계) 기술기획(1단계)에서 발굴된 융합기술 개발·사업화 과제에 대하여 기업(기술창업법인)이 주도하는 산학연 공동 R&D 지원(기술소유 학연 내 입주)
- (R&BD 지원, 3단계) 대학·출연(연) 내 소재지에서 나온(Spin-out) 기술창업법인에 대한 R&BD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체계(안)]



[사업 개념도]



3-4 대전시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가용자원 현황

3-4-1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

일반현황

-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조례') 제15조
- ✓ **설치연도**: 1998년 / 조성목표액 : 20억원
- ✓ **존속기한**: 2023.12.31.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5조의 2
- ✓ **조성목적**
 -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 중소기업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
- ✓ **기금용도**
 - 지역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및 기업의 혁신기술개발 사업지원
 -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 촉진사업 지원 등

기금 조성 현황

✓ **조성액** : 1,634,564천원(적립금 1,150,000천원 + 이자수입)

구분	연도						
	총액	2001	2002	2003	2004~2012	2013	
전입금(백만원)	350	100	100	100	시비 지원 중단	50	

구분	연도									
	총액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탁금(백만원)*	8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지정기탁금 : 800,000천원('08~'15년 매년 1억원 기탁 / 우리ETI(주))

문제점

✓ 기금목표액(20억 원) 달성 노력 부족

- (전입금)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50백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후 재정 부족을 사유로 지원 중단
- (기부금) 우리ETI(주) 지정기탁 중단 이후 지역기업과 연계한 기부금 확보 등 대안 발굴 노력 부족

✓ 소극적인 기금사업 추진

- 조례 제 18조3항에 의거 조성목표액(20억원) 미달 시에도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용 가능함에도 1998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기금사업 미 추진

기금 활용 방안

✓ (선도사업1)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교류회 등 기획·운영

- 기술, 산업 관련 명사 초청 강연회, 세미나, 경영인의 밤 등 개최 및 기술·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선도사업2) 지역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 홍보

- (기업홍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일자리 mismatch문제 해결 및 지역기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
- (기업유치) 언론매체와 공동기획 등을 통해 지역 역량을 수도권 기업대상 홍보 등 기업유치 활성화

✓ (중장기사업) 민간 및 금융권 VC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펀드로 활용

- 기업지원 VC 조성 기초자금 활용 및 지역 기술현황·스타트업 현황조사, 수도권 VC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3-4-2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및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일반현황

-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 ✓ **설치연도:** 1994년/ 조성목표액 : 1,800억 원
- ✓ **존속기한:** 2025.12.31
- ✓ **조성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저리 융자지원 자금난 해소

기금 조성 현황

- ✓ **조성액 :** 1,822억 원 (20.12월말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조성액	출연금	정부 차입금		보유현황
			금액	상환기간	
합계	1,822	627	1,195		1,049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1,075	'98년~'11년	731 (농협융자)
시장유통자금	-	-	120	'98년~'17년	318 (통합기금예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현황**

(단위: 억 원)

자금명	융자액	융자 조건
계	931	
경영안정자금 (대전형 뉴딜)	300	(대상) 비대면, 바이오, 뉴딜분야 관내 벤처·창업기업 지원 (금액) 3억 한도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600	(대상)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 초기 지원 (금액) 5억 한도
중소기업 유통업 운전자금	31	(대상) 관내 유통업자 (금액) 11억 한도 / 시설투자 10억, 운전자금 1억

※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200억 원 확대(731억 원 → 931억 원)

기금을 활용한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개요

- ✓ **조성목적:** 정부기관별 지역균형 뉴딜펀드 조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및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신산업 육성 성장**
- ✓ **조성규모:** 1조원 (국비 6,000억원, 공공기관 등 550억원, 시비 1,200억원, 민간 2,250억원)
- ✓ **조성기간:** 2021년~2025년
※ 2021년: 2,000억원 (국비 1,000억원, 공공기관 등 550억원, 시비 200억원, 민간 250억원)
- ✓ **추진전략:** Two-Track 대전형 뉴딜 펀드 조성 추진

①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혁신 모펀드 조성사업)	(조성규모) 1,000억원 *국 400, 공공400, 지자체 200 / ('21년) (추진방법) 충청권 상생협력에 따른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연대 추진
② 한국형 뉴딜펀드* 공모에 따른 자펀드출자 * 정책형 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지역산업 활력펀드 등	(조성규모) 9,000억원 * 국 5,600, 시 1,150, 민간 2,250 / ('21~'25년) (추진방법)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모펀드 공모에 따른 출자 등 ※ '21년 계획 1,000억원 조성 / 국600, 시150, 민간250

펀드 자금 확보 개선 추진

- ✓ **(현재) 일반회계 세출예산(출연금) 편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행**
* 펀드 출자 근거 미약, 예산편성 사전절차 추진으로 적기 펀드 출자 어려움
- ✓ **(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펀드 출자(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이원화)**
 - * **【출자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 **【향후계획】** ('21년) 조례·규칙 개정,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반영, 본예산 확보
('22년) 2025년까지 기금 투자계정 활용 출자(매년 250억원 규모)

제4장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대전 스타트업 Inno-Fund 기본계획



- 4-1. 투자조합 조성계획(안)
- 4-2. 투자조합 출자조건 설정 및 운용사 선정(안)
- 4-3. 독립·자율형 공공 대전지역전문 투자펀드·기관 조성방안
- 4-4.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방안
- 4-5. 투자조합 결성 관련 법·제도적 이슈

4-1 투자조합 조성계획(안)

대전형 '스타트업 Inno-Fund' 조성·운영 방안 제안

- ✓ 성장단계 측면에서 대전지역 기업의 투자 자금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성장단계 위주의 투자조합 결성을 대상으로 출자하도록 펀드 방향을 설정
 - 대전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수요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도약기 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창업/초기, 제품개발 등의 단계를 투자하는 펀드결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적합할 것으로 사료
 - 이에 Inno-Fund 조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 (1안) 모태펀드 조성 · 운영
 - (2안)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투자조합 출자
 - (3안) 독립·자율형 공공 대전지역 전문 투자기관 운영
(투자조합 결성 · 운영할 업무집행조합원(GP) 선정 등 직·간접적 참여)

지자체 최초 시민참여 공공 펀드 조성·운영 방안 제안

- ✓ 대전지역 과학기술 인력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상생·공존하여 모두가 잘 사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의 시민참여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이에 정부의 뉴딜펀드 조성방식과 같이 지역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뉴딜 투자펀드를 조성하거나,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펀드 등으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목적1) 과학으로 부자되는 시민
 - (목적2) 부자 과학자 탄생
 - (목적3) 과학의 혜택을 시민이 향유

펀드설계 방향(안)

- **(투자기획)** 투자대상을 엄선하여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투자 실시
- **(투자방향)**
 - ① 공익성(기업성장 지원)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 지역기업 투자비중: (기존) 市 간접 출자로 10% 미만인 경우가 다수 → (변경) 정책목적에 감안해 지역기업 비중 상향조정
 - ② 정부자금(지역기금)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③ 유망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선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포트폴리오)** 펀드유형 별로 글로벌 Inno-Fund와 시민참여 공공펀드를 이원화하여 펀드 성격에 부합한 기대효과 창출
- **(투자체계)**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효율 제고
- **주목적 투자(안)**

투자분야	지원분야 및 대상
융합 분야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융합실증연구 기반 닥테크 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 해외 우수과학 인재, 외국인, 글로벌 지향형 초기 스타트업
사회적 문제 해결 분야	- 기술 기반으로 지역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전략산업 분야 등	- 기타 市의 정책적 차원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

- **펀드운용 리스크 관리체계:** 대전소재 기업육성·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되, 손실을 방지할 관리체계 구축

4-1-1 (1안) 대전형 ‘모태펀드’ 조성·운영 방안 및 모델 제안

대전지역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 모델
제안

✓ 지역 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인 가칭,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 구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필요

- (기대효과) 중앙정부(모태), 대전광역시, 그리고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를 통해 모태펀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펀드의 운영·관리를 민간 투자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민간벤처캐피탈의 수익극대화 목적을 동시에 달성
- (조성목적)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에 지분출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역금융기관에 자금 공급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투자자금 레버리지 효과에 기반해 스타트업의 창업, 확장에 의한 지역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

✓ 모태펀드의 구성 주체 및 운영 조직(안)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주요 조직은 한국벤처투자(주), 운영위원회, 투자전문기관, 자문위원회, 대전지역 투자네트워크 등임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분야 중 지방계정 활용한 투자재원 제공 및 조달
* 대전광역시 기존 펀드/기금 등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모델 설계에 대한 고려 필요
- [운영위원회] 모태펀드의 기본적 운영방향 수립, 펀드 약관 및 규정, 투자전문기관의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
- [투자전문기관] 모태펀드 투자의 운영·관리 역할
- [자문위원회] 투자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으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펀드운영 계획, 투자전문기관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문역할
- [대전광역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정책방향 수립, 펀드의 전반적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
* 투자전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업무는 대전광역시의 기존 기금들 중에서 투자(출자)가 가능한 기금의 관리부서가 담당.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상시 보고체계 필요
- [전담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스타트업, 지원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자전문기관이 투자조합결성, 투자집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전담하여 제공
* 투자전문기관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재)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담당

대전형 뉴딜 모
태펀드의 출자
분야 계정

✓ 대전광역시는 모태펀드의 출자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대전의 전략산업, 융합·글로벌에 기반한 산업,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내총생산 증대 등이 큰 사업 분야에 집중

자금 조성 방안

✓ 중앙정부(한국벤처투자(주)),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성

-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투자자원 출자는 대전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및 유치에 긍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중앙정부(모태펀드)의 지방 계정을 활용해 목표 조성규모(50%) 조달
- 대전광역시는 기존 12개 펀드와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의 모태펀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고, 출자 가능한 펀드를 통해 목표 조성규모(10%) 조달
 - *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필요. 필요시 개정 작업 추진
-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제회, 관련협회, 지역중견기업 등의 기관투자자들과 민간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민간 투자자들을 통해 목표 조성규모(40%) 조달

✓ 향후 10년간 회수에 의한 재투자 금액을 고려하면 목표펀드 조성 부담은 축소될 수 있음

- 펀드 회수에 대한 시기를 고정하지 않았고, 회수금액 또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을 추가적 펀드 조성 금액으로 활용한다면, 대전광역시의 목표 펀드 조성 규모는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음
 - * 향후 펀드설계 용역을 통한 세부 자금조성규모(안)에는 회수 자금을 포함한 설계를 고려해야 함

조성자금 운영방안

✓ 펀드 운영기간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운영기간은 투자대상의 사업(전략산업, 일반산업 등) 및 업력(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등), 그리고 투자방법에 따라 상이함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는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전략산업의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간 운영을 통해 시장 여건에 따라 출자 규모 및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회수된 투자금은 다시 재투자를 통해 출자→투자→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이 필요함
- 이를 고려하여, 스타트업에서 부터 성공적인 신규상장을 통한 일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시점까지 이르는 기간을 대략 12년~15년으로 보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25년~30년정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조성자금 운용방안

✓ 펀드 운용방법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는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는 투자전문기관의 운영·관리에 따라 구분함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투자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투자전문기관은 투자대상에 대해 투자전문기관이 직접적으로 투자조합결성 및 투자(출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투자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고,
 - 투자전문기관이 대전지역의 스타트업 전담 금융기관들(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들 전담 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에 대해 용자와 투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투자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
- * 모태펀드의 운영위원회에서 투자전문기관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결정하며, 한도결정은 펀드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투자전문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투자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민간 투자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방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출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창업·확장 투자를 활성화시킨 지역경제발전의 기여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

자금 회수방안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기간은 펀드의 성격(산업별, 성장단계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별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회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자금 회수는 매각, 상장,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의 자금회수가 가능

사업추진계획 (안) 마련

✓ 대전광역시 기존 펀드 정비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총괄 기획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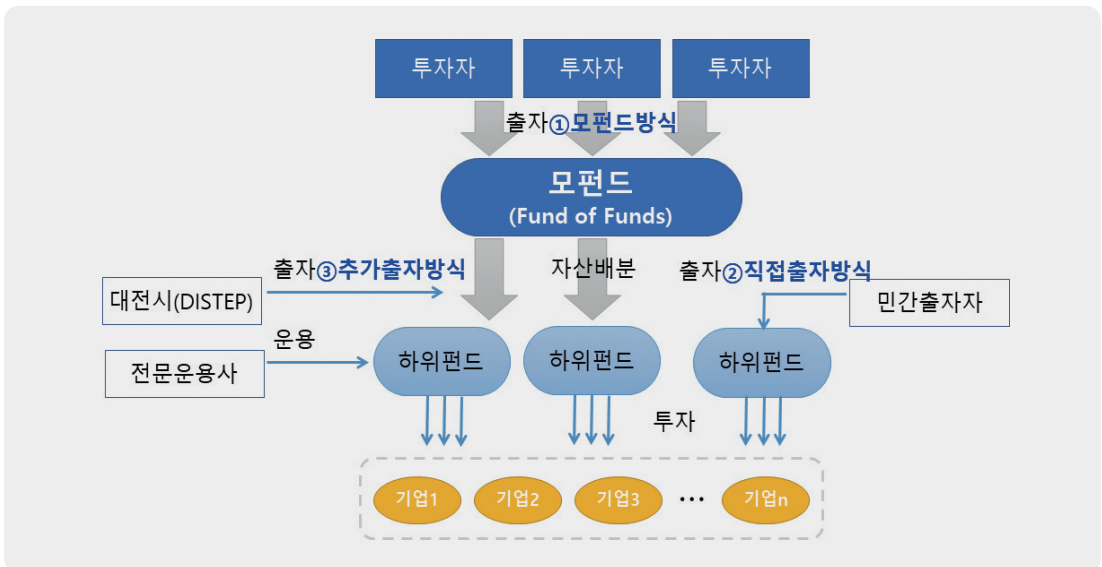
-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출자자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우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부서에서 대전광역시 역할(펀드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는 것이 관련 업무의 지속성과 일원화를 위해 적절함
- (1단계) 기획연구 및 기본계획수립 → (2단계) 대전광역시 기존 펀드 정비 → (3단계) T/F팀 및 위원회 구성 → (4단계) 대전형 뉴딜 모태펀드의 설립 및 실행(안) 수립 → (5단계) 펀드 조성 완료

4-1-2 (2안)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투자조합 출자

✓ 결성되었거나 결성 예정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출자사업 공고를 내고, 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 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

-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 등에서 실시하는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운용사들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출자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펀드 분야에 선정된 펀드 2~3개에 주요 출자자로 참여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출자예산이 많지 않을 경우, 모펀드 방식은 직접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직접 출자 방식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는 출자사업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내 주요 모펀드의 하위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검증된 운용사를 선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정책적 출자 목적을 달성할 필요

[펀드출자방식(모식도)]



✓ 장/단점

- (장점) 검증된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고, 특별조합원(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등)의 사후관리를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단점)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수익률과 함께 지역산업,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을지 불확실 함

4-1-3 (3안) 투자조합을 결성 운영할 업무집행조합원(GP) 선정 방식

✓ (3-1안) 향후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업무집행조합원(GP)을 선정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내고,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GP)과 협력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

- 결성할 투자조합이 모태펀드 출자조합을 목표로 하는지, 업무집행조합원(GP)이 일반 출자자(LP) 모집·조합결성 하는지에 따라서 2가지 형태로 구분

✓ (3-2안)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운용할 수 있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하고, 선정된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

- 선정 대상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출자사업 공고시점 기준 최근 1년 이상 대전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로 한정하여 대전 엑셀러레이터 대상 전용 펀드로 결성, 운용하는 형태 고려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20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1월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8월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기존 개인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도 가능해짐으로 인해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4-2 투자조합 출자조건 설정 및 운용사 선정(안)

[기본원칙]

- ✓ **성공적 펀드 조성, 펀드 수익 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한 출자 조건 설정**
 - 성장단계 측면에서 대전지역 기업의 투자 자금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성장단계 위주의 투자조합 결성을 대상으로 출자하도록 펀드 방향을 설정
 - 기본 조건 외에 투자 대상(지역 기업 투자 조건 설정 포함) 설정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 **전/후방 연관 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전/후방연관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동시에 투자 성과를 제고

4-2-1 펀드출자 조건 설정

- ✓ **성공적 펀드 조성, 펀드 수익 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한 출자 조건 설정**
 - 성장단계 측면에서 대전지역 기업의 투자 자금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성장단계 위주의 투자조합 결성을 대상으로 출자하도록 펀드 방향을 설정
 - 기본 조건 외에 투자 대상(지역 기업 투자 조건 설정 포함) 설정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 **전/후방 연관 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전/후방연관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동시에 투자 성과를 제고

스타트업
Inno-Fund
구성·운영
방안의
유형별 절차가
상이

✓ 운용절차는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와 펀드 사후관리 절차로 구분

- 3가지 방안에 따른 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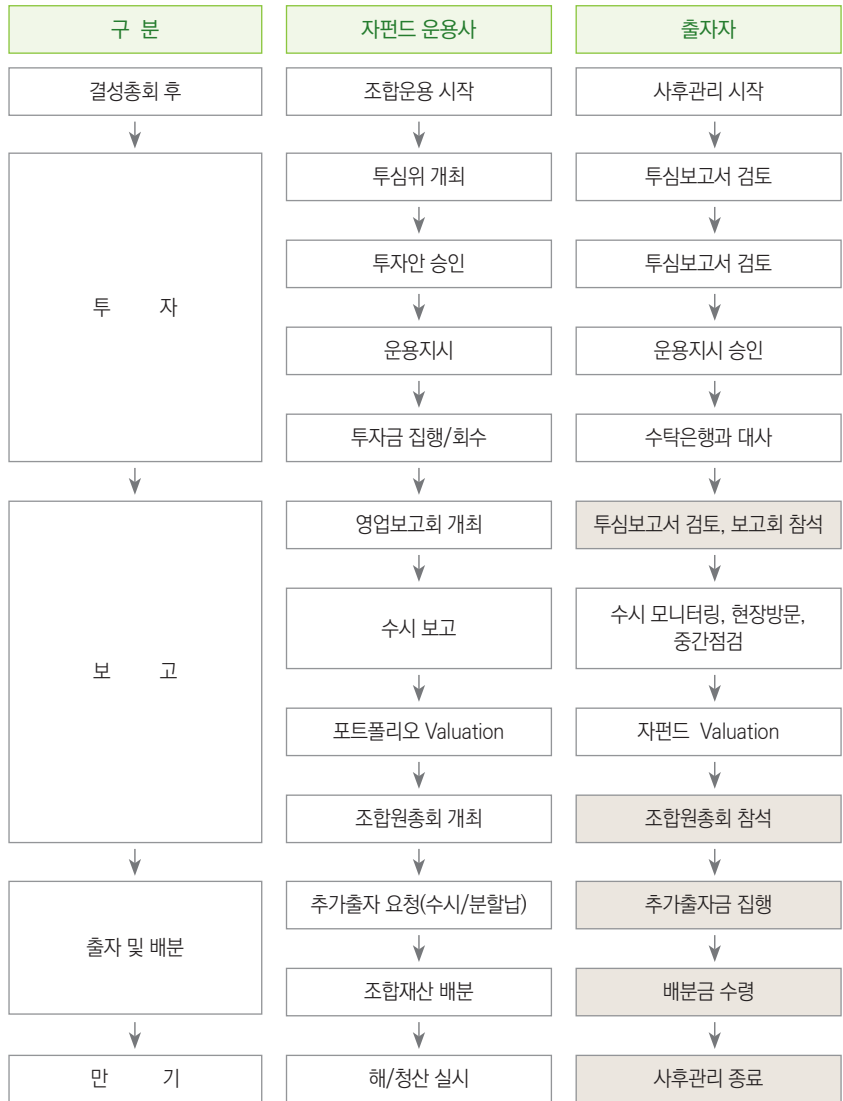
절 차	주요 내용	
운용계획 수립	주요 출자조건, 투자대상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사업공고	운용계획에 따른 출자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출자 제안서 접수(공고 후 3주~4주 소요)	
↓		
1차심의 (100% 정량)	서류심사 ↓	펀드 운용 및 준법성 심사
	현장 실사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및 확인
↓		
2차심의	출자심의위원회 (프리젠테이션)	운용사별 펀드 운용 전략 등 발표, 출자심의위원회별 질의응답 및 평가
↓		
선정 결과 발표	선정 결과 발표	
↓		
조합규약 협의	주요 LP, 기타 LP 및 GP간에 규약 협의	

[출처]한국벤처투자(주) 제공자료, 내부심사기준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며,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마련될 필요

-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는 직접 출자 방식과 유사하나 국내 주요 벤처펀드 출자자의 검증을 거친 운용사를 대상으로 출자사업을 진행하므로 1차 심의는 생략 가능하며,

스타트업
INNO-Fund
구성·운영
방안의
유형별 절차가
상이

✓ 펀드 사후관리 절차



[출처]한국벤처투자(주) 제공자료, 채색된 박스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LP가 하는 사후관리 활동이며, 채색이 안 된 박스의 활동은 모태펀드가 특별조합원으로서 수행하는 활동임

- 펀드 사후관리 절차는 특별조합원인 국내 주요 벤처펀드 출자자가 진행하므로 투자보고회, 조합원 총회 참석만으로 관리될 수 있고 조합의 주요의사결정도 특별조합원과 협의하여 의사표명을 하면 되므로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

4-2-3 연차별 추진계획 및 향후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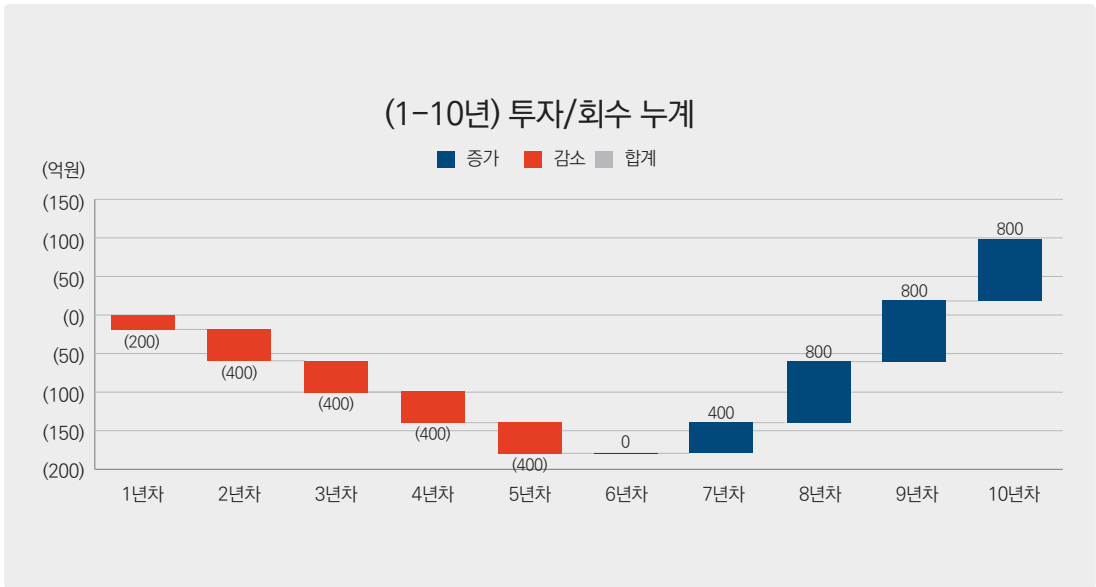
- ✓ 벤처펀드는 보통 운용기간 8년 중 초기 4년간은 자금이 투입되고, 5년 이후부터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므로 장기적인 자금계획에 따라 출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성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
 - 매년 최소 2개 이상, 최소 8년 이상의 펀드 출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벤처펀드 출자는 J커브 효과로 인해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하고 투자기간 이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영진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지가 있어야 지속가능
 - (자금운용) 시뮬레이션 : 매년 2개의 펀드를 결성, 펀드별로 200억원을 출자(2회분납)하며, 수익률은 청산 Multiple(x2배)으로 연차별 회수를 가정

[자금운용 시뮬레이션 표]

(단위:억원) 펀드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0	200		
2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0	200		
3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0	200	
4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0	200	
5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0	200
6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0	200
7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0
8호	투자				(100)	(100)					
	회수									1000	100
9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10호	투자					(100)	(100)				
	회수										100
합계		(200)	(400)	(400)	(400)	(400)	0	400	800	800	800
누계				(1,800)				2,800			

4-2. 투자조합 출자조건 설정 및 운용사 선정(안)

-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 1~5년차까지 총 1,800억원(매년 400억원)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다만, 6년차부터 회수금으로 펀드에 재투자가 가능할 것을 예상



- 벤처펀드는 펀드간 수익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펀드에 나누어 투자해야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음에 따라 최소 연 2개 이상의 펀드 운용을 권고
- 벤처펀드는 결성연도에 따라 평균적인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연도에만 출자하기보다는 장기간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 따라서 최소 8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계획

✓ 성장단계별 확대 조성 방안(씨앗펀드→성장펀드)

- 지역 기업/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전지역 육성기업/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씨앗펀드와 성장펀드의 비중을 고려하되, 성장단계별 투자금액을 감안한 공격적인 펀드결성이 중요
- 가급적 투자 회수금액이 누적되는 7년차 이상에서 성장펀드를 결성하되, 회수금액을 씨앗펀드의 개수를 늘여서 재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성장펀드로 결성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

4-3 독립·자율형 공공 대전지역전문 투자펀드기관 운영방안

4-3-1 펀드출자 조건 설정

(타 지자체 성공사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투자구조 및 주요성과

- ✓ (투자구조) SBA는 LP로서 간접투자(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또는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에서 선정된 하위펀드에 추가 출자방식)을 중심으로 펀드를 운영하면서 직접투자를 병행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제고

구분	운영(안)
일반적 LP 투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로서 큰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소수의 유망기업에 집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 Value 이상의 기업들에 투자 - KVIC 또는 성장금융에 운영을 전적으로 위탁하여 실제 투자에 관여하지 않음 - 선정된 GP의 직접투자 결과에 기반해 KVIC 또는 성장금융이 간접투자한 현황을 보고받는 수준으로 운영
S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로서 출발하였으나, VC와 함께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부역량을 축적한 뒤 자금을 분산하여 다수의 유망기업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 Value 이상의 기업들에서부터 투자를 진행하여 100억 Value 기업이 되었을 때까지 후속투자(~Series B단계) 진행 - 초기 KVIC 또는 성장금융에 운영을 위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VC와의 네트워킹 기반 직접투자를 병행하여 실제 투자에 관여 - 투심위 기반으로 직접투자,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엑시트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SBA가 먼저 투자하면 GP가 7배수 이상의 후속투자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화

[출처] 2021년 창업사업화 플랫폼 연구회 9차 회의 결과(2021.08.18.)

VENTURE FUND

벤처펀드

민간 레버리지를 활용한 서울시 및 SBA 펀드 조성

서울시 투자 생태계 활성화

선순환 투자 프로세스 구축

EQUITY INVESTMENT

지분투자

100% 민간투자전문가의 추천과 심사로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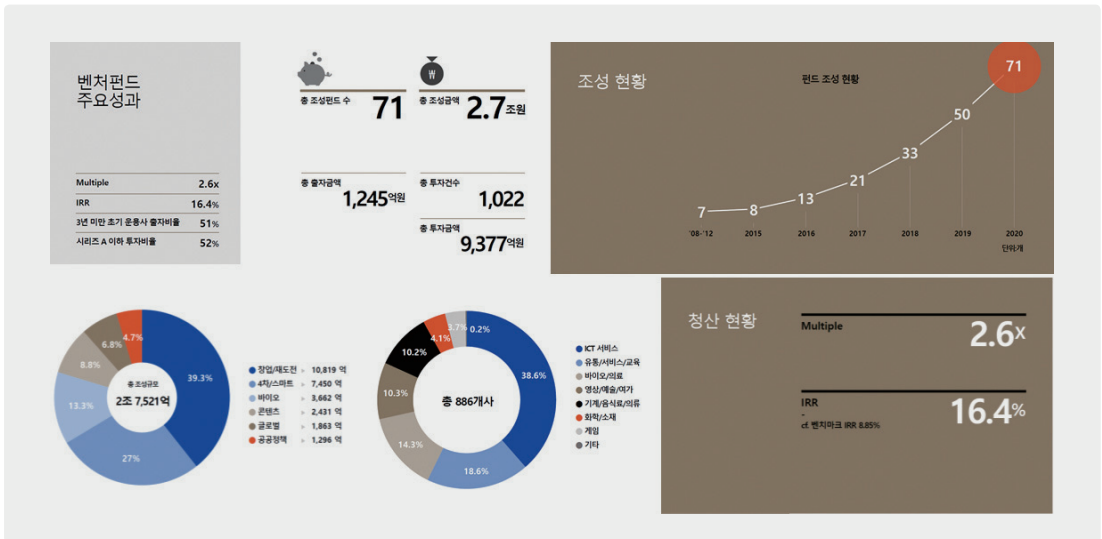
Early stage 스타트업에 집중

후속투자 연계 등 Value up support

(타 지자체 성공사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투자구조 및 주요성과

- 초기에는 기업가치 100억원 Value 이상의 기업만 투자하는 VC들 특성상 해당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기업이 다수였으나,
- 이를 개선해, SBA는 선제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보이는 해당 기업군(기업가치 50억원 밸류 규모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AC, Incubating 등 추가지원과, 투자를 통해 구축한 선도 레퍼런스 기반 VC간 신뢰*를 토대로 VC와의 Club Deal Making, 후속투자 유도를 주도
- * SBA는 연간 20~30개 투자 중으로 투자기업 중 약 82%는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 바로 기업가치 1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변모

✓ (주요성과) 2020년말 기준, 동종업계 比 상위 2% 수준(IRR 16.8%, 성공보수 400억원 수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4개 센터에서 약 250개 기업을 육성 중



[출처]한국벤처투자(주) 자료근거, VC는 SBA에서 Accelerating되고 있는 기업을 딜소싱이 용이함

[출처] SBA액셀레이팅센터 제공자료

(타 지자체 성공사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투자구조 및 주요성과

- ✓ (펀드운영위원회) 지역산업의 흐름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펀드출자방향은 가변적일 수 있으니, 펀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
- 앞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성공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면서 투자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한 재투자/확대투자를 위한 투자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
- ✓ (전문조직 운영 노하우) SBA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특수부서로서의 조직적 배려를 기반으로 축적한 자체운영 노하우를 DISTEP제시

(타 지자체 성공사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투자구조 및
주요성과

요건	조직적 지원(안)	→	자체운영 노하우(권장사항)
별도 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차원에서 2,000억 규모의 투자재원을 지원(2020년~) * 매년 500억 이상의 출자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예시) 자체 재원으로 Seed 펀딩 지원에서부터 Series A 자금 지원까지 투자지원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1,000억~2,000억 규모의 Series B 규모의 자금지원을 병행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 생태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업무부서(창업본부 일부직원 및 투자지원팀 전원) 전 직원이 VC 전문가 교육과정을 매 반기별로 수강 - 개인별 업무추진비, 출장비 사용 등에 자율성 부여 * (예시) Block Funding*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공모 프로세스를 생략, 사적 제한경쟁 체제로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고계획을 네트워크 그룹에만 공유하되 서울시 수요분야에 적합한 VC들과의 수요를 분석한 뒤 제한경쟁을 실시 - Block Funding으로 VC와의 커뮤니티 형성과 네트워킹, 사적교류를 주도하도록 지원 (전통적으로 형성되는 기수별 인맥 주도) * "사업예산" 운영권한 전적 보유 (사의회,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 * 예산의 융통적 집행 최대화
투심위 직접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설치, 이를 통해 심사역을 6년 정도 지원(연간 600개 이상 기업 검토)하여 VC들로부터 지식을 습득한 결과, 자체 역량이 축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심사역 및 컨설턴트 중 진성 전문가 파악이 가능 ☞ LP로서 역할을 Core로 VC로부터의 학습을 부가하여, GP수준의 전문성 확보
분산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ck Funding* 방식을 채용하여 관리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 Block Funding 방식이 아닐 경우 다수 Fund 관리, 운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입장에서 1개 GP를 선정하는 경쟁률 높은 선정공모에는 지원하려 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다수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수의 Fund 구성을 기획
적극 행정 면책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으로서 소극적,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할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역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기반으로 VC그룹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수행하고, 성과 기반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IRR 16.7%, 전국 LP Top Tier 수준의 성과 창출

(타 지자체 성공사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투자구조 및
주요성과

요건	조직적 지원(안)	→	자체운영 노하우(권장사항)
정보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들과의 Contract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ERP 시스템 구축을 지원 - VC들의 Deal Making부터 Closing 그리고 이후 투자회수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Web 크롤링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계 동향, 추이에 대한 정보력 강화 - 창투사들과의 사적 네트워크 모임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여 네트워킹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중인 창투사로부터 매 분기별로 투자내용을 보고받고 있어 투자기업별 투자유치현황, 가치평가 변천, 점수 등을 시스템적으로 파악 -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투자 생태계 분석이 가능해지고, 창투사들이 SBA의 정보력과 네트워크 그룹에 진입하고자 유인책이 실행되는 구조가 생성 - 창투사들과 내부 네트워킹 채널에서의 입지가 강화 - Deal Sourcing시 SBA가 지원한 기업들을 어떤 창투사에게 맡기면 좋을지 등 맞춤형 Deal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확보 ☞ "SBA로부터 펀드를 지원받으면 Startup에 Deal 받는다"는 공식 형성
연계 공간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관련 인큐베이팅 센터(4개 센터 → 24개 센터까지 검토 중)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보입수 채널 확보 -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적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기업 육성효과 제고, 투자기업 Value up 효과 창출
계약 방식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방식이 아닌, 철저히 계약에 기초한 거래를 수행 - SBA는 매달 3차례 투심위를 진행하며 심사역은 계약에 의거해 심사에 필수적으로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AC와의 거래가 수월 - Deal Sourcing 이후 투자기업 Value up이 용이
성과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재원으로 수익을 낼 경우 성과보수의 20%(약 400억)를 자체 재원으로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A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공공의 역할과 기업투자 성과 창출을 동시에 충족
별도 가점 체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앵커 GP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신생 창투사들에게 SBA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점을 활용하여 先 LoC를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앵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신생창투사는 SBA와의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구조를 기대

(타 지자체 성공사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투자구조 및 주요성과

✓(심사역 관리) SBA는 서울소재 창투자 외에도 지방의 창투자까지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역량이 부족한 파트너는 배제하는 제약조건 부여

[「SBA의 네트워킹 대상 파트너 요건」]

구분	AC(엑셀러레이터)	VC(벤처투자자)
요건1	- 30억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 200억 규모 이상의 투자조합 조성
요건2	- 3년 내 10개 이상 기업투자	- 3년 내 10개 이상 기업투자

- * 요건은 AND요건으로 위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Deal Sourcing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
- * VC협회 등록은 되어있으나 규모가 작고, 실제 GP역량이 부족한 VC/AC가 많기 때문에 품질관리 필요
-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심사역이 투심위에 매달 3차례 투입되어 참여하도록 계약을 추진

✓(인력의 전문화) 초기부터 연봉 1억 이상의 전문 운용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구조상 큰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내부인력 역량을 강화

- 이에 따라 전 직원 명단을 두고 청렴성, 성실성 등 자질을 검토한 후 선별된 6인으로 투자지원업무에 착수
- 선별된 인력에게는 조직 차원에서 특별한 대우를 기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개발과 노력, 성과창출을 요구

특별대우	관련 세부내용
인사이동 제한	- 역량 축적을 위해 최소 3년간의 부서 이동을 제한
적극행정 면책	- 투자결정 권한 부여, 실수나 사심을 제외하고 면책
교육훈련 지원	- 서적구매비용 등 교육비로 월 100만원 이상 지원
학습 지원	- 반기별로 VC 전문가 훈련과정 참여 의무화
Block Funding	-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정산 등 비용사용에 대한 근거행위 면책 * 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자금 정산은 실시하지 않고, 계약을 통한 성과만을 기준으로 추가지원여부를 결정
자율일과 부여	- 오전 7시까지 출근 후 내부 스터디 및 행정사항을 마무리하고 오후일과는 외부 네트워킹을 독려, 자율일과 부여 * 30개 창투사와 현재 Private 네트워킹을 지속 중

SBA 방식의
원활한 초기
전문 투자기관
운영 방안

✓ (초기 네트워킹 착수 방법) SBA는 글로벌 기업 대상의 딜소싱을 통한 선도 레퍼런스 축적을 제안

- 국내 대기업의 경우 CSR 개념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 전문 투자기관은 초기부터 대기업의 관심을 얻기는 어려움
- 이들과 달리 글로벌 기업은 공공부문의 제안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며, DISTEP이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SI를 제안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선제적으로 Sourcing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

* SBA사례: 내비게이션 기술을 찾는 벤츠 R&D센터의 수요를 파악한 후 기술을 보유한 市 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제안, 해당기업은 300만불의 가치평가를 받고 독일 진출

방식	주요내용
과거방식	- 국내에서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글로벌 기업에 제안
SBA 혁신사례	- 글로벌 기업의 기술수요를 파악한 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에 제안 →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현재 글로벌 67개국 기업진출을 주도

✓ (지원구조) SBA는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지원(기업 선발·지원에 공모방식 지양)하지 않고 기업 수요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기업을 발굴해 지원

- 대기업 CVC 혹은 글로벌 AC수요를 기반으로 벤처를 발굴·육성(50억~100억 Value투자기업 DB축적으로 시작)하여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 MOU 방식으로 이들과 협업하는 체계가 아닌, 명확한 파트너십 계약(Contract)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

* SBA사례: (글로벌 기업) 수요기술 관련 기업 제안 → (SBA) 기업선별 추천 → (글로벌기업) 검토 및 선정 → 계약체결 → (SBA) 국내 선정 벤처기업에 지원금 지급 → 글로벌 진출

* 만약 글로벌기업이 딜을 중도에 중단할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네트워크에서 제외시키고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

[정책제언]
대전지역
독립·자율형
공공 대전지역
전문 투자기관
기획방향(안)

- ✓ (추진체계) 지역주도 글로벌 융합혁신 모델에 기반해 지역투자를 전담하는 별도 기술지주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별도 전문 투자기관 설립·운영

- ✓ (투자방식) 관리상 편의를 위해 투자규모를 키우고 특정 GP에게 자금을 크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규모의 펀드를 소수 운영하기 보다는,
 - 다수의 GP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딜, 기업, 기술 소싱역량 확보를 위해 적절한 목적별 펀드를 다수 조성하여 소수의 전문 정예인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립
 - * (예시) 간접투자-분야별 20~30억 규모(총 300억) 10개사를 선발하여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후 선별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추가 투자하는 구조 구축
 - GP에 모든 투자를 위임하기보다는 투자방식의 다원화를 추진
 - * (예시) 1차-간접투자(300억 규모) → 2차-직접투자(100억 규모)
 - 또한 공공의 정책적 지원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의 양적 확충보다는 다양한 다수의 초기창업기업을 선별·지원하는 방식을 채용

- ✓ (기대효과) 분야별 다양한 기업에 대한 정보력과 노하우 향상으로 내부역량이 강화되어 GP들을 이끌어나가는 수준으로 지역전용 투자플랫폼 운영 가능
 - * 스마일게이트는 SBA가 출자한 다수의 펀드로 소규모로 투자하는 선별된 기업에 대해서는 SBA 투자규모 대비 5~7배수 규모로 적극 투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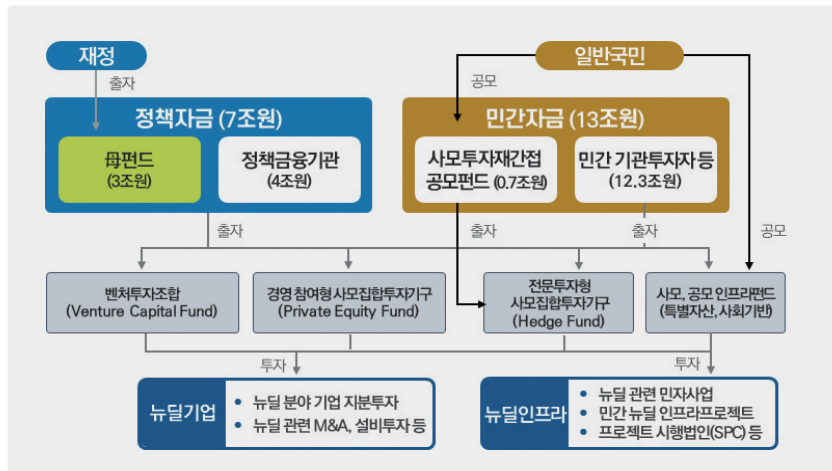
4-4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방안

- ✓ 대전지역 과학기술 인력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상생·공존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의 시민참여 방안을 2가지 방안으로 제시

(1안) 시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투자 펀드 조성방안

- ✓ (조성방식) 민간 지역펀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자체 펀드 결성 유도
- ✓ (조성목적) 정책형 지역펀드는 지역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전지역 융합형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기업, 지역내 소셜벤처 및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 추진
 - 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하여 마련
 - *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성액 : 민간 투자자금의 약 5% 내외
 - *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에서 최대 20%까지 후순위 손실부담

[(관련 사례) 정책형 뉴딜펀드 기본골격]



- ✓ (조성방향)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 ① 민간의 상향식 투자제안(bottom-up)에 기반하여 자금배분
 - 기술집약형(Deep Tech)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기업, 지역내 소셜벤처에 중점투자
 - ② 지역 혁신형 M&A·핵심기술 인수, R&D·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 병행
 - ③ 기업투자 중심으로 운용하되, 지역 인프라 사업에도 일부 투자(약 10%~30% 수준)
 - 시장수요, 정책 우선순위, 투자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기별로 유형별·분야별 자원배분 비중을 재조정

(1안)
시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투자 펀드
조성방안

✓ 민간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 시민참여형 공공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 ①장기투자(최장 15년) 허용, ②인센티브 제공(손실금 일부에 대해 손실보전(평균: 10%)), ③투자위험 완화·지원 구조(정책출자비율을 최대 50%까지, 리스크가 큰 분야의 기준수익률을 하향조정(예: 7% → 4%)) 마련

(2안)
클라우드 펀딩
연계지원형
시민참여
공공펀드
조성방안

✓ (조성방안)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과 별도의 시민참여 공공펀드를 DISTEP의 육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투자와 함께 추가적인 지역사회적 가치를 제안할 필요

- (방법)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집중하여 높은 주목적 투자 비중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따라 초기 재원은 기부금 형태*로 조성
 -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경남 청년임팩트투자펀드(하모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지역 기관들을 LP로 섭외
 - * 법인세 감면 등 혜택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구현 홍보수단으로서 활용가능한 점을 유인책으로 활용해 기관들을 섭외, 기관당 약 3억원 이상의 기부체납을 요청

[관련 사례] 정책형 뉴딜펀드 기본골격

경남 청년임팩트투자 펀드(일명 '하모펀드')
2020년 12월 결성

★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육성프로그램 결합 등 투자 외 추가적인 가치제안

I 주목적 투자대상

- 경남항 사회적경제조직 100%
- 경남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소셜벤처) 70% 이상
- 경남 경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등

집중 분야

- ① 청년(만 39세 이하) 대표자 기업
- ② 로컬크리에이터/지역재생 스타트업
- ③ 경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등

주목적 투자 70% 이상

비주목적 경남 관련성

II 운용사

III 주요출자자

IV 대표운용사

IV 공동운용사

★ 지역 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망 활용 및 임팩트투자 노하우 전수

★ 지역 기업 임팩트투자 펀드 출자에 관심있는 주요 LP들의 참여 (일부는 기부지리를 통해 참여)

- (클라우드 펀딩)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가칭 Wadiz(에시) “대전 사회적 기업관”을 개설하고 조성된 펀드와 매칭해 시민의 투자지원
 - * 시민을 대상으로 MYSC 등 GP가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대전기업 전용관을 별도 개설, 시민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는 대전시가 펀드재원을 기반으로 상한액을 두고 투자매칭
 - * 수자원공사의 경우 클라우드 펀딩 창구를 개설하여 플랜 스타트업을 지원 중
- (패키지 연계)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AC의 육성 패키지를 추가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SI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형태의 상용화 R&BD 연계를 지원하는 등 대안을 모색

4-5 투자조합 결성 관련 법·제도적 이슈

4-5-1 투자조합 조성 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조합 조성의 법률적 근거

✓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 가능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자체 출자 근거 규정)

- 2020년 2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동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형태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벤처투자법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기존)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정)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행일: 2022. 1. 28.]

지방자치
단체의
투자조합
조성의 법률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중소기업진흥법) : 지자체의 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자치
단체의
투자조합 조성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조합 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형태로 투자조합 출자 근거 규정을 두거나, 산하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음.

- 첫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형태로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
규정을 마련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정 : 2020. 12. 기준 기금조성액 1,822억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 설치)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투자조합 조성 방법

- 「지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 사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② 펀드투자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8조(기금의 용도) ② 펀드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펀드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지방자치
단체의
투자조합 조성
방법

- 둘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조례에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산하기관에 출연금 및 기금 지원을 통해 투자조합 결성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의 산하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말한다.

제6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아.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용 조례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7. 천안시 산업발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용

✓ (소결론) 대전시 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의 출자 가능(개인투자조합*)

4-5-2 투자조합 조성 관련 법 제도적 이슈

벤처투자조합
조성 절차 관련
규정

✓ (결성계획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각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1>]

[별표 1]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4조 관련)

I. 개요

1. 명칭 2. 목적 3. 조합의 규모 4. 존속기간 5. 조합원의 구성

II. 출자계획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III.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1. 주요투자대상 2. 투자방법 : 투자기업발굴 및 심사절차, 투자방식 등
3. 투자한도 4.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5.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6. 조합업무위탁의 내용(위탁한 경우에 한함)

IV.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1. 분배대상 재산 2. 분배방법 : 분배원칙, 분재시기, 분배절차 등
3. 조합의 제반비용 : 운영경비,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4.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
5. 손실금 총당 6.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방법

V.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1. 개요 2. 연혁 3. 사업내용 4. 주주현황
5. 조직구성 : 임직원 현황 및 주요심사인력의 투자경력 등
6. 경영성과 : 최근 재무제표 등 7. 투자실적 : 회사와 조합을 구분하여 작성
8. 벤처투자조합 운영현황

VI. 조합규약(안)

VII. 대표 펀드매니저 개요

1. 성명 2. 생년월일 3. 약력 4. 투자경력 등 5. 업무수탁자의 개요(필요시)

벤처투자조합
구성 절차 관련
규정

✓ (등록신청서 제출)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아래 각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등록신청서 예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벤처투자조합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금 총액	존속기간	
	주소		
변경 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벤처투자 촉진법 내 SAFE 관련 규정

✓ SAFE 계약의 의미

- 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 -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투자금만 집행하는 대신 미래에 해당 기업의 가치가 산정될 때 일정 할인을 적용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 회사가 초기 투자자에게 어떻게 지분을 제공할지 그 산정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결정하고 일단 투자
- 추후 후속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회사의 가치가 평가되면 이를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에게 제공할 지분과 단가가 산정되는 방법

✓ 근거규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 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 벤처 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벤처투자
촉진법 내
SAFE 관련
규정

✔ 투자계약서 예시 조항

제2조(투자금의 지급 등)

- ① 투자자는 아래와 같이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1. 투자금 : 금 원정 (₩)
 - 2. 입금일 :
 - 3. 입금계좌 : (예금주:)
- ② 투자금은 그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은 원칙적으로 지정하지 않되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 발생시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 및 금전지급 이외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회사 등의 의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하여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발행가액이 “전환가액”이고, 투자금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를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 2. “경영권 변경” 또는 “상장”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가.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주당 발행가액이 “회수가격”이고, 미지급액을 “회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를 투자자에 발행한다.
 - 나. 회사는 주당 발행가액이 “회수가격”이고, 투자금을 “회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를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의 납입채무를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하는데 동의한다.
-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신주발행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자의 지위)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며 채권자의 지위에 선다.

벤처투자 촉진법 내 SAFE 관련 규정

✔ 관련용어

- 할인율(Discount rate) : SAFE에서의 주식 전환 시 벤처캐피탈 투자단가 대비 할인율을 의미
- 가치평가 상한(Valuation Cap.) : 투자자와 창업자가 합의하는 투자대상 기업가치의 상한선을 의미

✔ 적용 예시

- 가정
 - * SAFE 투자자가 50억원의 가치평가상한에 1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한다고 가정
↳ 가치평가상한은 100억원, 할인율은 20%
 - * 벤처캐피탈이 100억원의 투자시점 기업가치(pre-money value)로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전 희석지분 기준 기발행 주식수는 10만주라고 가정
- 주식 수 계산
 - * 벤처캐피탈 투자단가 = 기업가치/발행주식수 = 100억원/10만주 = 10만원
 - * 벤처캐피탈 취득주식수 = 투자액/투자단가 = 10억원/10만원 = 1만주
 - * 가치평가 상한만 있는 경우 ⇨ SAFE 투자단가 = 50억원/10만주 = 5만원, 취득주식수 = 1억원/5만원 = 2,000주
 - * 할인율만 있는 경우 ⇨ SAFE 투자단가 = 80억원/10만주 = 8만원, 취득주식수 = 1억원/8만원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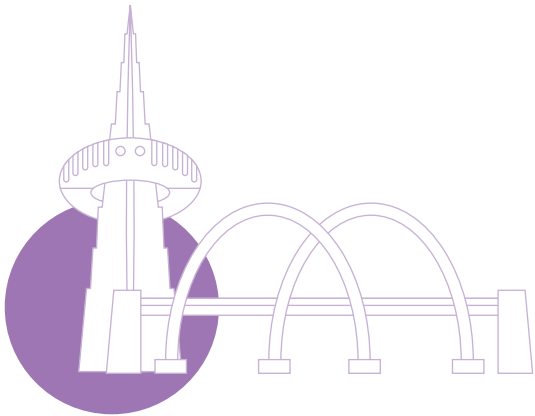
✔ (효과) SAFE 계약 도입을 통한 투자 조건 설정 방법의 다양화 ⇨ 투자 유치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법 관련 이슈

✔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경우, 현행 법률 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문제점 발생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관련 근거규정인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근거 법령 중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
- 자산운용사인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법 누락 사유를 근거로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조합 운용을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기사 존재("규정 미비·부처 해석 '엇박자'... 'K-벤처펀드' 좌초 위기")

✔ 법령 간 모순점 해결을 위한 신속한 개정이 필요 ⇨ 개정 전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에는 유의할 필요



제5장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제언: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5 제언: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및 지원근거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22년 9월)
- ✓ 대전광역시 지역 대표펀드 조성을 위해 市 담당부서와 관련 출자·출연기관(TP, 창경센터 등)과의 협의체 구성, 관련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체계 구축(~'22년 10월)
 - 市 담당부서 국, 과, 팀장 등과의 추진방향 협의(~'22년 8월)
 - 市와의 협의내용을 기반으로 市 출자, 출연기관간 협의체 구성(안) 논의
- ✓ 기본계획 전략을 도출하고, 주요과제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세부 실행방안, 계획, 추진과제 도출(~'22년 11월)
 - 총괄 사무국은 DISTEP에서 수행하되, 수행 및 관리기관은 별도 협의를 통해 선정
 - 워킹그룹별 그룹장은 2021년도 창업사업화플랫폼 연구회 위원 등으로 우선 구성하되,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위촉직으로 임명하여 운영

(2단계) 기존 펀드 정비

- ✓ 대전시에서 출자한 펀드들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기업 유형별·성장주기별 중복되는 펀드의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정비방안에 반영('22년 9월~'22년 12월)
 - 市와 출자, 출연기관에서 직접 조성한 펀드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되, 기타 市에서 간접적으로 출자한 펀드(특구재단 및 지역뉴딜펀드 등)의 경우 협조를 요청하여 분석
 -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산이 별도 마련되지 않은 바,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 요청 필요

(3단계) TFT 및 위원회 구성

- ✓ 기본계획 세부 실행과제별 TFT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펀드 준비위원회 발족('23년 3월)
- ✓ 주관부서 지정('23년 4월)

(4단계) 펀드 조성 및 실행(안) 수립 및 펀드조성 완료

- ✓ 스타트업 Inno-펀드 조성 착수('23년 3월~7월)
 - 펀드명칭, 주목적 투자계획, 관리 및 성과보수, 운용사 상주요건, 펀드조성 기한을 확정(~'23년 7월)
 - 조성펀드 출자 공고(~'23년 8월)
 - * 민간 LP 모집, 모태조합 수시출자 참가 등
 -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발표 및 펀드 결성(~'23년 8월~9월)

창업사업화플랫폼연구회 명단

내부 연구반

소 속	성 명	직 책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융합혁신본부	최병철	본부장
글로벌전략부	김경화	부장
	최규선	선임 (간사)

연구위원

소 속	성 명	직 책	소 속	성 명	직 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기동	책임 (위원장)	카이스트창업투	정회훈	대표
대덕넷	이석봉	대표	더웰스인베스트	정한철	전무
한밭대 기술지주	임종태	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대전대학교	현병환	교수	대전광역시	권경민	과장

외부 자문위원

소 속	성 명	직 책	소 속	성 명	직 책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서종근	전무	한국벤처투자	장상익	본부장
포스코	김근환	센터장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석훈	대표
MYSC	김정태	대표	바이오부딕	조영국	대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진혁	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이태훈	본부장
대전광역시	이경우	팀장	-	-	-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발행처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연구진 창업사업화플랫폼 연구회 및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글로벌전략부

연구회 위원장 에너지기술연구원 윤기동 책임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현병환 교수 대전광역시 권경민 과장
KAIST 창투 정희훈 대표 한밭대 기술지주 임종태 대표
대덕넷 이석봉 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더웬스인베스트먼트 정한철 전무

연구담당 글로벌전략부 최규선 선임

집필진 윤기동 위원장(에너지기술연구원) 정희훈 위원(KAIST 창투)
임종태 위원(한밭대 기술지주) 권경민 위원(대전광역시)
조원희 위원(법무법인 디라이트) 정한철 위원(더웬스인베스트먼트)
최규선 선임(글로벌전략부)

주관부서 융합혁신본부 최병철 본부장, 글로벌전략부 김경화 부장

문의 글로벌전략부 최규선 선임(c_ks@distep.re.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술융합형 딥테크 투자플랫폼 구축방안 : 대전 스타트업 Inno-Fund를 중심으로(대전과학산업진흥원, 2022)' 라고 출처를 명기해야 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